

Jthink 2012-JU-26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 김진석 • 전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신동훈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유수영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박재곤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정책팀장

조성환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연구관리 코드 : 12JU2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2) 연구내용 및 방법

(1) 투자유치 여건 분석 지표 설정

-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를 설정
 -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정책 환경 등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분석지표를 설정

(2) 전북 일반현황 분석

- 투자유치 여건 관련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일반현황을 분석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 지리적 특성, 인구 및 지역경제의 특성, 교통 인프라 여건의 특성 분석

(3)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를 통해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을 분석
 - 시·도 단위에서의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제시
 - 전북 내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제시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1)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를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
 -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입지결정요인은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 정주환경, 정부의 정책 등으로 대별되며, 기업규모, 기술수준, 업종 등에 따라 그 중요도가 상이됨
-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는 4대 분야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됨
 - 4대 분야는 기업의 일반적인 입지결정요인인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정책 환경 등으로 구성
 - 생산요소 환경: 인력, 토지, 금융 등 3개 항목
 - 산업집적 환경: 협력업체 집적, 시장수요 등 2개 항목
 - 인프라 환경: 물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생활 인프라 등 3개 항목
 - 정책 환경: 규제개선 정책, 투자인센티브 등 2개 항목

(표 1)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분야	구성 항목	세부 내용
생산요소 환경	인력	적정 인력 조달, 인건비, 노사관계
	토지	적정 입지 확보, 지가(분양 및 임대료)
	금융	자금 접근성, 조달 비용
산업집적 환경	협력업체 집적	원료 및 부품조달, 설비, 장비, S/W 업체,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집적
	시장수요	대기업 등 수요업체, 일반 소비자, 고객
인프라 환경	물적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체증) 전화, 인터넷 유틸리티 확보 용이성
	지식 인프라	대학, 공공연구소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복지 등 시설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
정책 환경	규제개선 정책	조세체계, 경쟁정책, 규제체계의 명확성
	투자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 기업유치 활동

2)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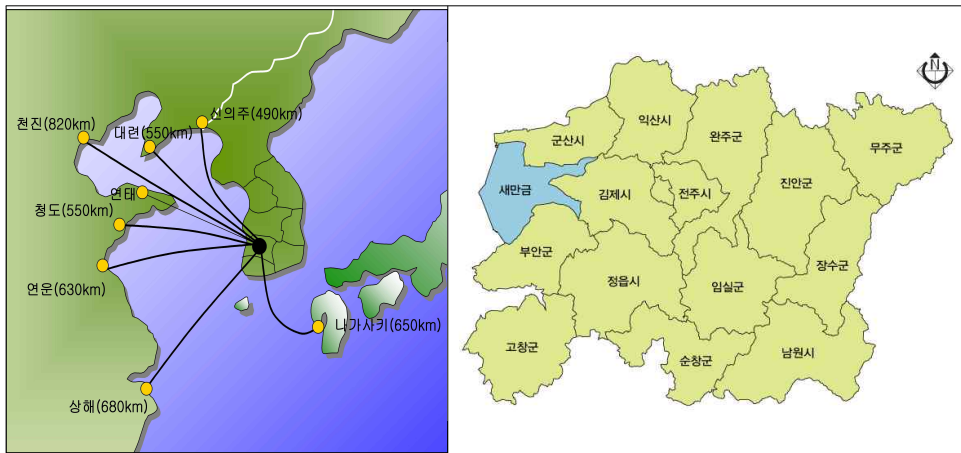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중 지역차원에서 의미 있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며, 지역차원에서 조절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요인들을 제외
 - 이들 요인들은 지역간 투자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투자환경의 구성요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함
 - 자금조달비용, 환율 및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지표, 규제개선정책 등 국가 전체의 제도적·관행적·정치적 요인,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등 제외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을 위한 분석지표는 3대 분야 6개 항목의 19개 지표로 구성
 - 정책환경 분야를 제외한 3대 분야를 분석
 - 생산요소 환경 분야 : 인력, 토지 등 2개 항목의 7개 지표
 - 산업집적 환경 분야 : 협력업체 집적 항목의 2개 지표
 - 인프라 환경 분야 : 물적인프라, 지식인프라, 생활인프라 등 3개 항목의 10개 지표
 - 정책환경 분야는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소개
 - 전북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정착지원보조금 등 제도 소개
 - 행정지원제도는 시·도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시·도별로 상이하야 일관성 있는 비교가 어려움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별로 시·도 단위에서의 지역간 비교분석과 전북지역 내 권역간 비교분석을 실시
 -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내 전북의 위상과 함께 지방의 8개 도 내 전북의 위상을 분석
 - 전북지역 내 권역별 분석은 자료 취득이 가능한 11개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분석

〈표 2〉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분야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 지표	자료 출처
생산요소	인력	적정 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배율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전문인력 확보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생산인력 확보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토지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전국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합원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중사상지원별 취업자, 임금근로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전국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합원수
토지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토지 가격	산업단지 분양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총람	
산업집적	협력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비즈니스서비스 집적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인프라	물적 인프라	도로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철도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철도 소요시간	코레일
		항만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항·부산항 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공항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공항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지식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역량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201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
			특수목적고 명단 및 재학생 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별 병상 세부현황(2011년)
			인구 1천명 당 의료인력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종합병원 수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국민은행, KB부동산, 아파트면적당 시세	
문화여건		인구1만명당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생활비용여건	1인당 가계최중소비지출액	통계청, 온라인행동, 2010 지역소득통계,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3. 전라북도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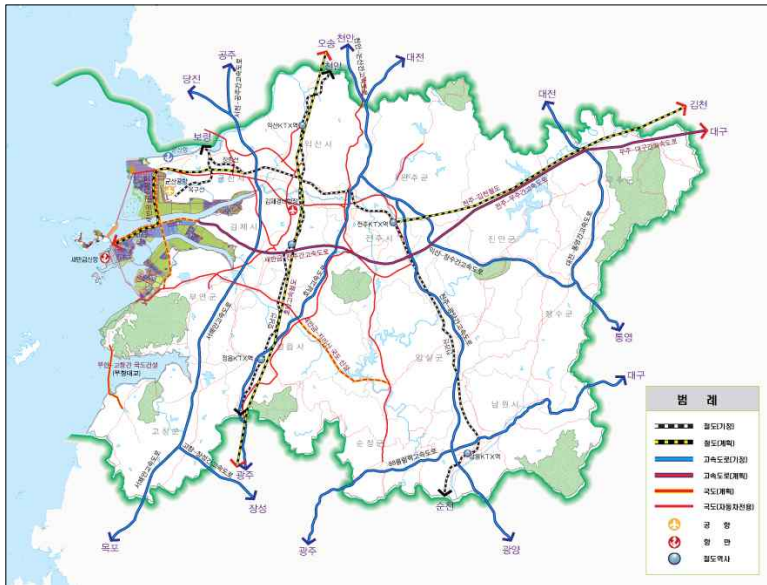
- 전북은 6시 8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수는 1,874,081명(2011년)
 - 전주시는 전북도청 소재지로 전북의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140만명 규모의 연담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함께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전북은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중국의 서해연안 경제거점인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 주요 도시가 400해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산~무안~대불을 잇는 서해안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



〈그림 1〉 전라북도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 전북 경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추세
 - 전북 경제는 최근 빠른 성장추이를 보이면서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 비중이 2005년 2.9%에서 2011년 3.1%로 증가
 - 전북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 추세가 지속
 - 2006~2001년 기간 동안 전북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수 5.39%, (전국 1.36%), 종사자수 5.33%(전국 1.64%), 생산액 14.08%(전국 11.81%)임

- 전북의 주요 업종은 자동차, 식품, 화학, 식품, 기계·장비, 비금속, 금속 등
 - 2006년 이후 자동차, 운송장비, 금속제품, 기계·장비, 전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이 연평균 10% 내외의 고성장률을 기록
 - 2006~2011년 기간 동안 사업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자동차 8.6%(전국 3.0%), 금속제품 16.9%(전국 7.4%), 기계·장비 9.4%(전국 4.9%), 전기 10.1%(전국 1.7%), 정밀기기 14.9%(전국 5.6%), 화학제품 4.4%(전국 2.1%) 등임
 - 200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 기업투자가 활발
 - 전북은 2006년이후 현대중공업, LS엠트론, 두산인프라코어, OCI, 넥솔론, 일진머티리얼스, 전방, 효성 등 매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 전북은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단지와 양호한 교통여건을 보유
 - 전북은 77개 산업단지에 총 15km²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분양가는 전국 평균의 50~80% 수준으로 저렴
 -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호남선KTX를 통해 1시간 50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2014년에 호남선KTX가 완전 개통되면서 60분대로 단축될 예정
 - 군산항 확장과 함께 새만금신항만이 조성 중이며, 새만금사업의 진전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이 검토 될 예정으로 항만과 공항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



〈그림 2〉 전북지역 교통체계

4.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1) 분야별 투자유치 여건

(1) 생산요소 여건

〈표 3〉 전라북도의 생산요소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규모* (2011)	1,895,882	51,716,745	3.7	6.8	명, %
		GRDP* (2011)	38,086.8	1,242,903.8	3.1	8.8	십억원, %
인력 (노동)	적정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2011)	849	25,099	3.4	11.3	천명, %
		구직배율** (2011)	1.75	1.52	115.3	137.8	%
	전문인력 확보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2011)	86,379	2,044,908	4.2	12.8	명, %
	생산인력 확보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2011)	32,768	843,720	3.9	11.4	명, %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2011)	2,307,304	2,487,340	92.8	98.2	원, %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2010)	4.4	7.7	57.2	89.1	%
토지 (입지)	토지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2012)	15,304	172,055	8.9	11.5	천㎡, %
	토지 가격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 (2011)	113,467	142,097	79.9	81.7	원/㎡, %
		일반산단 평균 분양가** (2011)	131,710	260,149	50.6	75.0	원/㎡,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 (2011)	41,894	76,260	54.9	54.9	원/㎡, %	

주 1) 인구규모는 총인구 기준(주민등록인구+외국인인구)임

2)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전북의 비중

- 전북의 생산요소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
 - 노동측면에서 인력조달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노사관계도 안정적인
 -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로부터 산업용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분양가도 낮은 수준임
- 전북은 인력조달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노사관계도 안정적
 - 전북의 구직배율은 1.75%로, 전국 평균(1.52%)과 지방 8개 도 평균(1.27%)에 비해 높아 인력 조달이 용이한 환경
 - 전북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수는 8만6천명으로 전국대비 4.2%를 차지하여 인구규모(전국대비 인구비중 3.7%)에 비해 고급인력 공급이 원활
 - 전북의 실업계고 및 전문대학 재학생수는 3만3천명으로 인구규모(전국대비 인구비중 3.7%)에 비해 생산인력 공급이 원활
 - 전북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31만원으로 전국 평균(249만원)의 92.8%, 지방 8개 도 평균(235만원)의 98.2% 수준으로 낮음
 - 전북의 노조조직률은 4.4%로 전국의 노조 조직률(7.7%)의 57.2%, 지방 8개 도의 노조조직률(4.9%)의 89.1% 수준으로 낮아 노사관계가 안정적
- 산업단지로부터 산업용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분양가는 낮은 수준
 - 전북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로부터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5.3km²로 전국(172 km²)의 8.7%를 점유하여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
 - 전북의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41,894~131,710원으로 전국 평균(76,260~260,149원)의 50.6~54.9%, 지방 8개 도 평균(76,260~175,573원)의 54.9~75.0% 수준으로 저렴
 -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는 113,467원/m²으로 전국 평균(142,097원/m²)의 80%, 지방 8개도 평균(138,842원/m²)의 80~82% 수준
 - 일반산단 평균 분양가는 131,710원/m²으로 전국 평균(260,149원/m²)의 50.6%, 지방 8개도 평균(175,573원/m²)의 75.0% 수준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는 41,894원/m²으로 전국 평균(76,260원/m²)의 54.9% 수준

(2) 산업집적 여건

〈표 4〉 전라북도의 산업집적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협력 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2011)	1,720	63,047	2.7	8.1	개, %
		제조업체 종사자수* (2009)	83,142	2,694,782	3.1	7.4	명, %
	비즈니스 서비스집적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 (2011)	9,280	317,171	2.9	12.4	개, %
		비즈니스서비스 종사자수* (2011)	72,218	3,270,521	2.2	12.7	명, %

주 :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북의 산업 집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전북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빠르게 집적이 형성되고 있음
 - 전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2011년 현재 1,720개로 전국의 2.7%, 종사자수는 83,142명으로 전국의 3.1%를 점유
 - 전북은 제조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2000년대 중반이후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전국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전북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6~2011년 기간동안 사업체수 5.4%, 종사자수 5.3%, 생산액 14.1%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사업체수는 4.0%p, 종사자수는 3.7%p, 생산액은 2.3%p.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전북 제조업의 전국비중은 사업체수는 2005년 2.2%에서 2011년 2.7%, 종사자수는 2005년 2.6%에서 2011년 3.1%로 증가
- 전북 제조업은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집적이 형성되고 있음
 -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기계·장비, 식료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2006~2011년 기간 동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전북의 비즈니스서비스업 발달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미흡하나, 지방의 8개도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발달
 - 비즈니스서비스업은 대도시 지향적 산업으로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발달이 미흡

(3) 인프라 여건

〈표 5〉 전라북도의 인프라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 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물적 인프라	도로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자동차 소요시간	216.3km / 159분				
	철도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철도 소요시간	전주역 : 136분(2014년 60분으로 단축)				
	항만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항·부산항 간 자동차 소요시간	인천항 : 236.8km / 165분				
			부산항 : 254.6km / 200분				
			평균 : 245.7km / 182.5분				
공항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공항간 자동차 소요시간	인천공항 : 255.0km / 176분					
지식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역량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 (2010)	7.598	8.981	84.6	101.4	점, %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2011)	11.1	12.6	87.9	95.7	명, %
		특수목적고 재학생 수* (2011)	3,357	87,898	3.8	26.0	명, %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2011)	157.6	105.5	149.3	121.8	개, %
		인구 1천명 당 의료인력** (2011)	15.1	13.5	112.5	118.2	명, %
		종합병원 수* (2011)	14	317	4.4	11.7	개, %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m ² 당 매매가** (2012)	113.0	171.5	65.9	95.4	만원/m ² , %
		아파트 m ² 당 전세가** (2012)	73.8	107.6	68.6	97.1	만원/m ² , %
문화여건	인구1만명당 문화시설** (2011)	0.6	0.4	150.2	87.4	개, %	
생활 비용여건	1인당 가계최종 소비지출액** (2010)	9,096,746	11,650,677	78.1	95.0	원, %	

주 :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전북의 비중

- 전북의 교통인프라와 생활인프라는 양호하며, 지식인프라는 보통 수준
- 전북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전북지역 내 도시간 접근성이 양호하나, 항만 및 공항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
- 전북은 교육, 의료, 주택, 문화, 생활비 등 생활여건이 양호
- 지식인프라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8개 도 가운데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전북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 내 주요 도시간 연결성도 높음
 - 전북은 서울과의 교통소요시간이 2014년 60분대로 단축될 예정
 - 현재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KTX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
 - 2014년에 KTX 신설노선이 개통되면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될 예정
 - 고속버스는 전주~서울(강남터미널) 간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이며, 일일 10분 간격으로 125회 운행(05:00~24:00)되어 이용이 편리
 -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와 1시간 이내에 연결됨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등 지역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전북 내 지역간 연결성이 높음
 -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새만금신항만이 건설되고, 군산공항 확장과 함께 국제공항 승격이 검토될 예정으로 항만과 공항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새만금신항만이 건설 중으로 2020년까지 4선석의 부두가 완공될 예정으로 군산항 확장과 함께 해운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전북의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전북의 교육여건은 초중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1.1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작고, 상산고, 전북과학고 등 등 특수목적고도 소재하여 전반적으로 양호
 - 전북은 주택 구입비가 전국 평균의 55% 수준으로 낮으며 생활비용도 78.1% 수준으로 낮아 전북의 주거 및 소비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전북은 문화시설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 많으며,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문화향유율이 높은 지역
 -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등 전북의 의료기관 및 인력, 시설이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지식인프라는 전국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
 - 전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16개 시·도 가운데 9위, 지방의 8개 도 가운데 4위 수준으로 중간 수준
 - 전북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반과 함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정책환경 여건

- 전북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의 측면에서 전북의 정책환경 여건은 양호한 수준임
- 전북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넓고, 보조금 지원한도가 큰 규모임
 - 전북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은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자정착지원보조금 등이 있음

가) 수도권 이전기업

- 지원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으로, 전부 이전하여 30명 이상 상시고용 하는 기업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입지금액의 40~60% 범위내(대기업은 지원 없음)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10~15% 범위내(대기업은 5~10% 범위내)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1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60만원 이하

나) 타 시도 이전기업(전부 이전)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이 전부 이전하는 경우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 지역특화단지 입주시 개별이전 7% 한도, 20개 이상 집단이전 10%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 (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다) 타 시도 이전기업(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2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3% 범위내(5억원 한도)
 - 건물취득(임대)비보조금 : 취득가액의 3% 범위내, 연간임대료 5년간 50% 범위내(5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라) 대규모 투자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11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5% 범위내(10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정착지원보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 : 도내 이주후 거주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범위내 월 10만원 이하

마) 분공장 투자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이상 상시 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바) 신증설 투자 중소기업(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

- 지원대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으로,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채용인원이 투자전 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사)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대상 : 도내 지역에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기업
 - 국내에 기 투자한 외국인기업이 도내에 이전·증설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임대(분양)계약서상 임대료(분양가액)와 정상임대료(분양가액)의 차액(정상가액의 50% 초과 불가)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5% 범위내(50억원 한도)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대규모 투자기업(1,000억원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는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보조금의 2% 범위내(50억원 한도)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3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3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2)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표 6〉 전라북도 권역별 생산요소 여건(2011)

분야	구성 항목	세부 구성항목	측정지표	전국	전북	전주권	정읍권	남원권	무진장권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규모 (명)	51,716,745	1,895,882	1,425,832	242,548	149,184	78,318
			GDP* (10억원)	1,172,742.2	34,643.1	25,970.0	4,433.5	2,681.4	1,558.2
생산요소	인력 (노동)	적정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천명)	25,099	863.7	638	113	73.5	39.2
	토지 (입지)	토지의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천㎡)	172,055	15,304	13,441	1,253	311	299
		토지의 가격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 (원/㎡)	142,097	113,467	113,467	-	-	-
			일반산단 평균 분양가 (원/㎡)	260,149	131,710	156,785	59,541	-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 (원/㎡)	76,260	41,894	30,250	60,307	32,141	40,520
산업집적	협력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개)	63,047	1,720	1,373	200	110	37
			제조업체 종사자수 (명)	2,694,782	83,142	71,623	6,770	3,589	1,160
	비즈니스 서비스 집적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 (개)	317,171	9,280	7,515	897	527	341	
		비즈니스서비스 종사자수 (명)	3,270,521	72,218	60,950	6,078	3,517	1,673	
인프라	물적 인프라	접근성	철도역 소재	-	○	○	○	○	-
			KTX정차역 소재	-	○	○	○	○	-
			항만 소재	-	○	○	-	-	-
			공항 소재	-	○	○	-	-	-
			고속도로 IC 소재	-	○	○	○	○	○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12.6	11.1	12.4	8.5	8.0	5.8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개)	105.5	157.6	164.0	160.2	157.3	32.9
			인구 1천명 당 의사인력 (명)	2.4	2.4	2.6	2.0	2.1	1.8
			종합병원 수 (개소)	317	14	9	3	2	-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당 매매가 (만원)	171.5	113.0	124.2	101.7	102.0	102.0
			아파트 ㎡당 전세가 (2012)	107.6	73.8	82.4	65.7	64.0	65.0

* 2010년 기준임

(1) 전주권(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전주권은 연담도시로 140만여명의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전북의 거점지역
 - 인구는 143만여명으로 전북의 75.2%, GRDP는 전북의 75.0%를 점유
 - 전주권의 도시들은 연담도시로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연결되어 향후 전주-새만금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전주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의 측면에서 모두 매우 양호함
 - 생산요소 측면에서 연구개발인력 및 생산인력 등 인력공급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풍부
 -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대비 산업용지 분양가는 국가산단은 79.9%, 일반산단은 60.3%, 농공단지 39.7% 수준에 불과
 - 전주권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3.4km²(2012년 9월말 현재)로 풍부하여 기업의 부지 확보가 매우 용이
 - 산업집적 측면에서 전북지역 제조업 사업체수의 80.0%, 종사자수의 71.6%가 집중된 산업집적지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발달
- 전주권은 양호한 생산요소 환경을 기반으로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음
 - 대학, 연구소와 함께 전북지역 제조업이 집중해 있는 연구개발 및 산업의 집적지로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교육, 연구개발, 산업의 집적지로 산업 발전여건이 양호
 - 전주권은 산업집적과 함께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클러스터로 발전이 진행 중임
 - 전국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전주권의 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 조선, 농기계, 탄소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임
 -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조성,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등에 따라 지역산업 및 연구개발기반이 강화되면서 전주권의 산업발전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전주권은 KTX철도,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시설이 잘 건설되어 있어 수도권 및 영남권, 남해안권 등 광역적 접근성과 함께 권역 내 연결성이 매우 좋음
 - 고속도로와 함께 권역 내 도시들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잘 건설되어 도시간 소요시간이 20~40분 정도로 짧음
 - 전주권에는 호남선KTX 정차역으로 익산역, 정읍역, 김제역 등 3개 역이 있으며, 전라선 정차역으로 전주역이 소재하여 권역내 모든 지역에서 KTX 정차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KTX철도 이용이 편리함
- 군산항, 군산공항이 소재하여 비교적 국내 해운 및 항공 교통이 원활하나, 국제해운이나 국제항공 등 국제적인 교통·물류 기반은 미흡함
 - 202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이 신규로 건설되고 군산항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며, 군산공항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이 검토되고 있어서 향후 미흡한 국제 교통·물류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교육·의료·문화·주택 등 생활인프라 여건이 매우 양호
 - 전주권은 교육의 중심지로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북과학고, 전북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 등 특수목적고가 소재
 -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우석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과 예수병원 등 9개의 종합병원과 주요 의료기관들이 집중해 있어 의료여건이 양호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 등 전시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이 풍부하며, 전국규모의 문화축제와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문화도시, 마한백제문화 등 문화적 자산이 풍부
 -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평균의 49.5%, 전세가는 54.9%로 매우 저렴

(2)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정읍권은 전북의 서남부지역으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으로 구성됨
 - 정읍권의 인구는 24만여명으로 전북의 12.8%, GRDP는 전북의 12.8%를 점유
 - 정읍권은 새만금의 일부를 포함한 서해안 지역으로 전북의 중심권인 전주권 및 새만금권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정읍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생산요소와 인프라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나 산업집적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과학기술 및 지역자원 등 일부 요소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정읍권의 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6만원/㎡ 수준으로 저렴
- 교통여건은 호남선 KTX 정차역으로 정읍역이 소재하고,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담양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
- 생활인프라의 경우 정읍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3개소가 있으며,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 등 의료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매매가도 평균 101.7만원/㎡로 저렴
- 산업집적 측면에서 정읍권의 종업원 10인이상 제조업체수는 200개로 산업집적 수준이 낮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달도 부진
 - 정읍시에는 130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6개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농촌지역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산업집적지를 형성
- 정읍권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출연연구기관 6개소가 입지해 있다는 점임
- 정읍시에서는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원 정읍분원 등 3개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과 생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으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생산이 결합된 첨단산업지구를 조성 중
- 부안군에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특화연구단지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기관이 입지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험평가 거점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업생산, 신재생에너지 홍보 기능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단지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태양광실증평가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의 풍력기술시험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연료전지산학협력센터 등 3개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등 시험평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입지
- 고창군은 국내 최대의 복분자 생산·가공지역으로, 향토특화산업인 복분자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고창군에서는 지자체 연구소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설립, 복분자 시험장 및 복분자테마파크 조성 등 복분자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3) 남원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 남원권은 전북의 동남부지역으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됨
 - 남원권의 인구는 15만여명으로 전북의 7.9%, GRDP는 전북의 7.3%를 점유
 - 남원권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한 지역이나, 최근 교통여건의 개선과 함께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장류산업, 치즈산업 등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남원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남원권은 기 지정된 14개 농공단지에 0.3km²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3.2만원/m²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교통여건은 전라선 KTX 정차역으로 남원역이 소재하고, 88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
 - 생활인프라의 경우 남원도립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가 있으며,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는 전국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고, 아파트 매매가는 102만원/m²로 전국평균에 비해 저렴
 - 산업집적 측면에서 남원권의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110개로 산업집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달도 부진
- 남원권에는 향토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업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음
 - 순창군은 전국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장류 발효식품산업 집적지를 형성
 - 순창군에는 대상, 사조산업 등 국내 유수의 장류생산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전통고추장 생산기업으로 특화된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이 조성되어 있음
 - 순창군에서는 장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소인 장류연구소를 중심으로 발효미생물관리센터, 발효식품물류센터,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장류체험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등과 연계하여 장류벨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임실군에는 향토산업으로 치즈를 중심으로 한 유가공산업이 발달해 있음
 - 임실군은 우리나라 치즈제조가 시작된 지역으로 임실군에서는 치즈를 중심으로 한 유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연구소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임실군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억원 한도의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4) 무진장권(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무진장권은 전북의 동부지역으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구성됨
 - 무진장권의 인구는 8만여명으로 전북의 4.1%, GRDP는 전북의 4.5%를 점유
 - 무진장권은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이 발전된 지역이며, 최근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무진장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무진장권은 기 지정된 9개 농공단지에 0.3km²의 미분양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4만원/m² 수준으로 저렴
 - 교통여건은 산간지역으로 크게 열악하였으나, 대전-통영고속도로와 익산-장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권, 대전권, 경남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 생활인프라의 경우 인구희소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제외한 의료, 문화, 주택 등 여건이 불리
 -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37개로 산업발전이 매우 부진
- 무진장권의 제조업은 지역특화 농산품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가공산업이 소규모로 발전해 있음
 - 진안군은 전국적인 인삼 재배지로 지자체 연구소인 홍삼연구소 설립, 홍삼특화산업단지인 홍삼농공단지 조성 등 홍삼가공산업을 향토특화산업으로 육성 중
 - 무주군에는 다국적기업인 다농의 유제품 가공공장이 입지
- 무진장권에서는 크게 개선된 고속도로 접근성을 이용하여 관광·휴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무주군은 무주스키장이 입지해 있으며, 세계태권도공원이 조성 중으로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휴양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
 - 장수군은 말레저문화특구를 지정받고 경주마 육성 목장 및 승마공원 조성 등 말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추진 중
 -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케어산업을 중심으로 건강·휴양산업을 육성 중

목 차

I. 연구 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범위	5
II.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
1.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9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의 구성	21
III. 전라북도 일반 현황	27
1. 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	27
2. 인구	28
3. 지역경제	29
4. 교통 인프라	35
IV.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39
1. 분야별 투자유치 여건	39
2.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74
V. 연구결과 요약	97
1. 연구개요	97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8
3. 전라북도 일반현황	101
4.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103
참고문헌	119
[부록 1]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2012년 9월말 현재)	123
[부록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126
[부록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130

표 목 차

<표 2-1> 기업의 입지동기와 적합한 입지	10
<표 2-2> 기업의 입지요인	10
<표 2-3> 일반적 입지결정요인	11
<표 2-4> 기업투자환경의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12
<표 2-5> 충청북도 기업입지환경의 수준	13
<표 2-6> 기업의 입지결정요인(변용환)	14
<표 2-7> 투자환경지수 구성요소	14
<표 2-8> 기업규모별 입지요인	16
<표 2-9> 제품생애주기에 따른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17
<표 2-10> 산업별 핵심적인 입지고려요소(대우경제연구소)	18
<표 2-11> 산업별 입지요인 특성	19
<표 2-12> 기업조직 단위에 따른 입지결정요인	20
<표 2-13>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21
<표 2-14>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구성분야별 분석지표와 자료 출처	24
<표 3-1> 행정구역별 인구 및 면적(2011)	28
<표 3-2>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	29
<표 3-3> 전북 제조업 현황(2011)	30
<표 3-4> 전북의 10대 제조업 현황(2011)	31
<표 3-5> 2000년 이후 전북 기업유치 현황	32
<표 3-6>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분양가능면적 현황(2012년 9월말 현재)	34
<표 4-1> 전라북도의 생산요소 여건	40
<표 4-2> 전라북도의 산업집적 여건	41
<표 4-3> 전라북도의 인프라 여건	44
<표 4-4> 각 시도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45
<표 4-5> 각 시도 지역별 구인·구직인원 및 구직배율	46
<표 4-6>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	47
<표 4-7>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48
<표 4-8>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49
<표 4-9> 노조조직률	50
<표 4-10>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2012년 9월말 현재)	51

<표 4-11>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52
<표 4-12>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53
<표 4-13> 농공단지 분양가	54
<표 4-14>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55
<표 4-15>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56
<표 4-16> 서울까지의 도로교통 시간 거리	57
<표 4-17> 서울까지의 철도 소요시간	58
<표 4-18> 주요 항만과의 도로교통 시간거리	59
<표 4-19> 인천공항과의 도로교통 시간거리	60
<표 4-20> 시·도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61
<표 4-21> 교원 1인당 학생수	62
<표 4-22> 특수목적고 재학생수	63
<표 4-23>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전국비중	64
<표 4-24>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전국비중	65
<표 4-25> 종합병원 수 및 전국비중	66
<표 4-26> 아파트 평당 매매·전세가 전국비중	67
<표 4-27> 인구 10000명당 문화시설	68
<표 4-28>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69
<표 4-29> 전라북도 권역별 생산요소 여건	76
<표 4-30> 각 권역별 경제활동인구	81
<표 4-31>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2012년 9월말 현재)	82
<표 4-32>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83
<표 4-33>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84
<표 4-34> 농공단지 분양가	85
<표 4-35>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86
<표 4-36>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87
<표 4-37> 도로접근성	88
<표 4-38> 교원 1인당 학생수	89
<표 4-39>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전국비중	90
<표 4-40>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	91
<표 4-41> 종합병원 수 및 전국비중	92
<표 4-42> 아파트 평당 매매·전세가 전국비중	93
<표 5-1>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98
<표 5-2>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100

<표 5-3> 전라북도의 생산요소 여건	103
<표 5-4> 전라북도의 산업집적 여건	105
<표 5-5> 전라북도의 인프라 여건	106
<표 5-6> 전라북도 권역별 생산요소 여건	111

그림 목 차

<그림 3-1> 전라북도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27
<그림 3-2>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29
<그림 3-3> 전북 제조업의 전국비중 변화 추이(2000~2011)	31
<그림 3-4>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	33
<그림 3-5> 전북지역 교통체계	35
<그림 5-1> 전라북도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101
<그림 5-2> 전북지역 교통체계	102

|

연구 개요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 전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유치가 촉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촉진은 전북의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
-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전북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투자유치 활성화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전북지역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평선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신규 산업용지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투자유치 활성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우위요소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필요
 - 전북은 산업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하고 지역개발이 지체되면서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한 제약요인들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 입지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요소들이 존재
 - 전북에서는 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북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우위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전북 일반현황 분석

- 투자유치 여건 관련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일반현황을 분석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 전북의 지리적 특성, 인구 및 지역경제의 특성, 교통 인프라 여건의 특성을 분석

2) 투자유치 여건 분석 지표 설정

-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를 설정
-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정책 환경 등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분석지표를 설정

3)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를 통해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을 분석
-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도 단위에서의 전북의 위상을 제시
- 전북 내 권역별로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에 대해 분석하여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을 제시

3.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체와 권역별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 권역별 분석은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 전주권 :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 정읍권 : 정읍, 고창, 부안
 - 남원권 : 남원, 임실, 순창
 - 무진장권 : 무주, 진안, 장수

2) 시간적 범위

-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을 분석
- 전라북도 일반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의 변화상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제조업 발전이 빠르게 전개된 2000년대 중반이후의 자료를 분석

3) 내용적 범위

- 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을 지역이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제도적, 정책적 제반 환경으로 정의하고,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들을 대상으로 분석
 - 경기, 자본비용(이자율), 중앙정부의 정책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제외

||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Ⅱ.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1.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동향

- 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부터 정립되기 시작
 - Weber(1909)의 입지이론으로부터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작
- 초기의 산업입지이론 연구에서는 입지결정자인 인간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기업의 최적입지는 비용의 최소화 또는 시장수요의 최대화를 통하여 이윤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
- 기업이 최적입지를 추구한다는 전제를 가진 초기의 고전적인 산업입지이론의 한계와 기술의 진보와 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
 - 준최적입지를 지향하는 인간의 행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 다국적 기업 등 기업조직의 성장 등에 따른 기업 경영목표의 다양화,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운송비의 중요성 감소, 고기술제품의 등장에 따른 정보 및 고급노동력의 중요성 증대, 노동조합의 성장에 따른 노동환경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지유인정책 및 규제정책 등 기업입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입지이론이 발전
- 산업입지이론의 핵심연구는 구체적인 입지경쟁력 요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
 - 다양한 이론들에도 불구하고 입지이론들은 결과적으로 기업환경의 변수가 확대되는 정도로 이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구체적인 입지경쟁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2) 입지결정요인 연구사례

○ 국토개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2)

- 기업의 입지동기에 따른 입지요인의 차이를 비용감소, 수익확대, 생산요소 확보, 규제비용 감소 등 4대 요인으로 제시

(표 2-1) 기업의 입지동기와 적합한 입지

입지동기		적합한 입지
비용감소	인건비 절감	저임 노동력확보가 용이한 입지
	물류비절감	부품수급이 용이한 지역 원재료 생산지역 인근 주 판매지역 인근
수익확대	매출확대	시장선점, 시장침투를 위한 입지 기업이미지제고를 위한 입지
	자산확대	지가상승이득 등 자본이득확대가 가능한 입지
생산요소 확보	노동인력확보	많은 숫자 필요하므로 대도시권 입지
	지식인력확보	고학력 지식근로자 필요하므로 수도권
	자재확보	부품업체 인근
	기술확보	산학연 협조 가능지역
규제비용 감소	규제비용 최소화	공해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는 공단

주 : 국토개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2)에서 재정리

○ 국토연구원(1988)

- 국토연구원은 생산지원기능, 수송기반, 종업원 정착기반, 기타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입지요인을 제시

(표 2-2) 기업의 입지요인

	KRIHS(1988)	KRIHS(1987)
생산지원 기능	(1) 용지확보의 용이성 (2) 용지가격의 적정성 (3) 용수확보의 용이성 (4) 용수가격의 적정성 (5) 생산기능직 노동력 확보 용이성 (6) 기술관리직 노동력 확보 용이성 (7) 원재료 취득의 용이성 (8) 상하청기업의 근접성 (9) 시장의 접근성 (10) 수리공구상의 접근성 (11) 기술정보 및 교육훈련의 용이성	(1) 적절한 공장부지 규모 (2) 용지가격 수준 (3) 용수량가격 수준 (4) 자본축적 (5) 동력비용수준 (6) 인력공급 (7) 임금수준 (8) 원자재 공급처 접근도 (9) 판매시장 규모 (10) 시장 접근도 (11) 기술정보, 행정기관 접촉 용이성 (12) 생산자 서비스기관 접촉 용이성
수송기반	(1) 항만이용의 편리성 (2) 공항이용의 편리성 (3) 고속도로 I-C 접근성 (4) 지역내 도로의 편리성	(1) 수송시간, 비용 (2) 항만이용 접근도 (3) 철도이용 접근도 (4) 도로이용 접근도
종업원 정착기반	(1) 주택시장 (2) 상수도 시설 (3) 교육환경 수준	
기타	(1) 정부의 지역공업개발 관심도	(1) 노조활동의 영향

자료 : 김용웅(1992), p.29

○ Hayter(1998)

- 기업의 일반적인 입지조건으로 교통 편리성, 원재료, 시장, 노동, 외부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자본, 토지 및 건물, 환경, 정부정책 등 11가지를 제시하고, 각 조건에 따라 양적으로 표현되는 유형적 요소와 질적 가치를 지니는 무형적 요소를 제시

〈표 2-3〉 일반적 입지결정요인

입지조건	유형적 양상	무형적 양상
교통시설	운임율	신뢰도, 빈도, 손상정도, 이용가능성
원료	생산비, 교통비	안전성, 품질
시장	운송비, 서비스 비용	개인적 접촉, 소비자의 취향, 경쟁자
노동	임금, 비임금비용, 채용비용	태도, 노동조합, 기술, 형태, 이동주기, 이용가능성
외부경제 - 도시화 경제 - 국지화 경제	- -	외부효과(긍정적, 부정적), 노동 숙련도, 정보공유, 공공서비스, 명성
에너지	가격	신뢰도, 다양성
지역 인프라 - SOC - EOC	자본비용, 세금 자본비용, 세금	품질, 다양성 품질, 다양성
자본 - 고정자본 - 금융자본	건설비용, 임대비용 채무비용	이용가능성, 건물연수 이용가능성
토지/건물	가격	규모, 형태, 접근성, 서비스, 배치(layout), 확장가능성
환경 - 쾌적성 - 정책	- 비용, 세금	노동자 선호도 주민의 수용태세
정부 정책	인센티브, 규제, 세금	정책의지, 안정성, 사업 환경

자료 : Hayter, R.(1998), pp.83-98에서 정리

○ 이병기(2005)

- 기업의 투자에 관련되는 다양한 정량·정성 자료들을 반영하여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을 추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 기초투입환경, 정보화·기술환경, 인프라·사업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등 4대 분야의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정량적·정성적 측정지표를 제시

〈표 2-4〉 기업투자환경의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대분류 항목	중분류 항목	세분류 항목	
		정량자료	정성자료
기초 투입 환경	금융	시도별 예금은행기관수/전체인구	사업자금 대출절차 간편성
		어음부도율	사업자금의 역외유출 정도
		정책자금 대출액/예금액 비율	사업자금 조달에 드는 시간이 많은 정도
		대출액/CRDP 비율	정책자금 활용 용이성
	노동	사업체 1000개당 파업건수	노동력의 질
		노동자 1인당 실질CRDP 금액	노사관계의 안정성
		광공업부문 1인당 급여총액	생산필요인력 채용 용이성
		전체인구 중 대학생(전문대 포함)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토지	경제활동면적 중 산업단지면적 비중	공장용(업무용) 토지가격 취득 용이성
		경제활동면적 중 공장용 토지면적 비중	공업용(업무용) 토지가격의 적정성
		공시지가 수준	산업단지 공급량의 적정성
	정보화/기술 환경	정보화	1,000명당 인터넷 가입자수
인구 1,000명당 개인용 컴퓨터 보급대수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용도
1,000명당 정보처리·컴퓨터운영 종사자수			정보인프라 구축비용이 많은 정도
기술 개발		연구개발투자액/CRDP 비율	산학 기술협력
		전체 사업체수 중 연구소수의 비율	지역대학의 기술개발역량 보유정도
		인구 1,000명당 특허출원건수	고급기술인력의 채용 용이성
인프라/사업 환경	인프라	전체면적 대비 도로길이	항만접근성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수	공항접근성
		인구 1,000명당 교직원수	물류인프라 확충정도
		전체기업체수 중 운수업체수의 비중	편의시설의 확보정도
	사업 환경	전체기업수/대기업수 비중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인구밀도	기업간(대-중, 중-중) 협력정도
		대형소매점판매액/전체인구수	동종업종의 집적단지(클러스터) 발달정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역관련 준조세 부담이 많은 정도
지방정부 정책환경	지역개발비/경제개발비 비중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속도	
	(교육+문화+보건+사회개발비)/사회지출비 비중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	
	지방세 감면액/지방세수 총액 비율	기업창업 행정절차의 적정성	
	지방정부 청렴도지수	지방정부의 기업규제가 적은 정도	

자료 : 이병기(2005)

○ 최인혁·오동욱(2005)

- 충북지역에 대한 기업의 입지환경 인식에 대해 조사
- 주요 입지요인으로 정보통신망과 광역교통망의 근접성, 입지지역의 명성과 이미지, 저렴한 지가, 개방적·혁신적인 산업분위기, 관련 산업의 집적, 혁신기관 집적, 풍부한 지역노동시장,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풍부한 판매시장,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등 제시

〈표 2-5〉 충청북도 기업입지환경의 수준

구분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해당 없음	평균
동종 혹은 관련 산업의 집적	빈도	6	12	36	27	7	7	2.96
	%	-6.32	-12.63	-37.89	-28.42	-7.37	-7.37	
대학, 연구소 등 혁신기관 집적	빈도	5	14	40	20	5	11	2.76
	%	-5.26	-14.74	-42.11	-21.05	-5.26	-11.58	
풍부한 판매시장	빈도	0	27	41	10	5	7	2.6
	%	0	-28.42	-43.16	-10.53	-5.26	-7.37	
풍부한 지역노동시장	빈도	1	20	50	14	1	9	2.65
	%	-1.05	-21.05	-52.63	-14.74	-1.05	-9.47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의 근접성	빈도	3	10	39	29	6	8	3.39
	%	-3.16	-10.53	-41.05	-30.53	-6.32	-8.42	
양호한 정보통신망	빈도	3	7	23	40	17	5	3.48
	%	-3.16	-7.37	-24.21	-42.11	-17.89	-5.26	
개방적·혁신적인 산업분위기 (활발한 창업, 산학협력 등)	빈도	3	10	39	29	6	8	3.01
	%	-3.16	-10.53	-41.05	-30.53	-6.32	-8.42	
입지지역(기관)의 명성과 이미지	빈도	1	11	35	35	7	6	3.19
	%	-1.05	-11.58	-36.84	-36.84	-7.37	-6.32	
저렴한 지가 혹은 임대료	빈도	1	8	34	35	8	9	3.15
	%	-1.05	-8.42	-35.79	-36.84	-8.42	-9.47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세제, 금융, 법률 등)	빈도	5	17	56	9	1	7	2.61
	%	-5.26	-17.89	-58.95	-9.47	-1.05	-7.37	
광역자치단체 지원정책 (세제, 금융, 법률 등)	빈도	7	16	48	11	1	12	2.44
	%	-7.37	-16.84	-50.53	-11.58	-1.05	-12.63	
기초자치단체 지원정책 (세제, 금융, 법률 등)	빈도	7	13	49	13	1	12	2.49
	%	-7.37	-13.68	-51.58	-13.68	-1.05	-12.63	

자료 : 최인혁·오동욱(2005)

○ 변용환(2007)

- 기업의 입지경쟁력 요인이 산업의 종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양함을 제시

〈표 2-6〉 기업의 입지결정요인(변용환)

입지결정요인	내 용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와 물(반도체) · 깊은 수심의 해안(조선)
인력	기술인력, 숙련, 비숙련 기능인력의 확보 및 유지 가능성
기술	대학 및 기술연구소, 산학연 네트워크, 업계와의 연계 가능성
정보	경영정보 획득 용이성 · 행정부업무의 효율적 처리 가능성
산업연관	주변지역에서 부품 및 재료 조달의 용이성
배후도시	종업원이 정착할 수 있게끔 배후도시의 여건 조성 정도
판매시장	판매시장과의 인접정도
수송인프라	항만, 도로, 공항, 철도 등 교통수단과의 연계 용이성
전력·용수	전력 및 용수공급의 양과 질
지가	공장부지의 확보 가능성 · 공장부지 가격의 저렴성
정책	조세, 금융, 등의 지원정도 · 지자체의 유치인센티브 부여 정도

자료 : 변용환(2007)

○ 지식경제부(2007)

-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역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고, 국내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은 지방 투자의 결정요인에서 제외
- 지역 투자환경을 4대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
 - 4대 분야는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지자체의 정책 환경 등으로 구성 하고, 각 분야는 다시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측정지표는 양, 질, 비용, 접근성 측면에서 제시

〈표 2-7〉 투자환경지수 구성요소

분야	구성 항목	항목의 세부 내역
생산요소 환경	인력(노동)	적정 인력 조달, 인건비, 노사관계
	토지(입지)	적정 입지 확보, 지가(분양 및 임대료)
	금융(자본)	자금 접근성, 조달 비용
산업집적 환경	협력업체 집적	원료 및 부품조달, 설비, 장비, S/W 업체,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집적
	시장수요	대기업 등 수요업체, 일반 소비자, 고객
인프라 환경	물적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체증) 전화, 인터넷 유틸리티 확보 용이성
	지식 인프라	대학, 공공연구소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복지 등 시설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
지자체 정책환경	규제 개선 정책	조세체계, 경쟁 정책,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체계
	투자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 기업유치 활동

자료 : 지식경제부(2007)

3) 입지요인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

(1) 기업규모

-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수행능력, 외부환경에의 적응능력, 시공적 활동 영역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입지결정요인에 차이가 나타남
 - 일반적으로 소기업은 입지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이 적고 불확실한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기존의 국지적 경험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고 단일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취향이나 동기가 입지결정에 많이 반영되는 경향
 - 대기업은 성장과정에서 입지의사결정의 경험이 다소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입지문제에 들이는 비용이나 노력이 크고 필요에 따라 경영단위를 분리하거나 입지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감당할 만큼 환경을 내재화 시키는 힘이 커서 입지선정의 공간적 범위가 넓음. 또한 대기업에서는 조직의 목표나 전략이 기업주의 개인적인 것보다 더욱 중시되는 경향
-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입지요인의 중요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대기업의 경우 필요로 하는 특정 부지의 구비 요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짐. 대기업은 투자규모가 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와 용수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에 맞는 후보지가 많지 않을 수 있음
 - 대기업은 정보나 원자재, 부품 혹은 제품판매 경험 등 불확실한 환경의 일부를 내재화함으로써 기존의 집적지역이 끄는 유인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대기업은 기업의 내부 기능들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적 능력이 있으므로 생산기능을 분리할 때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입지요인(노동력, 운송비 등)의 차이에 민감할 수 있음
 - 대기업의 입지결정은 비용적인 측면의 우위보다는 기업의 목표나 전략(예.; 특정시장의 개척) 혹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기 쉬움. 대부분의 입지정책은 대기업을 겨냥하기 때문임
 - 대기업은 많은 수의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노동력의 양적·질적인 확보, 노동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노동자의 복지·생활문제 등 노동력과 관계된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따라서 풍부한 노동력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수급이 쉬운 지역이 유인력이 크게 작용하는 경향

〈표 2-8〉 기업규모별 입지요인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기업주의 고향 혹은 오랜 거주지역	1	12.1	5	7.3	4	8.3
기업주의 기술 습득지 혹은 사업지역	2	11.2	1	12.5	2	9.9
자금조달 용이		1.5		1.0	9	5.0
정부지원		1.0		0.4		1.0
정부의 유치정책		1.2		0.8	-	-
공 해		1.9		1.9		1.1
동일업종 집중	7	6.5		4.3	3	9.5
관련업종 집중	7	6.5	7	6.3	8	6.1
원료공급처와의 접촉 편리	5	6.9	8	5.4		4.6
원료운송 편리	5	6.9	9	5.1	7	6.0
제품판매처와의 접촉 편리	4	7.2	4	8.5	5	7.2
제품운송 편리	9	6.4		4.1		4.6
전력사정 양호		3.5		3.1		2.6
용수량과 질 양호		0.9		0.7		0.7
노동력의 확보 용이		4.3	2	10.7	1	15.3
교통·통신 편리		5.8	3	10.0		1.8
주민의 태도		0.2		0.9		0.4
종업원을 위한 제시설 집중		0.4		0.7		0.4
연구 및 정보기관 집중		0.5	-	-	-	-
계열업체의 정책		0.1		2.9		0.7
전 통		1.0		4.1	6	6.7
개인적 사정	2	11.2	6	6.8		4.6
기 타		0.8		2.5		3.5
계		100.0		100.0		

자료 : 임영태(1987)

(2) 기술수준

-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그 생산에 채택된 기술수준은 공장입지의 물리적 특성(예, 건물의 내부구조 등)이나 노동력의 질적 수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정보의 중요성, 기술개발의 중요성 등을 통해서도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침
- PLC(The Product Life Cycle Model) 모델
 - 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중요시되는 입지결정요인이 변화
 - 제품의 개발단계에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과학기술인력과 정보 등 혁신잠재력과 초기의 고가품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잠재력이 중요
 - 제품개발 이후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될수록 규모 확장에 따른 넓은 부지, 값싼 미숙련 노동력 등 가격인하를 위한 입지요인이 중요
 - 이에 따라 기술이 성숙되어 기술경쟁력의 우위가 소멸되고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제품의 성숙단계에는 생산비 절감요인이 중요

〈표 2-9〉 제품생애주기에 따른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발전단계	핵심 입지결정요인	입지양상
R&D단계	과학기술자, 정보접근성	대도시
초기성장단계	숙련노동력, 외부경제, 시장 접근성, 경영관리	대도시지역
성숙단계	비숙련노동력, SOC, EOC	주변지역
쇠퇴단계	비숙련노동력, SOC, EOC	주변지역

자료 : Hayte(1998), pp.101-102.

- 벤처기업의 입지 적합지역(박용규, 1997)
 -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고급인력, 기술, 정보, 연구기반 등의 입지요인이 더욱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입지 선호도 역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음
 - 벤처기업의 입지적 특성이 신규 창업기업의 입지특성과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때, 이들 양자의 입지요인을 동시에 충족시켜 중수 있는 곳이 벤처기업의 입지 적지가 될 것
 - 연구개발기능이 있는 지역
 -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
 - 교통접근성이 높은 지역

-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지역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
- 신생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곳
- 첨단산업 발전 및 기술습득에 유리한 곳

(3) 업종

- 업종에 따른 제품의 원료와 생산공정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입지요인에 차이가 발생.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기존의 상품이 쇠퇴함에 따라 업종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 내에서도 입지요인의 차이가 발생
- 국토개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2)
 - 산업유형에 따라 중요시하는 핵심 입지요인을 제시

〈표 2-10〉 산업별 핵심적인 입지고려요소

산업구분		핵심적인 입지 고려 요소	
정차산업	철강	항만, 전력, 용수	자연환경 수송인프라 전력, 용수
	정유, 석유화학	항만, 전력, 용수	
	조선	해안, 전력, 기능인력	
	시멘트	원재료 매립지	
조립가공산업	가정용전자	인력, 산업연관, 수송	기능인력 산업연관 수송
	전기	인력, 산업연관, 수송	
	자동차	인력, 산업연관, 수송	
	일반기계	인력, 산업연관, 수송	
부품산업	전자부품	인력, 판매처, 수송	인력 판매처 수송
	자동차부품	인력, 판매처, 수송	
첨단지식기술 산업	반도체	깨끗한 환경, 기술인력	고학력기술인력 기술 정보
	정보·통신·컴퓨터	기술인력, 기술, 정보	
	신소재, 정밀화학, 의학	기술인력, 기술, 정보	
	항공	기술인력, 넓은 부지	
노동집약경공업	섬유	능인력, 배후도시, 수송	기능인력 배후도시 수송
	신발	기능인력, 배후도시, 수송	
내수성소비재 산업	음식료품	판매시장, 수송, 전력, 용수	판매시장 수송 전력, 용수
	제지, 가구	판매시장, 수송, 전력, 용수	
	일반의약품	판매시장, 수송, 전력, 용수	

국토개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2)

○ 류승한 · 김광익(2005)

- 산업의 유형을 기초자원형, 금속가공형, 지방자원형, 잡화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한 산업을 분류하고 산업별 주요생산제품에 따른 입지요인을 제시

〈표 2-11〉 산업별 입지요인 특성

유형	산업 분류	조사대상 제품	생산기반			교통기반			노동력		기술환경			통신기반	도시환경	정보 집적	원자재	시장접근성	환경용량	
			용지	용수	전력	항만	간선도로	철도	공항	기능	고급	연관기업적	유동자재							연구개발
기초 자원 형	철강철강	고로	○	○	○	○	○			○	○				○				○	
		제강압연		○	○					○	○							○	○	
	비철금속	동제련	○	○	○	○	○			○	○							○	○	
		납·아연제련	○	○	○	○	○			○	○								○	○
		알루미늄제련	○	○	○	○														○
		알루미늄압연가공	○	○			○			○										○
		전선·케이블	○			○	○			○	○									○
	화학	석유화학	○	○	○	○	○			○		○	○							○
		화학섬유			○	○	○			○		○								○
		유지 등	○		○	○	○			○	○									○
		의약품	○	○		○			○	○	○	○				○			○	
	석유·석탄	석유정제	○	○	○	○	○	○	○					○						
금속 가공 형	전기기계	전자응용장치	○			○	○	○	○	○	○	○	○	○	○	○			○	
		통신기계	○			○	○				○	○	○	○			○		○	
		전자부품	○	○	○		○	○	○	○	○	○	○				○		○	
		전기계측기					○				○	○	○	○			○		○	
			가정용전자기기	○			○	○			○									
			정밀기계					○	○	○	○	○				○				
	수송기계	자동차	○			○	○			○	○			○						
		조선	○			○				○	○									
		항공기 및 부품	○			○	○		○	○	○									
	금속제품	난방기기					○			○										○
철골·교량		○			○														○	
일반기계	보일러 원동기	○			○				○	○	○									
	사무기계				○	○	○	○	○	○	○	○			○					
	건설·광산기계	○		○	○	○	○	○	○	○	○									
		금속공작기계	○			○	○	○	○	○	○		○							
지방 자원 형	요업·토석	시멘트	○			○				○									○	
	제지	펄프지	○	○	○	○	○		○									○	○	
	식품	맥주		○			○												○	
	목재	합판	○			○			○											
잡화 형	가구	가구	○			○			○										○	
	섬유	면방직		○	○				○		○								○	
	의복	여성·아동복					○				○	○		○	○				○	
	출판인쇄	인쇄							○		○	○		○	○				○	
	가족제품	가족	○	○					○										○	
		고무제품							○										○	
		기타							○										○	
		플라스틱제품							○										○	

자료 : 류승한 · 김광익(2005)

(4) 기업조직

- 기업의 조직은 기술 하부구조, 경영 하부구조, 제도적 하부구조 등 3개 유형의 하부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기업의 입지선정에도 영향을 미침
 - 기술 하부구조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담당
 - 경영 하부구조는 기업의 운영을 통합하고 과업을 할당
 - 제도적 하부구조는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를 담당
- 기업의 조직 단위별 수행기능의 차이에 따라 중요시되는 입지요인에 차이가 발생
 - 본사의 경우 기업의 경영관리기능을 담당하므로 이를 담당할 고급인력과 경영정보의 취득, 입지지역의 명성 등이 중요시됨
 - 연구개발기능의 경우 과학기술인력과 정보의 취득, 어메니티 등이 중요시됨.
 -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의 경우 부지확보, 노동력 취득, 시장 접근성 등이 중요시됨

〈표 2-12〉 기업조직 단위에 따른 입지결정요인

조직의 기능	입지결정요인	입지양상
연구개발, 본사기능	과학기술자, 경영관리인력, 정보, 장소의 명성, 쾌적성	대도시
생산기능	노동력, 시장 접근성,	주변지역

자료 : Hayter(1998), pp.101-102.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의 구성

1)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입지결정 요인은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 정주환경, 정부의 정책 등으로 대별되며, 기업규모, 기술수준, 업종 등에 따라 그 중요도가 상이
-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는 4대 분야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됨
 - 4대 분야는 기업의 일반적인 입지결정요인인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정책 환경 등으로 구성
 - 생산요소 환경: 인력, 토지, 금융 등 3개 항목
 - 산업집적 환경: 협력업체 집적, 시장수요 등 2개 항목
 - 인프라 환경: 물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생활 인프라 등 3개 항목
 - 정책 환경: 규제개선 정책, 투자인센티브 등 2개 항목

〈표 2-13〉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분야	구성 항목	세부 내용
생산요소 환경	인력	적정 인력 조달, 인건비, 노사관계
	토지	적정 입지 확보, 지가(분양 및 임대료)
	금융	자금 접근성, 조달 비용
산업집적 환경	협력업체 집적	원료 및 부품조달, 설비, 장비, S/W 업체,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집적
	시장수요	대기업 등 수요업체, 일반 소비자, 고객
인프라 환경	물적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체증) 전화, 인터넷 유틸리티 확보 용이성
	지식 인프라	대학, 공공연구소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복지 등 시설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
정책 환경	규제개선 정책	조세체계, 경쟁정책, 규제체계의 명확성
	투자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 기업유치 활동

2)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1) 분석지표의 구성방법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중 지역차원에서 의미 있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며, 지역차원에서 조절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요인들을 제외
 - 이들 요인들은 지역간 투자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투자환경의 구성요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함
 - 자금조달비용, 환율 및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지표, 규제개선정책 등 국가 전체의 제도적·관행적·정치적 요인,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등 제외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을 위한 분석지표는 3대 분야 6개 항목의 19개 지표로 구성
 - 정책환경 분야를 제외한 3대 분야를 분석
 - 생산요소 환경 분야 : 인력, 토지 등 2개 항목의 7개 지표
 - 산업집적 환경 분야 : 협력업체 집적 항목의 2개 지표
 - 인프라 환경 분야 : 물적인프라, 지식인프라, 생활인프라 등 3개 항목의 10개 지표
 - 정책환경 분야는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소개
 - 시·도의 투자유치지원제도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도의 행정지원제도는 큰 차이가 없으며,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시·도별로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북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소개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별로 시·도 단위에서의 지역간 비교분석과 전북지역 내 권역간 비교분석을 실시
 -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내 전북의 위상과 함께 지방의 8개 도 내 전북의 위상을 분석
 - 전북지역 내 권역별 분석은 자료 취득이 가능한 11개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분석

(2) 투자유치 여건 구성분야별 분석지표

가. 생산요소분야

- 생산요소분야의 투자유치여건 구성요소는 인력, 토지 등 2개 항목으로 구성
 - 인력은 적정인력 조달,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 인건비, 노사관계 등 5개 분석지표로 구성
 - 토지는 토지의 확보 용이성과 토지의 가격 등 2개 분석지표로 구성

나. 산업집적분야

- 산업집적분야의 투자유치여건 구성요소는 협력업체의 집적 항목으로 구성
 - 협력업체의 집적은 원료 및 부품조달의 용이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 등 2개 분석지표로 구성

다. 인프라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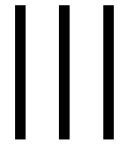
- 인프라분야의 투자유치여건 구성요소는 물적인프라, 지식인프라, 생활인프라 등 3개 항목으로 구성
 - 물적인프라는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항만 접근성, 공항 접근성 등 4개 분석지표로 구성
 - 지식인프라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분석지표로 구성
 - 생활인프라는 교육여건, 의료여건, 주택구입환경, 문화여건, 생활비용여건 등 5개 분석지표로 구성

(4) 정책환경

- 정책환경 분야는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로 구성
 - 전국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정착지원보조금 등 제도 소개

〈표 2-14〉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구성분야별 분석지표와 자료 출처

분야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 지표	자료 출처
생산요소	인력	적정 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배율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전문인력 확보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생산인력 확보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토지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전국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합원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종사상지원별 취업자, 임금근로자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토지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토지 가격	산업단지 분양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총람	
산업집적	협력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비즈니스서비스 집적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인프라	물적 인프라	도로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철도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철도 소요시간	코레일
		항만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항·부산항 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공항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공항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지식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역량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201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
			특수목적고 명단 및 재학생 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별 병상 세부현황(2011년)
			인구 1천명 당 의료인력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종합병원 수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국민은행, KB부동산, 아파트면적당 시세
		문화여건	인구1만명당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생활비용여건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통계청, 온라인간행물, 2010 지역소득통계,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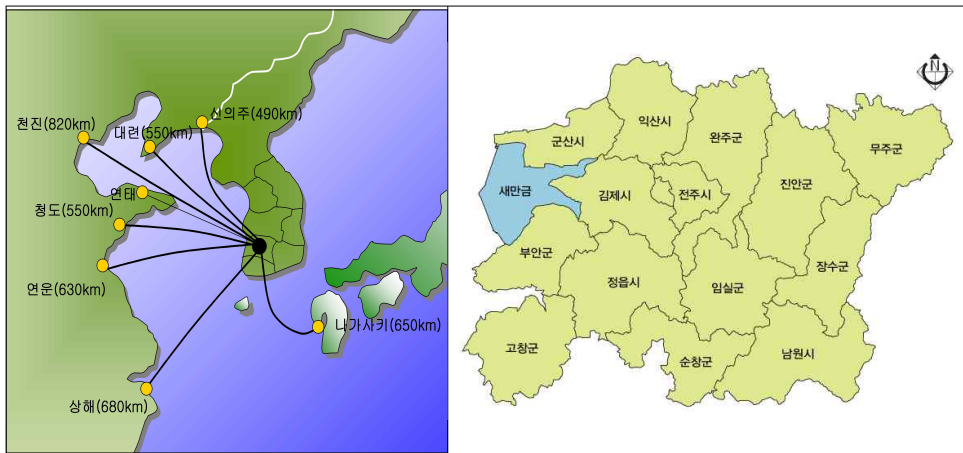


전라북도 일반 현황

Ⅲ. 전라북도 일반 현황

1. 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

- 전북의 총면적은 8,067km²로 국토 전체면적의 8.0%를 차지
- 전북은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중국의 서해연안 경제거점인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 주요 도시가 400해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산~무안~대불을 잇는 서해안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
 -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육성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새만금사업의 추진에 유리
- 행정구역상 6시 8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주시는 전북도청 소재지로 전북의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140만명 규모의 연담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함께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전북의 동부권에 속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통과하는 산간농촌지역으로 과수, 원예 등 농업이 발달



〈그림 3-1〉 전라북도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2. 인구

- 전북의 인구는 2011년 현재 1,874,031명으로 전국(50,734,284명)의 3.7% 점유
- 서부권에 위치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동부권의 인구는 희박
 - 전주시는 전북의 수위도시로 65만여명이 거주
 - 익산시, 군산시는 전북의 주요 도시로 30만여명이 거주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은 10만여명이 거주
 - 고창군, 부안군은 6만여명의 인구가 거주
 - 기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3만여명의 인구규모를 가짐
- 전북의 인구는 2010년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
 - 2009년까지 계속 감소추세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지역경제 성장과 함께 2010년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인구가 2010년 14,445명, 2011년 5,068명 증가

〈표 3-1〉 행정구역별 인구 및 면적(2011)

(단위 : 명, km², %)

구분	인구		면적	
	인구	비중	면적	비중
전북	1,874,031	100.0	8,066.76	100.0
전주시	645,894	34.5	206.01	2.6
군산시	275,659	14.7	394.94	4.9
익산시	309,804	16.5	506.62	6.3
정읍시	120,466	6.4	692.66	8.6
남원시	87,455	4.7	752.69	9.3
김제시	93,111	5.0	544.90	6.8
완주군	84,660	4.5	820.56	10.2
진안군	28,473	1.5	789.16	9.8
무주군	25,863	1.4	631.87	7.8
장수군	23,215	1.2	533.51	6.6
임실군	30,789	1.6	597.21	7.4
순창군	29,497	1.6	495.86	6.1
고창군	60,065	3.2	607.74	7.5
부안군	59,080	3.2	493.03	6.1

주: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2011

3. 지역경제

1) 지역내 총생산

- 전북지역의 지역총생산액은 2011년 38조 868억원(경상가격 기준)으로 전국의 3.1%를 차지
 - 1인당 GRDP는 21,139천원으로 전국 시·도 1인당 평균 GRDP의 84.7% 수준
- 전북경제는 최근 빠른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 전북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최근 빠른 성장추이를 보이면서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 비중이 2005년 2.9%에서 2011년 3.1%로 증가함
 -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함께 전북경제의 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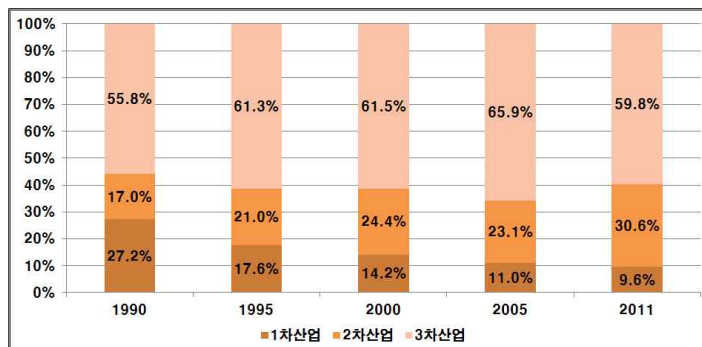
〈표 3-2〉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

구분		1995	2000	2005	2011
지역내 총생산 (십억원)	전국	420,686	603,733	869,305	12,429,038
	전북 (전국 비중)	14,223 (3.4)	19,299 (3.2)	25,221 (2.9)	38,086.8 (3.1)
1인당 GRDP (천원)	전국	9,149.0	12,583.9	17,644.5	24,968.2
	전북 (전국 비중)	7,077.2 (77.4)	9,618.0 (76.4)	13,305.8 (75.4)	21,139.0 (84.7)

주 : 당해년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 전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짐
 - 전북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 산업 9.6%, 2차 산업 30.6%, 3차 산업 59.8%임
 - 2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



〈그림 3-2〉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2) 제조업

- 전북의 제조업은 2011년말 현재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1,720개가 입지해 있으며, 이들 업체의 종사자수는 83,142명, 생산액은 43조 6,522억원임
 - 전국대비 비중은 사업체수 2.7%, 종사자수 3.1%, 생산액 2.9% 수준
- 전북의 주요 업종은 자동차, 화학제품, 식품, 기계·장비, 비금속 등임
 - 5대 업종은 사업체수의 55.3%, 종사자수의 59.8%, 부가가치의 65.0%를 차지

〈표 3-3〉 전북 제조업 현황(2011)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분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지역내 비중			전국비중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제조업	1,720	83,142	43,652,223	100.0	100.0	100.0	2.7	3.1	2.9
식료품	260	12,535	5,754,079	15.1	15.1	13.2	6.3	7.7	9.3
음료	23	1,026	596,774	1.3	1.2	1.4	9.1	7.8	6.9
섬유제품;의복제외	49	2,359	455,026	2.8	2.8	1.0	1.5	2.5	2.0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127	2,959	320,230	7.4	3.6	0.7	4.5	3.9	1.7
가죽,가방및신발	2	-	-	0.1	-	-	0.3	-	-
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	46	1,036	488,409	2.7	1.2	1.1	6.0	5.9	10.4
펄프,종이및종이제품	48	2,452	1,429,717	2.8	2.9	3.3	3.2	4.9	6.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9	212	27,183	0.5	0.3	0.1	0.7	0.7	0.6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	4	69	39,767	0.2	0.1	0.1	3.0	0.6	0.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	103	7,752	7,829,630	6.0	9.3	17.9	4.2	6.8	5.0
의료용물질및의약품	13	794	731,734	0.8	1.0	1.7	3.0	2.7	5.3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08	3,542	950,876	6.3	4.3	2.2	2.0	1.9	1.7
비금속광물제품	157	4,748	1,551,950	9.1	5.7	3.6	6.7	6.2	5.0
1차금속	59	4,263	4,962,276	3.4	5.1	11.4	2.2	3.2	2.9
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192	6,055	976,747	11.2	7.3	2.2	2.2	2.4	1.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29	3,511	1,130,769	1.7	4.2	2.6	0.7	0.9	0.4
의료,정밀,광학기및시계	14	296	39,908	0.8	0.4	0.1	0.7	0.4	0.2
전기장비	55	2,259	947,481	3.2	2.7	2.2	1.4	1.4	1.5
기타기계및장비	138	6,083	2,312,214	8.0	7.3	5.3	1.6	2.1	2.3
자동차및트레일러	205	17,256	11,741,154	11.9	20.8	26.9	5.6	6.0	6.9
기타운송장비	32	2,124	910,278	1.9	2.6	2.1	2.1	1.3	1.1
가구	22	1,094	323,634	1.3	1.3	0.7	1.8	3.2	3.1
기타제품	25	656	127,915	1.5	0.8	0.3	2.6	2.8	3.0

주 :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1

〈표 3-4〉 전북의 10대 제조업 현황(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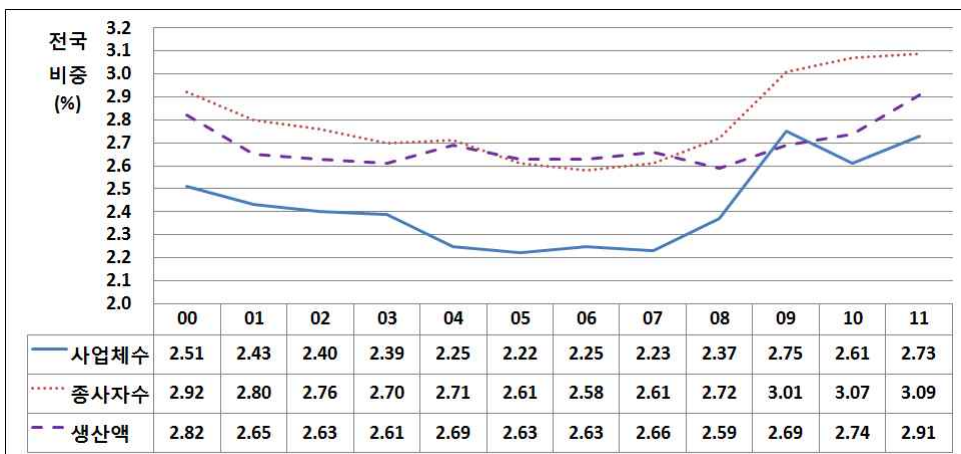
(단위 : %)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식료품	15.1	자동차및트레일러	20.8	자동차및트레일러	22.1
자동차및트레일러	11.9	식료품	15.1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9.1
금속가공제품	11.2	화학물질및화학제품	9.3	식료품	11.6
비금속광물제품	9.1	기타기계및장비	7.3	1차금속	8.6
기타기계및장비	8.0	금속가공제품	7.3	기타기계및장비	7.3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7.4	비금속광물제품	5.7	비금속광물제품	4.9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6.3	1차금속	5.1	전자부품및전자영상음향및통신장비	4.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6.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4.3	펄프,종이및종이제품	3.3
1차금속	3.4	전자부품및전자영상음향및통신장비	4.2	금속가공제품	3.1
전기장비	3.2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3.6	기타운송장비	2.7
10대 업종 계	81.6	10대 업종 계	82.7	10대 업종 계	86.7

주 :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1

- 전북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성장추이를 보이면서 업종 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2006년 이후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성장하면서 전국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성장률이 높은 업종은 기타운송장비, 금속, 1차금속, 자동차, 기계·장비 등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1

〈그림 3-3〉 전북 제조업의 전국비중 변화 추이(2000~2011)

3) 기업유치

- 전북의 기업유치는 2005년부터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북의 기업유치 실적은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매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 2000년대 중반이후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관련 협력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기업유치가 크게 증가함
- 2005년 이후의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대규모 투자 기업은 현대중공업, LS엠트론, 두산인프라코어, OCI, 넥솔론, 일진머티리얼스, 전방, 효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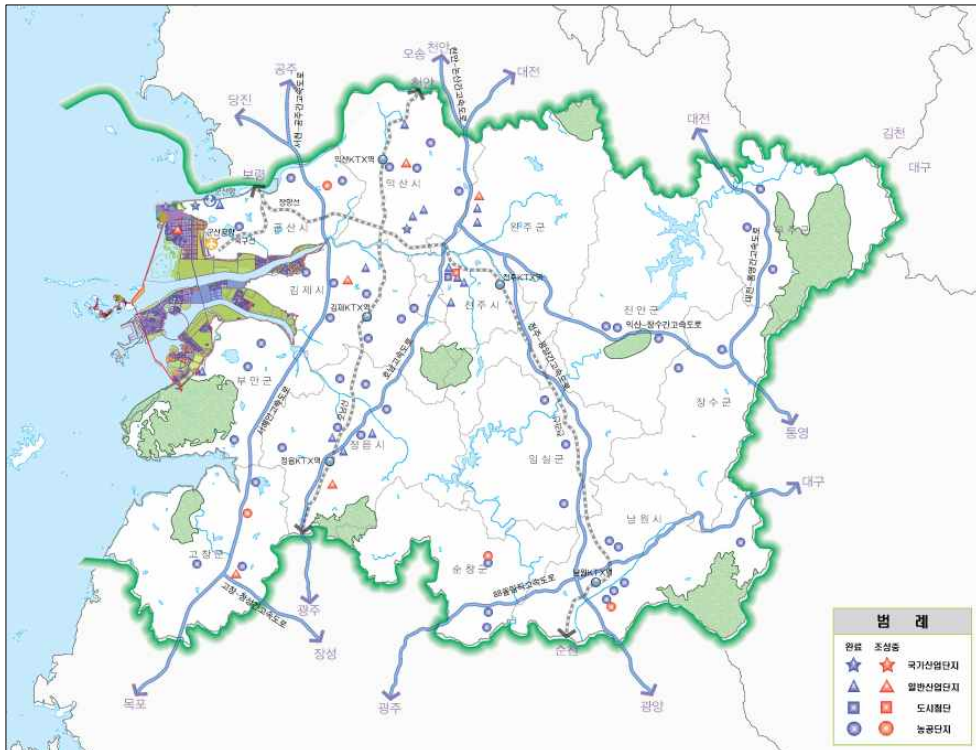
〈표 3-5〉 2000년 이후 전북 기업유치 현황

구분	국내기업			외국기업			
	업체수 (개)	투자예정액 (억원)	고용예정인원 (명)	업체수 (개)	투자예정액 (천\$)	투자유형	
						신규	증설
계	851	284,939	81,208	54	682,784	13	9
2000	3	0	0				
2001	14	0	0				
2002	26	0	0				
2003	14	718	730				
2004	22	824	797				
2005	71	16,096	7,900	3	44,010	1	2
2006	101	9,504	8,988	5	38,053	-	5
2007	178	38,790	13,171	10	332,244	8	2
2008	101	22,010	13,240	3	3,400	3	
2009	102	16,817	9,858	1	2,000	1	
2010	126	112,661	12,346	19	126,141		
2011	122	108,584	27,303	13	136,936		

주 : 시·군 공장설립 승인과 도의 MOU체결 시점 기준으로 예상 투자 및 고용계획임.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고객센터 > 전북통계월보 > 통계로 본 전북)

4) 산업단지

- 전북의 산업단지는 77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총 51km²임(2012년 9월말 현재)
 - 국가산단 4개, 일반산단 21개, 도시첨단산단 1개, 농공단지 51개
 - 국가산단은 군산국가산단, 군산2국가산단, 익산1국가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 조성 완료 산단이 64개, 조성 중인 산단이 11개, 미개발 산단이 2개
 - 미개발 산단은 군산시 임피농공단지, 남원시 노암제3농공단지
 -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국가산단 15.5km², 일반산단 28.6km², 도시첨단산단 0.04km², 농공단지 7.0km²
 -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은 3.6%로 전국의 2.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 국가산단은 현재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이 완료
 - 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이 5.8%, 농공단지의 미분양률이 5.7%



〈그림 3-4〉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

-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 가능한 산업시설용지는 15.3km²로 풍부
- 조성 중이거나 미개발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분양대상 산업시설면적은 51.0km²로 이 중 35.7km²가 분양됨
 -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5.3km²로, 국가산단 1.4km², 일반산단 12.9km², 농공단지 1.0km²
-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에 집중
 - 군산시 2.1km², 익산시 2.1km², 김제시 1.6km², 완주군 0.8km², 고창군 0.7km² 등으로 5개 시·군이 전북의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91.5%를 차지

〈표 3-6〉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분양가능면적 현황(2012년 9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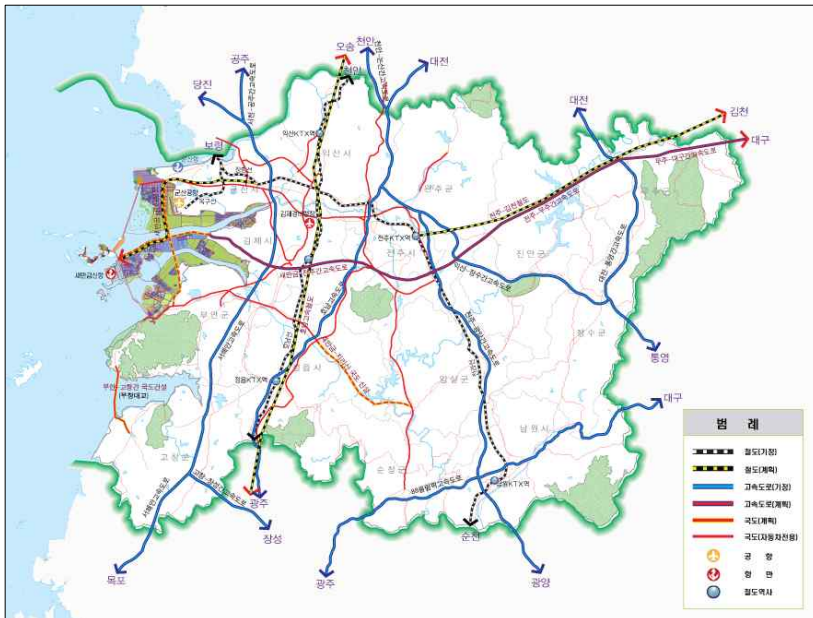
(단위: 개소, 천㎡, %)

시군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면적(A)	개발면적	분양면적(B)	미분양면적	공급가능면적(A-B)
전북	계	77	126,042	51,038	37,061	35,734	1,328	15,304
	국가	4	67,819	15,469	14,070	14,070	0	1,399
	일반	21	49,295	28,582	16,637	15,667	970	12,915
	도시첨단	1	110	39	39	39	0	0
	농공	51	8,818	6,949	6,316	5,958	358	991
전주시			3,136	2,124	1,996	1,936	60	188
군산시			89,310	25,844	17,040	17,040	0	8,804
익산시			11,003	7,510	6,074	5,441	634	2,069
정읍시			4,211	2,871	2,446	2,430	16	441
남원시			1,061	773	561	548	13	225
김제시			4,522	3,103	1,490	1,490	0	1,613
완주군			8,145	5,455	4,922	4,688	234	767
진안군			464	342	342	209	133	133
무주군			339	279	279	226	53	53
장수군			486	358	254	245	9	113
임실군			332	275	275	275	0	0
순창군			492	368	368	282	85	86
고창군			1,606	1,151	428	403	26	748
부안군			937	587	587	523	63	64

자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 재가공.

4. 교통 인프라

- 전북의 교통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양호
 - 고속도로 및 국도 등 도로교통시설과 KTX철도 등 철도교통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 및 남부권 등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
 - 무역항인 군산항이 소재하고 있으며, 새만금신항만이 건설 중
- 육상교통의 경우 지역 내에 7개 노선의 고속도로, 3개 노선의 철도와 KTX 철도가 통과하여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
 - 고속도로가 수도권과 전남권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노선과 함께 영남권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노선도 개설되어 광역 접근성 양호
 - 철도는 호남선 및 전라선 KTX가 통과하고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
- 새만금사업의 진전과 함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전북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항만과 공항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
 - 군산항의 시설확장과 함께 새만금신항만이 신규 건설될 계획
 - 새만금사업의 진전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이 검토 될 예정



〈그림 3-5〉 전북지역 교통체계

IV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Ⅳ.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1. 분야별 투자유치 여건

1) 총괄

(1) 생산요소 여건

- 전북의 생산요소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
 - 노동측면에서 인력조달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노사관계도 안정적인
 -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로부터 산업용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분양가도 낮은 수준임
- 노동환경은 고급인력과 생산인력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등 양호
 - 전북의 인구규모가 작아 인력규모는 작으나 지역산업의 규모에 비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어 구인에 유리함
 - 구직배율은 1.75%로 전국평균(1.5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구인에 유리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수는 8만6천여명으로 전국의 4.2%를 점유하여 인구비중(3.7%)에 비해 많은 규모로 고급인력 구인에 유리
 - 생산인력의 경우에도 실업계고 및 전문대학 재학생수가 3만3천여명으로 전국의 3.9%를 점유하여 인구비중(3.7%)에 비해 큰 규모로 생산인력 구인에 유리
 -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전국 평균의 9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
 - 노조조직률은 4.4%로 전국의 7.7%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원활
- 토지환경은 산업단지로부터 저렴한 산업용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어 양호
 - 공급가능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15.3km²로 풍부하며, 분양가는 전국 평균의 50~80% 수준으로 저렴
 - 전북의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
 - 국가산단: 113,467원/m²로 전국 평균 142,097원/m²의 80%, 지방 8개도 평균 138,842원/m²의 82% 수준
 - 일반산단: 131,710원/m²로 전국 평균 260,149원/m²의 50.6%, 지방 8개도 평균 175,573원/m²의 75% 수준
 - 농공단지: 41,894원/m²로 전국 평균 76,260원/m²의 54.9% 수준에 불과

〈표 4-1〉 전라북도의 생산요소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규모* (2011)	1,895,882	51,716,745	3.7	6.8	명, %
		GDP* (2011)	38,086.8	1,242,903.8	3.1	8.8	십억원, %
인력 (노동)	적정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2011)	849	25,099	3.4	11.3	천명, %
		구직배율** (2011)	1.75	1.52	115.3	137.8	%
	전문인력 확보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2011)	86,379	2,044,908	4.2	12.8	명, %
	생산인력 확보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2011)	32,768	843,720	3.9	11.4	명, %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2011)	2,307,304	2,487,340	92.8	98.2	원, %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2010)	4.4	7.7	57.2	89.1	%
토지 (임지)	토지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2012)	15,304	172,055	8.9	11.5	천㎡, %
	토지 가격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 (2011)	113,467	142,097	79.9	81.7	원/㎡, %
		일반산단 평균 분양가** (2011)	131,710	260,149	50.6	75.0	원/㎡,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 (2011)	41,894	76,260	54.9	54.9	원/㎡, %

주 1) 인구규모는 총인구 기준(주민등록인구+외국인인구)임
 2)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전북의 비중

(2) 산업집적 여건

- 전북의 산업 집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전북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빠르게 집적이 형성되고 있음
- 전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2011년 현재 1,720개로 전국의 2.7%, 종사자수는 83,142명으로 전국의 3.1%를 점유하여 인구비중(3.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전북의 제조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2000년대 중반이후 전북 제조업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전국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전북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6년~2011년 기간동안 사업체수 5.4%, 종사자수 5.3%, 생산액 14.1%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사업체수는 4.0%p., 종사자수는 3.7%p., 생산액은 2.3%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전북 제조업의 전국비중은 사업체수는 2005년 2.2%에서 2011년 2.7%, 종사자 수는 2005년 2.6%에서 2011년 3.1%로 증가
- 전북 제조업은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집적이 형성되고 있음
 -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기계·장비, 식료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전북의 기업유치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치업체수가 2005년~2011년 기간동안 총 801개사에 이룸
- 전북의 비즈니스서비스업 발달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미흡하나, 지방의 8개 도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발달
 - 비즈니스서비스업은 대도시 지향적 산업으로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발달이 미흡

〈표 4-2〉 전라북도의 산업집적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협력 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2011)	1,720	63,047	2.7	8.1	개, %
		제조업체 종사자수* (2009)	83,142	2,694,782	3.1	7.4	명, %
	비즈니스 서비스집적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 (2011)	9,280	317,171	2.9	12.4	개, %
		비즈니스서비스 종사자수* (2011)	72,218	3,270,521	2.2	12.7	명, %

주 :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3) 인프라 여건

- 전북의 교통인프라와 생활인프라는 양호하며, 지식인프라는 보통 수준
 - 전북의 교통인프라는 도로, 철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수도권 및 전남, 영남 등과의 접근성 및 전북지역 내 도시간 접근성이 양호하나, 항만 및 공항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함

- 생활인프라는 교육, 의료, 주택, 문화, 생활비 등 모든 측면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
- 지식인프라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8개 도 가운데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전북의 교통인프라는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 인프라는 양호하나, 항만, 공항 등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
- 도로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전주·순천간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전남권을 잇는 남북방향의 고속도로와 88올림픽고속도로, 익산·장수간고속도로 등 영남지방을 잇는 동서방향의 고속도로를 통해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
 - 지역 내에서는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등 지역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전북내 지역간 연결성이 높음
- 철도의 경우 호남선 KTX가 익산역, 정읍역, 김제역에 정차하며, 전라선의 경우 전주시, 남원시에 정차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
- 전북은 서울과의 교통소요시간이 전주시를 기준으로 도로의 경우 2시간 40분 내외, 철도의 경우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2시간 15분 내외로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
 - 2014년에 KTX 신설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로 단축될 것임
- 항만과 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하나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새만금신항만이 건설되고, 군산공항 확장이 검토될 예정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항만의 경우 지역거점 무역항으로 35선석의 접안능력을 갖춘 군산항이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새만금신항만이 건설 중으로 해운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
 - 공항의 경우 군산항이 소재하고 있으나 제주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어서 국제적 항공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함

-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교육여건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국에 비해 작고,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도 소재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함
 - 주택 구입비가 전국 평균의 65.9% 수준으로 낮으며 생활비용도 78.1% 수준으로 낮아 전북의 주거 및 소비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문화시설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많으며,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문화향유율이 높은 지역임
 - 의료여건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인력, 시설이 양호한 수준임
- 지식인프라는 전국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
 - 전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16개 시·도 가운데 9위, 지방의 8개 도 가운데 4위 수준으로 중간 수준
 - 전북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반과 함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정책환경 여건

- 전북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의 측면에서 전북의 정책환경 여건은 양호한 수준임
- 전북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넓고, 보조금 지원한도가 큰 규모임
 - 전북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은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자정착지원보조금 등이 있음

〈표 4-3〉 전라북도의 인프라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 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물적 인프라	도로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자동차 소요시간	216.3km / 159분				
	철도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철도 소요시간	전주역 : 136분(2014년 60분으로 단축)				
	항만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항·부산항 간 자동차 소요시간	인천항 : 236.8km / 165분				
			부산항 : 254.6km / 200분				
			평균 : 245.7km / 182.5분				
공항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공항간 자동차 소요시간	인천공항 : 255.0km / 176분					
지식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역량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 (2010)	7.598	8.981	84.6	101.4	점, %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2011)	11.1	12.6	87.9	95.7	명, %
		특수목적고 재학생 수* (2011)	3,357	87,898	3.8	26.0	명, %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2011)	157.6	105.5	149.3	121.8	개, %
		인구 1천명 당 의료인력** (2011)	15.1	13.5	112.5	118.2	명, %
		종합병원 수* (2011)	14	317	4.4	11.7	개, %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당 매매가** (2012)	113.0	171.5	65.9	95.4	만원/㎡, %
		아파트 ㎡당 전세가** (2012)	73.8	107.6	68.6	97.1	만원/㎡, %
	문화여건	인구1만명당 문화시설** (2011)	0.6	0.4	150.2	87.4	개, %
	생활 비용여건	1인당 가계최중 소비지출액** (2010)	9,096,746	11,650,677	78.1	95.0	원, %

주 :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전북의 비중

2) 생산요소 여건

(1) 인력(노동)

가) 적정 인력 조달

(가) 경제활동인구

- 개념 :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
- 전북의 여건 : 전국대비 3.4%,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1.3%
 - 전북의 경제활동인구 : 849천명
 - 전국대비 비중 : 3.4%(전국 25,099천명)
 -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 11.3%(비수도권 8개도 7,539천명)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4〉 각 시도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시도	경제활동인구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내 비중
계	25,099	100.0	-
서울특별시	5,252	20.9	-
부산광역시	1,633	6.5	-
대구광역시	1,214	4.8	-
인천광역시	1,429	5.7	-
광주광역시	692	2.8	-
대전광역시	739	2.9	-
울산광역시	559	2.2	-
경기도	6,045	24.1	-
비수도권 8개도	7,539	30.0	100.0
강원도	691	2.8	9.2
충청북도	764	3.0	10.1
충청남도	1,025	4.1	13.6
전라북도	849	3.4	11.3
전라남도	904	3.6	12.0
경상북도	1,393	5.6	18.5
경상남도	1,617	6.4	21.4
제주도	296	1.2	3.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구직배율

- 개념 : 구직자수를 구인자수로 나눈 것으로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임. 구직배율이 1이상일 경우, 구직자 수가 구인자 수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유휴노동인력이 있다는 의미가 됨.
- 전북의 여건
 - 전국의 구직배율 1.52%(구인인원 2,154,163명, 구직인원 3,284,664명)
 - 비수도권 8개도 구직배율 1.27%(구인인원 665,693명, 구직인원 842,228명)
 - 전북의 구직배율 1.75%(구인인원 64,356명, 구직인원 112,529명)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표 4-5〉 각 시도 지역별 구인·구직인원 및 구직배율

(단위 : 명, %)

시도	구인인원	구직인원	구직배율
계	2,154,163	3,284,664	1.52
서울특별시	358,244	709,782	1.98
부산광역시	135,516	290,506	2.14
대구광역시	129,541	186,976	1.44
인천광역시	130,709	208,668	1.60
광주광역시	62,768	111,219	1.77
대전광역시	47,464	96,219	2.03
울산광역시	60,946	70,958	1.16
경기도	562,540	763,896	1.36
비수도권 8개도	665,693	842,228	1.27
강원도	41,466	90,784	2.19
충청북도	86,360	100,082	1.16
충청남도	110,572	113,299	1.02
전라북도	64,356	112,529	1.75
전라남도	52,786	63,288	1.20
경상북도	105,395	161,140	1.53
경상남도	191,598	184,632	0.96
제주도	13,160	16,474	1.25

주 : 구직배율 = 구직인원/구인인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구인, 구직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된 자료임.

나)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가)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

- 개념 : 16개 시도의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각종 대학의 재학생 수 및 대학원의 박사, 석사 재학생 수의 합
- 전북의 여건 : 전국의 4.2%,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2.8%
 - 전국의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는 2,044,908명(대학 1,714,975명, 석사 270,234명, 박사 59,699명)
 - 전북의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는 전국대비 4.2%(총 86,379명, 대학 74,894명, 석사 9,446명, 박사 2,039명)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표 4-6〉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

(단위 : 명, %)

시도	대학 재학생수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재학생수	
		전국대비 비중		전국대비 비중		전국대비 비중		전국대비 비중
계	1,714,975	100.0	270,234	100.0	59,699	100.0	2,044,908	100.0
서울특별시	530,195	30.9	117,286	43.4	26,339	44.1	673,820	33.0
부산광역시	149,119	8.7	17,371	6.4	3,466	5.8	169,956	8.3
대구광역시	45,801	2.7	11,029	4.1	1,786	3.0	58,616	2.9
인천광역시	37,311	2.2	6,702	2.5	1,296	2.2	45,309	2.2
광주광역시	62,052	3.6	11,264	4.2	2,861	4.8	76,177	3.7
대전광역시	83,879	4.9	13,531	5.0	5,851	9.8	103,261	5.0
울산광역시	15,584	0.9	2,267	0.8	627	1.1	18,478	0.9
경기도	190,946	11.1	26,844	9.9	4,171	7.0	221,961	10.9
비수도권 8개도	600,088	35.0(100.0)	63,940	23.7(100.0)	13,302	22.3(100.0)	677,330	33.1(100.0)
강원도	73,358	4.3(12.2)	7,023	2.6(11.0)	1,391	2.3(10.5)	81,772	4.0(12.1)
충청북도	71,454	4.2(11.9)	9,830	3.6(15.4)	1,403	2.4(10.5)	82,687	4.0(12.2)
충청남도	146,716	8.6(24.4)	12,104	4.5(18.9)	2,280	3.8(17.1)	161,100	7.9(23.8)
전라북도	74,894	4.4(12.5)	9,446	3.5(14.8)	2,039	3.4(15.3)	86,379	4.2(12.8)
전라남도	38,779	2.3(6.5)	3,249	1.2(5.1)	699	1.2(5.3)	42,727	2.1(6.3)
경상북도	121,333	7.1(20.2)	10,367	3.8(16.2)	3,533	5.9(26.6)	135,233	6.6(20.0)
경상남도	62,959	3.7(10.5)	9,732	3.6(15.2)	1,518	2.5(11.4)	74,209	3.6(11.0)
제주도	10,595	0.6(1.8)	2,189	0.8(3.4)	439	0.7(3.3)	13,223	0.6(2.0)

주 : ()는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다) 생산인력 확보 용이성

(가)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 개념 : 16개 시도의 실업계고로 지정된 학교의 재학생 수 및 전문대학 재학생 수
- 전국의 여건 : 전체 생산인력은 32,768명으로 전국대비 3.9%, 8개도 대비 11.4%
 - 전라북도 실업계고 재학생수 : 13,231명(전국대비 3.9%,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1.5%)
 - 전라북도 전문대 재학생수 : 19,537명(전국대비 3.9%,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1.3%)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대학통계

〈표 4-7〉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단위 : 명, %)

시도	실업계고 재학생	전국대비 비중	전문대 재학생	전국대비 비중	전체	전국대비 비중
계	340,227	100.0	503,493	100.0	843,720	100.0
서울특별시	55,630	16.4	44,941	8.9	100,571	11.9
부산광역시	28,877	8.5	35,489	7.0	64,366	7.6
대구광역시	18,850	5.5	38,508	7.6	57,358	6.8
인천광역시	22,642	6.7	15,389	3.1	38,031	4.5
광주광역시	11,590	3.4	21,744	4.3	33,334	4.0
대전광역시	10,276	3.0	20,389	4.0	30,665	3.6
울산광역시	10,022	2.9	7,822	1.6	17,844	2.1
경기도	67,979	20.0	146,387	29.1	214,366	25.4
비수도권 8개도	114,558	33.7(100.0)	172,824	34.3(100.0)	287,382	34.1(100.0)
강원도	9,598	2.8(8.4)	16,379	3.3(9.5)	25,977	3.1(9.0)
충청북도	18,031	5.3(15.7)	17,041	3.4(9.9)	35,072	4.2(12.2)
충청남도	13,273	3.9(11.6)	20,645	4.1(11.9)	33,918	4.0(11.8)
전라북도	13,231	3.9(11.5)	19,537	3.9(11.3)	32,768	3.9(11.4)
전라남도	17,865	5.3(15.6)	27,460	5.5(15.9)	45,325	5.4(15.8)
경상북도	18,136	5.3(15.8)	38,516	7.6(22.3)	56,652	6.7(19.7)
경상남도	19,772	5.8(17.3)	25,256	5.0(14.6)	45,028	5.3(15.7)
제주도	4,652	1.4(4.1)	7,990	1.6(4.6)	12,642	1.5(4.4)

주 1) 실업계고 =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농업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상업고등학교+수산 및 해양
고등학교+가사 및 실업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2) ()는 비수도권 8개도 내 비중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라) 인건비

(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개념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 평균
- 전국의 여건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국대비 92.8%, 비수도권 8개도 대비 98.2%
 - 전국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2,487,340원
 - 비수도권 8개도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2,350,592원
 - 전라북도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2,307,304원
- 출처 :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

〈표 4-8〉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단위 : 원, %)

시도	월평균 임금	전국 평균 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비중
계	2,487,340	100.0	-
서울특별시	2,921,496	117.5	-
부산광역시	2,356,022	94.7	-
대구광역시	2,165,156	87.0	-
인천광역시	2,410,840	96.9	-
광주광역시	2,226,364	89.5	-
대전광역시	2,487,288	100.0	-
울산광역시	2,822,173	113.5	-
경기도	2,467,899	99.2	-
비수도권 8개도 평균	2,350,592	94.5	100.0
강원도	2,242,956	90.2	95.4
충청북도	2,299,646	92.5	97.8
충청남도	2,488,080	100.0	105.8
전라북도	2,307,304	92.8	98.2
전라남도	2,557,058	102.8	108.8
경상북도	2,439,738	98.1	103.8
경상남도	2,436,641	98.0	103.7
제주도	2,033,316	81.7	86.5

주 :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자료 :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

마) 노사관계

(가) 노조조직률

- 개념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의 비율
- 전북의 여건 : 노조조직률은 전국의 57.2%, 비수도권 8개도 대비 89.1%
 - 전국의 노조조직률 : 7.7%
 - 비수도권 8개도의 노조조직률 : 4.9%
 - 전라북도의 노조조직률 : 4.4%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전국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합원수, 행정구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임금근로자

〈표 4-9〉 노조조직률

(단위 : %)

시군	조합원수	임금근로자	노조조직률	전국 평균 대비 비중
계	1,643,113	21,478,000	7.7	100.0
서울특별시	1,028,330	3,733,000	27.5	360.1
부산광역시	65,469	1,145,000	5.7	74.7
대구광역시	35,752	851,000	4.2	54.9
인천광역시	31,378	1,019,000	3.1	40.3
광주광역시	16,686	494,000	3.4	44.2
대전광역시	44,036	540,000	8.2	106.6
울산광역시	43,574	429,000	10.2	132.8
경기도	156,529	4,255,000	3.7	48.1
비수도권 8개도	221,359	4,506,000	4.9	64.2(100.0)
강원도	15,431	446,000	3.5	45.2(70.4)
충청북도	29,519	501,000	5.9	77.0(119.9)
충청남도	25,122	606,000	4.1	54.2(84.4)
전라북도	20,976	479,000	4.4	57.2(89.1)
전라남도	24,798	478,000	5.2	67.8(105.6)
경상북도	47,639	789,000	6.0	78.9(122.9)
경상남도	54,083	1,031,000	5.2	68.6(106.8)
제주도	3,791	176,000	2.2	28.2(43.8)

주 :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노사분규 통계

(2) 토지(입지)

가) 토지의 확보

(가)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 개념 : 전국 16개 시도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분양대상면적에서 분양면적을 제한 면적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은 15,304천㎡(전국대비 8.9%,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1.5%)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2년 9월)

〈표 4-10〉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2012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 %)

시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전체	전국 대비 비중
계	35,079	129,497	932	6,546	172,055	100.0
서울특별시	0	771	0	0	771	0.4
부산광역시	0	5,167	79	0	5,247	3.0
대구광역시	4,700	1,773	0	0	6,473	3.8
인천광역시	0	928	596	0	1,524	0.9
광주광역시	1,337	1,156	0	0	2,494	1.4
대전광역시	488	163	0	0	651	0.4
울산광역시	613	4,184	0	0	4,797	2.8
경기도	2,806	14,196	108	0	17,109	9.9
비수도권 8개도	24,538	104,618	190	6,611	135,957	77.3(100.0)
강원도	0	4,306	64	1,136	5,506	3.2(4.1)
충청북도	63	10,844	2	455	11,363	6.6(8.5)
충청남도	6,857	16,506	13	913	24,289	14.1(18.3)
전라북도	1,399	12,915	0	991	15,304	8.9(11.5)
전라남도	5,812	28,785	0	925	35,522	20.6(26.7)
경상북도	9,105	11,414	0	1,104	21,622	12.6(16.3)
경상남도	1,838	16,306	71	1,024	19,239	11.2(14.5)
제주도	61	84	0	0	144	0.1(0.1)

주 1) 전체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의 합이며, 2012년 9월말 기준

2) ()는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3) 세종시의 공급가능면적(일반산단 408천㎡)은 충청남도에 합산하여 계산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2년 9월)

나) 토지의 가격

(가)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 개념 :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전국 16개 시도 국가 산업단지의 최고/최저/평균 분양가
- 전북의 여건 : 전북 국가산업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113,467원/㎡(전국대비 79.9%, 비수도권 8개도 대비 81.7%)
 - 전국 국가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142,097원/㎡
 - 비수도권 8개도 국가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138,842원/㎡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 4-11〉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단위 : 원/㎡)

시도	최저	최고	평균	전국 평균 대비 비중
전국 평균	125,013	148,456	142,097	100.0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	-	-	-
대구광역시	-	-	-	-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205,700	205,700	205,700	144.8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81,670	81,670	81,670	57.5
경기도	103,911	213,000	158,456	111.5
비수도권 8개도 평균	121,764	137,456	138,842	97.7(100.0)
강원도	82,507	82,507	82,507	58.1(59.4)
충청북도	-	-	-	-(-)
충청남도	231,361	231,361	231,361	162.8(166.6)
전라북도	113,467	113,467	113,467	79.9(81.7)
전라남도	69,401	147,860	108,631	76.4(78.2)
경상북도	-	-	-	-(-)
경상남도	-	-	185,000	130.2(133.2)
제주도	112,083	112,083	112,083	78.9(80.7)

주 1) 2011년말 현재 분양중인 국가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작성

2) 평균 분양가는 분양 중인 산업단지 전체의 평균값임

3) 전국대비 비중은 평균가를 기준으로 계산

4)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가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나)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 개념 :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전국 16개 시도 일반 산업단지의 최고/최저/평균 분양가
- 전북의 여건 : 전북 일반산업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131,710원/㎡(전국대비 50.6%, 비수도권 8개도 대비 75.0%)
 - 전국 일반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260,149원/㎡
 - 비수도권 8개도 일반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175,573원/㎡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 4-12〉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단위 : 원/㎡)

시도	최저	최고	평균	전국 평균 대비 비중
전국 평균	127,934	485,003	260,149	100.0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293,240	541,490	394,410	151.6
대구광역시	96,800	462,000	264,658	101.7
인천광역시	305,494	786,000	545,747	209.8
광주광역시	148,225	148,225	148,225	57.0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184,475	327,600	243,726	93.7
경기도	123,152	1,674,430	556,159	213.8
비수도권 8개도 평균	73,107	337,900	175,573	67.5(100.0)
강원도	82,700	195,179	138,940	53.4(879.1)
충청북도	86,150	520,000	169,761	65.3(96.7)
충청남도	69,601	301,000	193,497	74.4(110.2)
전라북도	45,072	303,030	131,710	50.6(75.0)
전라남도	41,849	270,130	138,542	53.3(78.9)
경상북도	65,380	272,000	152,938	58.8(87.1)
경상남도	121,000	503,960	303,625	116.7(172.9)
제주도	-	-	-	-(-)

주 1) 2011년말 현재 분양중인 국가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작성

2) 평균 분양가는 분양 중인 산업단지 전체의 평균값임

3) 전국대비 비중은 평균가를 기준으로 계산

4)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가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다) 농공단지 분양가

- 개념 :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전국 16개 시도 농공단지의 최고/최저/평균 분양가
- 전북의 여건 : 전북 농공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41,894원/㎡(전국대비 54.9%)
- 전국 및 비수도권 8개도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는 76,260원/㎡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 4-13〉 농공단지 분양가

(단위 : 원/㎡)

시도	최저	최고	평균	전국 평균 대비 비중
전국 평균	34,416	121,939	76,260	100.0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	-	-	-
대구광역시	-	-	-	-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	-	-	-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	-	-	-
경기도	-	-	-	-
비수도권 8개도 평균	34,416	121,939	76,260	100.0
강원도	29,838	105,056	61,275	80.3
충청북도	45,000	106,904	80,405	105.4
충청남도	39,000	197,000	123,565	162.0
전라북도	21,175	75,500	41,894	54.9
전라남도	47,000	130,000	77,713	101.9
경상북도	22,296	58,773	39,690	52.0
경상남도	36,602	180,340	109,281	143.3
제주도	-	-	-	-

주 1) 2011년말 현재 분양중인 국가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작성

2) 평균 분양가는 분양 중인 산업단지 전체의 평균값임

3) 전국대비 비중은 평균가를 기준으로 계산

4)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가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3) 산업집적 여건

(1) 협력업체 집적

가) 원료 및 부품조달

(가)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전국 비중

- 개념 :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 1,720개(전국대비 2.7%, 비수도권 8개도 대비 8.1%)
 - 전북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 수 83,142명(전국대비 3.1%, 비수도권 8개도 대비 7.4%)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표 4-14〉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대비 비중		전국대비 비중
계	63,047	100.0	2,694,782	100.0
서울특별시	4,825	7.7	121,635	4.5
부산광역시	3,984	6.3	132,804	4.9
대구광역시	3,238	5.1	103,417	3.8
인천광역시	4,525	7.2	165,308	6.1
광주광역시	1,114	1.8	60,399	2.2
대전광역시	833	1.3	38,739	1.4
울산광역시	1,443	2.3	145,580	5.4
경기도	21,838	34.6	809,745	30.0
비수도권 8개도	21,247	33.7(100.0)	1,117,155	41.5(100.0)
강원도	802	1.3(3.8)	31,244	1.2(2.8)
충청북도	2,331	3.7(11.0)	130,927	4.9(11.7)
충청남도	3,296	5.2(15.5)	218,617	8.1(19.6)
전라북도	1,720	2.7(8.1)	83,142	3.1(7.4)
전라남도	1,466	2.3(6.9)	74,826	2.8(6.7)
경상북도	4,614	7.3(21.7)	238,547	8.9(21.4)
경상남도	6,843	10.9(32.2)	335,943	12.5(30.1)
제주도	175	0.3(0.8)	3,909	0.1(0.3)

주 : ()는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나) 비즈니스서비스 집적

(가)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개념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수 9,280개(전국대비 2.9%,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2.4%)
 - 전북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 수 72,218명(전국대비 2.2%,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2.7%)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표 4-15〉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개, 명, %)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비중	전국대비 비중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비중	전국대비 비중
계	317,171	3,470,034	9.1	100.0	3,270,521	18,093,190	18.1	100.0
서울특별시	101,645	752,285	13.5	32.0	1,428,753	4,498,312	31.8	43.7
부산광역시	21,745	263,356	8.3	6.9	197,072	1,231,887	16.0	6.0
대구광역시	13,893	188,300	7.4	4.4	123,492	809,381	15.3	3.8
인천광역시	13,827	169,421	8.2	4.4	106,595	848,393	12.6	3.3
광주광역시	8,889	102,386	8.7	2.8	80,748	499,802	16.2	2.5
대전광역시	9,619	100,474	9.6	3.0	113,827	509,740	22.3	3.5
울산광역시	5,699	73,417	7.8	1.8	55,377	451,987	12.3	1.7
경기도	67,086	720,851	9.3	21.2	596,250	3,920,341	15.2	18.2
비수도권 8개도	74,768	1,099,544	6.8	23.6(100.0)	568,407	5,323,347	10.7	17.4(100.0)
강원도	8,357	121,273	6.9	2.6(11.2)	64,455	502,315	12.8	2.0(11.3)
충청북도	8,474	109,256	7.8	2.7(11.3)	63,437	551,917	11.5	1.9(11.2)
충청남도	10,332	140,507	7.4	3.3(13.8)	72,180	748,377	9.6	2.2(12.7)
전라북도	9,280	128,740	7.2	2.9(12.4)	72,218	581,101	12.4	2.2(12.7)
전라남도	7,280	128,465	5.7	2.3(9.7)	60,738	586,908	10.3	1.9(10.7)
경상북도	11,364	193,364	5.9	3.6(15.2)	89,830	945,683	9.5	2.7(15.8)
경상남도	16,203	230,795	7.0	5.1(21.7)	118,326	1,203,289	9.8	3.6(20.8)
제주도	3,478	47,144	7.4	1.1(4.7)	27,223	203,757	13.4	0.8(4.8)

주 1) 비즈니스서비스산업=출판업(58)+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방송업(60)+통신업(61)+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정보서비스업(63)+금융업(64)+보험 및 연금업(6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부동산업(68)+임대업;부동산 제외(69)+연구개발업(70)+전문서비스업(71)+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업(72)+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사업지원 서비스업(75)

2) ()는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4) 인프라 여건

(1) 물적 인프라

가) 도로 접근성

(가) 서울까지의 도로교통 소요시간

- 개념 : 각 시도(기준 : 각 시·도 시청 및 도청)에서 서울(기준 : 서울시청)까지의 거리 및 자동차 이동시 소요시간
- 전북의 여건
 - 전북(전주시)에서 서울까지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를 통해 자동차로 2시간 40분이 소요됨
- 출처 : 다음지도(<http://map.daum.net>)

〈표 4-16〉 서울까지의 도로교통 시간 거리

출발	도착	거리(km)	소요시간(분)
부산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394.4	275
대구광역시청		287.8	191
인천광역시청		38.9	66
광주광역시청		297.1	203
대전광역시청		161.4	137
울산광역시청		395.6	244
경기도청		46.6	62
강원도청		109.7	99
충청북도청		136.5	114
충청남도청		129.1	136
전라북도청		216.3	159
전라남도청		347.8	228
경상북도청		286.2	189
경상남도청		366.8	256

주 : 소요시간은 자가용기준 소요시간임.

자료 : 다음지도(<http://map.daum.net>)

나) 철도 접근성

(가) 서울까지의 철도교통 소요시간

- 개념 : 각 시도에서 서울까지 철도 소요시간
- 전북의 여건
 - 전북(전주시)에서 서울(용산역)까지 호남선KTX를 통해 2시간 16분이 소요됨
 - 호남선KTX 신선노선이 개통되는 2014년에는 1시간 20분대로 단축될 예정
- 출처 : 코레일(<http://www.korail.com>)

〈표 4-17〉 서울까지의 철도 소요시간

출발	도착	소요시간(분)	비고
부산역	서울	162	KTX(서울역)
대구역		114	KTX(서울역)
인천역		76	지하철
광주역		182	KTX(용산역)
대전역		66	KTX(서울역)
울산역		139	KTX(서울역)
경기도 - 수원역		30	KTX(서울역)
강원도 - 춘천역		60	청량리역, ITX
충청북도 - 청주역		100	무궁화
충청남도 - 홍성역		117	새마을
전라북도 - 전주역		136	KTX(용산역)
전라남도 - 무안역		281	KTX(용산역), 무궁화
경상북도 - 대구역		114	KTX(서울역)
경상남도 - 창원역		178	KTX(서울역)

주 : 소요시간은 각 출발 역에서 서울(용산, 청량리)역까지 1일 동안 운행되는 열차의 평균 소요시간임.
 자료 : 코레일(<http://www.korail.com>)

다) 항만 접근성

(가) 인천항·부산항까지의 도로교통 소요시간

- 개념 : 각 시도(기준 : 각 시·도 시청 및 도청)에서 주요 수출입 항만인 인천항, 부산항까지의 거리 및 자동차 소요시간
- 전북의 여건
 - 전북에서 자동차로 인천항까지 2시간 45분, 부산항까지 3시간 20분이 소요되며, 두 개 항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임
 - 전국 각 시·도에서 인천항과 부산항의 두 개 항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2시간 53분으로 전북은 약 7분이 더 많이 소요됨. 지방 7개 도의 평균 소요시간과 비교해서는 약 2분이 더 많이 소요됨
- 출처 : 다음지도(<http://map.daum.net>)

〈표 4-18〉 주요 항만과의 도로교통 시간거리

출발	인천항(A)		부산항(B)		평균((A+B)/2)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전국 평균 소요시간 대비 비중	비수도권 7개도 평균 소요시간 대비 비중
전국 평균	233	164	243	182	238	173	100	
서울특별시	44	80	400	283	222	182	105	
부산광역시	416	276	10	37	213	157	91	
대구광역시	308	200	113	101	210	151	87	
인천광역시	16	28	412	277	214	153	88	
광주광역시	324	205	261	191	292	198	115	
대전광역시	182	144	264	194	223	169	98	
울산광역시	416	269	67	82	241	176	102	
경기도	51	57	373	250	212	154	89	
비수도권 7개도 평균	248	171	250	187	249	179	104	100
강원도	162	132	410	274	286	203	118	113
충청북도	157	121	277	198	217	160	92	89
충청남도	129	100	354	243	241	172	99	96
전라북도	237	165	255	200	246	183	106	102
전라남도	360	227	292	226	326	227	131	126
경상북도	307	195	123	96	215	146	84	81
경상남도	387	258	42	72	215	165	96	92

주 : 소요시간은 자가용기준 소요시간임.

자료 : 다음지도(<http://map.daum.net>)

라) 공항 접근성

(가) 인천공항까지의 도로교통 소요시간

- 개념 : 각 시도(기준 : 각 시도 시청 및 도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 및 자동차 소요시간
- 전북의 여건
 - 전북에서 자동차로 인천공항까지 2시간 54분이 소요됨
 - 전국 각 시·도에서 인천공항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2시간 50분으로 전북은 약 4분이 더 많이 소요됨. 지방 7개 도의 평균 소요시간과 비교해서는 약 2분이 더 빠름
- 출처 : 다음지도(<http://map.daum.net>)

〈표 4-19〉 인천공항과의 도로교통 시간거리

출발	도착: 인천공항			
	거리 (km)	시간 (분)	전국 평균 소요시간 대비 비중(%)	비수도권 7개 도 평균 소요시간 대비 비중(%)
전국 평균	251	170	100	
서울특별시	60	60	35	
부산광역시	434	285	168	
대구광역시	326	210	124	
인천광역시	39	39	23	
광주광역시	342	215	127	
대전광역시	200	151	89	
울산광역시	435	276	163	
경기도	69	67	39	
비수도권 7개 도 평균	266	177	105	100
강원도	175	127	75	72
충청북도	175	130	77	73
충청남도	147	110	65	62
전라북도	255	174	103	98
전라남도	378	231	136	130
경상북도	325	203	120	114
경상남도	405	267	157	150

주 : 소요시간은 자가용기준 소요시간임.

자료 : 다음지도(<http://map.daum.net>)

(2) 지식 인프라

가) 과학기술혁신역량

(가)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국 16개 시·도 중 8위 수준
 - 전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7.598점으로 전국 평균인 8.981점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수도권 8개도의 평균인 7.490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비해 우위에 있음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2010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표 4-20〉 시도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단위 : 점, %)

시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지수	전국 평균 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 도 평균 대비 비중
전국 평균	8.981	100	
서울특별시	17.462	194	
부산광역시	7.443	83	
대구광역시	6.589	73	
인천광역시	7.098	79	
광주광역시	8.962	100	
대전광역시	14.830	165	
울산광역시	6.195	69	
경기도	15.194	169	
비수도권 8개 도 평균	7.490	83	100
강원도	6.995	78	93
충청북도	7.233	81	97
충청남도	8.255	92	110
전라북도	7.598	85	101
전라남도	6.841	76	91
경상북도	10.804	120	144
경상남도	8.344	93	111
제주도	3.848	43	51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2010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3) 생활 인프라

가) 교육 여건

(가)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 개념 : 각 지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1.1명(전국대비 87.9%, 비수도권 8개도 대비 95.7%)
 - 전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2.6명
 - 비수도권 8개도 교원 1인당 학생수 11.6명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 각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

〈표 4-21〉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

시도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전국 평균 대비 비중
계	6,986,847	553,447	12.6	100.0
서울특별시	1,219,799	94,395	12.9	102.4
부산광역시	438,795	36,202	12.1	96.0
대구광역시	368,376	28,264	13.0	103.2
인천광역시	391,241	30,869	12.7	100.4
광주광역시	246,570	17,734	13.9	110.1
대전광역시	231,775	17,676	13.1	103.9
울산광역시	178,473	13,760	13.0	102.7
경기도	1,750,261	128,137	13.7	108.2
비수도권 8개도	2,161,557	186,410	11.6	91.9(100.0)
강원도	208,283	19,219	10.8	85.8(93.5)
충청북도	222,166	17,776	12.5	99.0(107.8)
충청남도	288,186	24,094	12.0	94.7(103.1)
전라북도	269,784	24,299	11.1	87.9(95.7)
전라남도	259,737	24,443	10.6	84.2(91.6)
경상북도	345,747	31,442	11.0	87.1(94.8)
경상남도	477,086	38,428	12.4	98.3(107.1)
제주도	90,568	6,709	13.5	106.9(116.4)

주 :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비중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 각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

(나) 특수목적고 재학생수

- 개념 : 특수목적고(과학·외국어·국제계열 및 자율형 사립고) 학교 및 학생 수
- 전국의 여건 : 전국의 특수목적고 재학생 수 3,357명(전국의 3.8%, 비수도권 8개도의 26.0%)
 - 전라북도의 과학고 재학생 수 127명(전국의 2.9%, 비수도권 8개도의 9.7%)
 - 전라북도의 외국어고 재학생 수 353명(전국의 1.5%, 비수도권 8개도의 9.5%)
 - 전라북도의 자율형사립고 재학생 수 2,877명(전국의 5.0%, 비수도권 8개도의 36.6%)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특수목적고등학교

〈표 4-22〉 특수목적고 재학생수

(단위 : 명, %)

시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전국대비비중
계	4,384	23,891	2,041	57,582	87,898	100.0
서울특별시	1,024	6,604	444	32,434	40,506	46.1
부산광역시	555	2,740	490	1,611	5,396	6.1
대구광역시	293	479	-	5,321	6,093	6.9
인천광역시	191	1,386	415	189	2,181	2.5
광주광역시	181	-	-	2,933	3,114	3.5
대전광역시	187	912	-	2,447	3,546	4.0
울산광역시	158	324	-	1,700	2,182	2.5
경기도	486	7,717	692	3,083	11,978	13.6
비수도권 8개도	1,309	3,729	-	7,864	12,902	14.7(100.0)
강원도	122	297	-	468	887	1.0(6.9)
충청북도	121	386	-	-	507	0.6(3.9)
충청남도	140	525	-	1,158	1,823	2.1(14.1)
전라북도	127	353	-	2,877	3,357	3.8(26.0)
전라남도	176	367	-	1,167	1,710	1.9(13.3)
경상북도	230	406	-	2,194	2,830	3.2(21.9)
경상남도	306	1,103	-	-	1,409	1.6(10.9)
제주도	87	292	-	-	379	0.4(2.9)

주 1) 특수목적고 =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2) ()는 비수도권 8개 도내 비중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의료 여건

(가) 인구 1만명당 병상수

- 개념 : 전국 및 각 시군구의 병상수 및 전국 비중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157.6개(전국 대비 149.3%,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21.8%)
 - 전국의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105.5개
 - 비수도권 8개도의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129.4개
-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표 4-23〉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전국비중

(단위 : 명, 개, %)

시도	병상수	인구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전국 평균 대비 비중
계	545,705	51,716,745	105.5	100.0
서울특별시	77,074	10,528,899	73.2	69.4
부산광역시	52,312	3,586,079	145.9	138.2
대구광역시	29,153	2,529,285	115.3	109.2
인천광역시	25,890	2,851,491	90.8	86.0
광주광역시	23,276	1,477,570	157.5	149.3
대전광역시	20,323	1,530,650	132.8	125.8
울산광역시	11,585	1,153,915	100.4	95.1
경기도	101,467	12,239,862	82.9	78.6
비수도권 8개도	204,625	15,818,994	129.4	122.6(100.0)
강원도	17,236	1,549,780	111.2	105.4(86.0)
충청북도	17,683	1,588,633	111.3	105.5(86.1)
충청남도	23,140	2,149,375	107.7	102.0(83.2)
전라북도	29,875	1,895,882	157.6	149.3(121.8)
전라남도	29,944	1,938,136	154.5	146.4(119.4)
경상북도	34,169	2,739,179	124.7	118.2(96.4)
경상남도	48,461	3,374,725	143.6	136.1(111.0)
제주도	4,117	583,284	70.6	66.9(54.6)

주 1) 병상수 = 양방+한방+치과+장기요양+정신+재활+결핵+한센병상

2)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의 합

3)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나)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 개념 : 전국 및 각 시도의 의료인력 및 전국 비중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15.1명(전국대비 112.5%,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18.2%)
 - 전국의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13.5명
 - 비수도권 8개도의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12.8명
-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표 4-24〉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전국비중

(단위 : 명, %)

시도	의료인력수	인구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수	전국 평균 대비 비중
계	696,362	51,716,745	13.5	100.0
서울특별시	176,019	10,528,899	16.7	124.2
부산광역시	57,228	3,586,079	16.0	118.5
대구광역시	38,562	2,529,285	15.2	113.2
인천광역시	30,926	2,851,491	10.8	80.5
광주광역시	25,430	1,477,570	17.2	127.8
대전광역시	24,053	1,530,650	15.7	116.7
울산광역시	13,884	1,153,915	12.0	89.4
경기도	127,599	12,239,862	10.4	77.4
비수도권 8개도	202,661	15,818,994	12.8	95.1(100.0)
강원도	19,333	1,549,780	12.5	92.6(97.4)
충청북도	18,761	1,588,633	11.8	87.7(92.2)
충청남도	25,785	2,149,375	12.0	89.1(93.6)
전라북도	28,714	1,895,882	15.1	112.5(118.2)
전라남도	26,431	1,938,136	13.6	101.3(106.4)
경상북도	32,267	2,739,179	11.8	87.5(91.9)
경상남도	43,965	3,374,725	13.0	96.8(101.7)
제주도	7,405	583,284	12.7	94.3(99.1)

주 1) 의료인력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조원)+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영양사+조리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안경사+자원봉사자+의료정보(전산정보)+일반직

2)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의 합

3)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다) 종합병원 수

- 개념 :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 및 전국비중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종합병원 수 14개소(종합전문병원 2개, 종합병원 14개소 ; 전국 대비 4.4%, 비수도권 8개도 대비 11.7%)
 - 전국의 종합병원 수 317개소(종합전문병원 44개소, 종합병원 273개소)
 - 비수도권 8개도의 종합병원 수 120개소(종합전문병원 8개소, 종합병원 112개소)
- 출처 :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표 4-25〉 종합병원 수 및 전국비중

(단위 : 개소, %)

시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합)	전국대비 비중
계	44	273	317	100.0
서울특별시	17	41	58	18.3
부산광역시	4	23	27	8.5
대구광역시	4	8	12	3.8
인천광역시	2	12	14	4.4
광주광역시	2	19	21	6.6
대전광역시	2	6	8	2.5
울산광역시	0	4	4	1.3
경기도	5	48	53	16.7
비수도권 8개도	8	112	120	37.9(100.0)
강원도	2	13	15	4.7(12.5)
충청북도	1	10	11	3.5(9.2)
충청남도	2	9	11	3.5(9.2)
전라북도	2	12	14	4.4(11.7)
전라남도	0	21	21	6.6(17.5)
경상북도	0	18	18	5.7(15.0)
경상남도	1	23	24	7.6(20.0)
제주도	0	6	6	1.9(5.0)

주 : ()는 비수도권 8개 도내 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다) 주택구입 환경

(가) 아파트 평당 매매·전세가

- 개념 : 전국 각 시군구의 매매 및 전세 면적당(m²) 시세 및 전국대비 비중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매매 면적당 최고 시세는 153만원/m², 최저 시세는 98만원/m²
 - 전북의 전세 면적당 최고 시세는 114만원/m², 최저 시세는 54만원/m²
 - 전북의 매매 면적당 평균 시세는 118.5만원/m²(전국 평균 대비 65.9%,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95.4%)
 - 전북의 전세 면적당 평균 시세는 73.8만원/m²(전국 평균 대비 68.6%,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97.1%)
- 출처 : KB국민은행, KB부동산, 아파트면적당 시세

〈표 4-26〉 아파트 평당 매매·전세가 전국비중

(단위 : 만원/m², %)

	매매 면적당(m ²) 시세				전세 면적당(m ²) 시세			
	최대	최소	평균	전국 평균 대비 비중	최대	최소	평균	전국 평균 대비 비중
전국	869	59	171.5	100.0	381	33	107.6	100.0
서울	869	299	453.1	264.2	381	173	243.7	226.5
부산	255	138	204.1	119.0	155	97	134.2	124.7
대구	203	144	165.1	96.3	147	104	119.6	111.2
인천	235	127	202.9	118.3	129	71	107.4	99.9
광주	151	132	139.0	81.0	117	101	108.0	100.4
대전	223	162	187.6	109.4	144	105	122.4	113.8
울산	223	160	195.6	114.0	158	113	138.2	128.5
경기	745	127	249.3	145.3	292	67	140.1	130.2
비수도권 8개도 평균	232	59	118.5	69.1(100.0)	142	33	76.0	70.6(100.0)
강원	153	69	100.6	58.6(84.9)	97	38	62.1	57.7(81.7)
충북	171	59	114.2	66.6(96.4)	118	36	73.3	68.1(96.5)
충남	171	87	133.0	77.5(112.3)	119	33	85.4	79.4(112.4)
전북	153	98	113.0	65.9(95.4)	114	54	73.8	68.6(97.1)
전남	165	66	100.4	58.5(84.7)	136	38	63.5	59.0(83.6)
경북	149	73	111.3	64.9(93.9)	101	45	73.9	68.7(97.3)
경남	232	74	129.8	75.7(109.6)	142	40	84.3	78.3(111.0)
제주	186	105	145.5	84.8(122.8)	124	59	91.5	85.0(120.4)

주 1) 시세갱신일 : 2012. 12. 21

2)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비중

자료 : KB국민은행, KB부동산, 아파트면적당 시세

라) 문화여건

(가)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 개념 : 전국 각 시군구의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수 및 전국비중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0.6개소(전국대비 150.2%, 비수도권 8개도 대비 87.4%)
 - 전국의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0.4개소
 - 비수도권 8개도의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0.7개소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표 4-27〉 인구 10000명당 문화시설

(단위 : 개소, %)

시군	문화시설수	인구수	인구 10000명당 문화시설 수	전국 평균 대비 비중
계	1,979	51,716,745	0.4	100.0
서울특별시	278	10,528,899	0.3	69.0
부산광역시	66	3,586,079	0.2	48.1
대구광역시	53	2,529,285	0.2	54.8
인천광역시	66	2,851,491	0.2	60.5
광주광역시	41	1,477,570	0.3	72.5
대전광역시	48	1,530,650	0.3	82.0
울산광역시	26	1,153,915	0.2	58.9
경기도	360	12,239,862	0.3	76.9
비수도권 8개도	1,041	15,818,994	0.7	172.0(100.0)
강원도	156	1,549,780	1.0	263.1(153.0)
충청북도	101	1,588,633	0.6	166.1(96.6)
충청남도	129	2,149,375	0.6	156.8(91.2)
전라북도	109	1,895,882	0.6	150.2(87.4)
전라남도	142	1,938,136	0.7	191.5(111.3)
경상북도	167	2,739,179	0.6	159.3(92.6)
경상남도	147	3,374,725	0.4	113.8(66.2)
제주도	90	583,284	1.5	403.2(234.5)

주 1) 문화시설 = 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원

2)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의 합

3) ()는 비수도권 8개 도 평균 대비 비중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마) 생활비용 여건

(가)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 개념 : 16개 시도의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및 전국대비 비중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9,096,746원(전국대비 78.1%, 비수도권 8개도 대비 95.0%)
 - 전국의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11,650,677원
 - 비수도권 8개도의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9,576,304원
- 출처 : 통계청, 온라인 간행물, 2010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표 4-28〉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단위 : 명, %)

시군	가계최종소비지출액 (10억원)	인구수	1인당 가계최종소비 지출액 (원)	전국 평균 대비 비중
계	599,247.7	51,716,745	11,650,677	100.0
서울특별시	155,591.0	10,528,899	14,712,475	126.3
부산광역시	41,426.2	3,586,079	11,506,060	98.8
대구광역시	27,527.9	2,529,285	10,871,668	93.3
인천광역시	30,809.4	2,851,491	10,970,883	94.2
광주광역시	16,375.8	1,477,570	11,155,208	95.7
대전광역시	18,096.1	1,530,650	11,916,775	102.3
울산광역시	13,681.9	1,153,915	11,977,072	102.8
경기도	144,251.9	12,239,862	11,949,411	102.6
비수도권 8개도	151,487.5	15,818,994	9,576,304	82.2(100.0)
강원도	15,111.5	1,549,780	9,790,063	84.0(102.2)
충청북도	14,799.5	1,588,633	9,402,591	80.7(98.2)
충청남도	20,569.9	2,149,375	9,710,721	83.3(101.4)
전라북도	17,184.8	1,895,882	9,096,746	78.1(95.0)
전라남도	16,676.8	1,938,136	8,594,273	73.8(89.7)
경상북도	25,940.4	2,739,179	9,513,077	81.7(99.3)
경상남도	35,267.4	3,374,725	10,533,072	90.4(110.0)
제주도	5,937.2	583,284	10,286,441	88.3(107.4)

주 1)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의 합

2) ()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온라인 간행물, 2010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5) 인센티브 지원제도

(1) 인센티브 지원제도 개관

-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크게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이 있음
 -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보조금 지원임
 - 행정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임
- 지원 보조금의 유형은 크게 5가지임
 -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정착지원보조금 등임
 - 보조금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조건과 규모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간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한함
-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규모는 국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준임
 - 전라북도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100억원 이외에 시·군에서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원
 - 전라북도 이외에 충남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100억원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와 시·군의 지원액을 합한 것으로 전라북도에 비해 작은 규모임

(2) 지원대상별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

가) 수도권 이전기업

- 지원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으로, 전부 이전하여 30명 이상 상시고용 하는 기업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입지금액의 40~60% 범위내(대기업은 지원 없음)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10~15% 범위내(대기업은 5~10% 범위내)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1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60만원 이하

나) 타 시도 이전기업(전부 이전)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이 전부 이전하는 경우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 지역특화단지 입주시 개별이전 7% 한도, 20개 이상 집단이전 10%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 (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다) 타 시도 이전기업(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2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3% 범위내(5억원 한도)
 - 건물취득(임대)비보조금 : 취득가액의 3% 범위내, 연간임대료 5년간 50% 범위내(5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 (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라) 대규모 투자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11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5% 범위내(10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 (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정착지원보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 : 도내 이주후 거주 근로자 1인 당 최대 1년 범위내 월 10만원 이하

마) 분공장 투자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이상 상시 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 (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바) 신·증설 투자 중소기업(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

- 지원대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으로,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채용인원이 투자전 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사)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대상 : 도내 지역에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기업
 - 국내에 기 투자한 외국인기업이 도내에 이전·증설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임대(분양)계약서상 임대료(분양가액)와 정상임대료(분양가액)의 차액(정상가액의 50% 초과 불가)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5% 범위내(50억원 한도)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대규모 투자기업(1,000억원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는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보조금의 2% 범위내(50억원 한도)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3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3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2.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1) 총괄

(1) 전주권(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전주권은 전북의 중심도시권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구성됨
 - 전주권은 인구는 143만여명으로 전북의 75.2%, GRDP는 전북의 75.0%를 점유하는 전북의 거점지역임
 - 전주권의 도시들은 연담도시로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연결되어 향후 전주-새만금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전주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의 측면에서 모두 매우 양호함
 - 생산요소 측면에서 연구개발인력 및 생산인력 등 인력공급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풍부함
 -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대비 산업용지 분양가는 국가산단은 79.9%, 일반산단은 60.3%, 농공단지 39.7% 수준에 불과
 - 전주권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3.4km²(2012년 9월말 현재)이며, 2020년까지 신규로 5.3km²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공급가능한 산업용지 면적이 18.7km²에 이를 전망이어서 기업의 부지 확보가 매우 용이함
 - 산업집적 측면에서 전북지역 제조업 사업체수의 80.0%, 종사자수의 71.6%가 집중된 산업집적지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음
- 전주권은 양호한 생산요소 환경을 기반으로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음
 - 대학, 연구소와 함께 전북지역 제조업이 집중해 있는 연구개발 및 산업의 집적지로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교육, 연구개발, 산업의 집적지로 산업 발전여건이 양호
- 전주권은 산업집적과 함께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클러스터로 발전이 진행 중임
 - 전국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전주권의 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 조선, 농기계, 탄소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임
 -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조성,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등에 따라 지역산업 및 연구개발기반이 강화되면서 전주권의 산업발전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전주권은 KTX철도,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시설이 잘 건설되어 있어 수도권 및 영남권, 남해안권 등 광역적 접근성과 함께 권역 내 연결성이 매우 좋음
 - 고속도로와 함께 권역 내 도시들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잘 건설되어 도시간 소요시간이 20~40분 정도로 짧음
 - 전주권에는 호남선KTX 정차역으로 익산역, 정읍역, 김제역 등 3개 역이 있으며, 전라선 정차역으로 전주역이 소재하여 권역내 모든 지역에서 KTX 정차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KTX철도 이용이 편리함
- 군산항, 군산공항이 소재하여 비교적 국내 해운 및 항공 교통이 원활하나, 국제해운이나 국제항공 등 국제적인 교통·물류 기반은 미흡함
 - 202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이 신규로 건설되고 군산항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며, 군산공항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이 검토되고 있어서 향후 미흡한 국제교통·물류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교육·의료·문화·주택 등 생활인프라 여건이 매우 양호
 - 전주권은 교육의 중심지로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북과학교, 전북의국어고,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 등 특수목적고가 소재하고 있음
 -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우석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과 예수병원 등 9개의 종합병원과 주요 의료기관들이 집중해 있어 의료여건이 양호함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 등 전시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이 풍부하며, 전국규모의 문화축제와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문화도시, 마한백제문화 등 문화적 자산이 풍부함
 -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평균의 49.5%, 전세가는 54.9%로 매우 저렴

〈표 4-29〉 전라북도 권역별 생산요소 여건(2011)

분야	구성 항목	세부 구성항목	측정치표	전국	전북	전주권	정읍권	남원권	무진장권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규모 (명)	51,716,745	1,895,882	1,425,832	242,548	149,184	78,318
			GRDP* (10억원)	1,172,742.2	34,643.1	25,970.0	4,433.5	2,681.4	1,558.2
생산요소	인력 (노동)	적정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천명)	25,099	863.7	638	113	73.5	39.2
	토지 (임지)	토지의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천㎡)	172,055	15,304	13,441	1,253	311	299
		토지의 가격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 (원/㎡)	142,097	113,467	113,467	-	-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 (원/㎡)	76,260	41,894	30,250	60,307	32,141	40,520
	산업집적	협력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개)	63,047	1,720	1,373	200	110
제조업체 종사자수 (명)			2,694,782	83,142	71,623	6,770	3,589	1,160	
비즈니스 서비스 집적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 (개)	317,171	9,280	7,515	897	527	341	
		비즈니스서비스 종사자수 (명)	3,270,521	72,218	60,950	6,078	3,517	1,673	
인프라	물적 인프라	접근성	철도역 소재	-	○	○	○	○	-
			KTX정차역 소재	-	○	○	○	○	-
			항만 소재	-	○	○	-	-	-
			공항 소재	-	○	○	-	-	-
			고속도로 IC	-	○	○	○	○	○
				호남 익산-장수 원주-순천 서해안 88 고창-담양 대전-통영	호남 익산-장수 원주-순천 서해안	호남 서해안 고창-담양	88 원주-순천	익산-장수 대전-통영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12.6	11.1	12.4	8.5	8.0	5.8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개)	105.5	157.6	164.0	160.2	157.3	32.9
			인구 1천명 당 의사인력 (명)	2.4	2.4	2.6	2.0	2.1	1.8
			종합병원 수 (개소)	317	14	9	3	2	-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당 매매가 (만원)	171.5	113.0	124.2	101.7	102.0	102.0	
	아파트 ㎡당 전세가 (2012)	107.6	73.8	82.4	65.7	64.0	65.0		

* 2010년 기준임

(2)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정읍권은 전북의 서남부지역으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으로 구성됨
 - 정읍권의 인구는 24만여명으로 전북의 12.8%, GRDP는 전북의 12.8%를 점유
 - 정읍권은 새만금의 일부를 포함한 서해안 지역으로 전북의 중심권인 전주권 및 새만금권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정읍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생산요소와 인프라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나 산업집적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과학기술 및 지역자원 등 일부 요소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정읍권의 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6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기 지정 산업단지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3km²(2012년 9월말 현재)이고, 2020년까지 신규로 1.8km²의 산업용지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으로 산업용지 공급 여건은 양호함
 - 교통여건은 호남선 KTX 정차역으로 정읍역이 소재하고,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담양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함
 - 생활인프라의 경우 정읍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3개소가 있으며,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 등 의료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매매가도 평균 101.7만원/㎡로 저렴함
 - 산업집적 측면에서 정읍권의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200개로 산업집적 수준이 낮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달도 부진함
 - 정읍시에는 130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6개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농촌지역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산업집적이 형성됨
- 정읍권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출연연구기관 6개소가 입지해 있다는 점임
 - 정읍시에서는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원 정읍분원 등 3개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과 생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으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생산이 결합된 첨단산업지구를 조성 중에 있음
 - 부안군에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특화연구단지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

- 성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임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기관이 입지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험평가 거점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업생산, 신재생에너지 홍보 기능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단지임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태양광실증평가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의 풍력기술시험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연료전지산화연협력센터 등 3개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등 시험평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입지
 - 고창군은 국내 최대의 복분자 생산·가공지역으로, 향토특화산업인 복분자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고창군에서는 지자체 연구소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설립, 복분자 시험장 및 복분자테마파크 조성 등 복분자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3) 남원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 남원권은 전북의 동남부지역으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됨
 - 남원권의 인구는 15만여명으로 전북의 7.9%, GRDP는 전북의 7.3%를 점유
 - 남원권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한 지역이나, 최근 교통여건의 개선과 함께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장류산업, 치즈산업 등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남원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남원권은 기 지정된 14개 농공단지에 0.3km²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총 1.5km²의 산업용지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임.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3.2만원/m²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업용지 공급 측면의 여건은 비교적 양호함
 - 교통여건은 전라선 KTX 정차역으로 남원역이 소재하고, 88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함
 - 생활인프라의 경우 남원도립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가 있으며, 인구 1만명당

-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는 전국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고, 아파트 매매가는 102만원/㎡로 전국평균에 비해 낮음
- 산업집적 측면에서 남원권의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110개로 산업집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달도 부진함
- 남원권에는 향토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업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음
- 순창군은 전국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장류 발효식품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순창군에는 대상, 사조산업 등 국내 유수의 장류생산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전통고추장 생산기업으로 특화된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이 조성되어 있음
 - 순창군에서는 장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소인 장류연구소를 중심으로 발효미생물관리센터, 발효식품물류센터,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장류체험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등과 연계하여 장류벨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임실군에는 향토산업으로 치즈를 중심으로 한 유가공산업이 발달해 있음
 - 임실군은 우리나라 치즈제조가 시작된 지역으로 임실군에서는 치즈를 중심으로 한 유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연구소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임실군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억원 한도의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4) 무진장권(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무진장권은 전북의 동부지역으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구성됨
- 무진장권의 인구는 8만여명으로 전북의 4.1%, GRDP는 전북의 4.5%를 점유
- 무진장권은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이 발전된 지역이며, 최근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무진장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무진장권은 기 지정된 9개 농공단지 0.3km²의 미분양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4만원/㎡ 수준임
- 교통여건은 산간지역으로 크게 열악하였으나, 대전-통영고속도로와 익산-장수

-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권, 대전권, 경남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 생활인프라의 경우 인구희소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제외한 의료, 문화, 주택 등 여건이 불리함
 - 종업원 10인이상 제조업체수는 37개로 산업발전이 매우 부진함
 - 무진장권의 제조업은 지역특화 농산품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가공산업이 소규모로 발전해 있음
 - 진안군은 전국적인 인삼 재배지로 지자체 연구소인 홍삼연구소 설립, 홍삼특화 산업단지인 홍삼농공단지 조성 등 홍삼가공산업을 향토특화산업으로 육성 중임
 - 무주군에는 다국적기업인 다농의 유제품 가공공장이 입지해 있음
 - 무진장권에서는 크게 개선된 고속도로 접근성을 이용하여 관광·휴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무주군은 무주스키장이 입지해 있으며, 세계태권도공원이 조성 중으로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휴양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임
 - 장수군은 말레저문화특구를 지정받고 경주마 육성 목장 및 승마공원 조성 등 말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추진 중임
 -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케어산업을 중심으로 건강·휴양산업 육성을 추진 중임

2) 생산요소 여건

(1) 인력(노동)

가. 적정 인력 조달

(가) 경제활동인구

- 개념 :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
- 권역별 여건
 - 전주권의 경제활동인구 : 638천명(전북 내 비중 73.9%)
 - 정읍권의 경제활동인구 : 113천명(전북 내 비중 13.1%)
 - 남원권의 경제활동인구 : 73.5천명(전북 내 비중 8.5%)
 - 무진장권의 경제활동인구 : 39.2천명(전북 내 비중 4.5%)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표 4-30〉 각 권역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시군	경제활동인구	전북대비 비중	권역내 비중
전라북도	863.7	100.0	
전주권	638	73.9	100.0
전주시	300.7	34.8	47.1
군산시	129.2	15.0	20.3
익산시	123.7	14.3	19.4
김제시	45.2	5.2	7.1
완주군	39.2	4.5	6.1
정읍권	113	13.1	100.0
정읍시	53	6.1	46.9
고창군	30.6	3.5	27.1
부안군	29.4	3.4	26.0
남원권	73.5	8.5	100.0
남원시	43.1	5.0	58.6
임실군	15.1	1.7	20.5
순창군	15.3	1.8	20.8
무진장권	39.2	4.5	100.0
진안군	13.3	1.5	33.9
무주군	13.3	1.5	33.9
장수군	12.6	1.5	32.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2012 2/4분기)

(2) 토지(입지)

가. 토지의 확보

(가)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 개념 : 기 지정된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의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면적을 제한 면적
- 권역별 여건
 - 공급가능면적은 전주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군산시가 전북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음.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2년 9월)

〈표 4-31〉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2012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 %)

시군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공급가능면적 전북비중	공급가능면적 권역내 비중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전체		
전라북도	1,399	12,915	-	990	15,304	100.0	
전주권	1,399	11,866	-	176	13,441	87.8	100.0
전주시	-	188	-	-	188	1.2	1.4
군산시	-	8,628	-	176	8,804	57.5	65.5
익산시	1,399	670	-	-	2,069	13.5	15.4
김제시	-	1,613	-	-	1,613	10.5	12.0
완주군	-	767	-	-	767	5.0	5.7
정읍권	-	1,049	-	204	1,253	8.2	100.0
정읍시	-	425	-	16	441	2.9	35.2
고창군	-	582	-	166	748	4.9	59.7
부안군	-	42	-	22	64	0.4	5.1
남원권	-	-	-	311	311	2.0	100.0
남원시	-	-	-	225	225	1.5	72.3
임실군	-	-	-	-	-	-	-
순창군	-	-	-	86	86	0.6	27.7
무진장권	-	-	-	299	299	2.0	100.0
전안군	-	-	-	133	133	0.9	44.5
무주군	-	-	-	53	53	0.3	17.7
장수군	-	-	-	113	113	0.7	37.8

주 : 전체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의 합이며, 2012년 2분기 기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2년 9월)

나. 토지의 가격

(가)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 개념 :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전국 16개 시도 국가 산업단지의 최고/최저/평균 분양가
- 권역별 여건
 - 현재 분양중인 전북의 국가산업단지는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평균 분양가는 113,467원/㎡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 4-32〉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단위 : 원/㎡)

시도	국가산업단지				
	최저	최고	평균	전북 평균 대비 비중	권역 평균 대비 비중
전라북도	113,467	113,467	113,467	100.0	
전주권	113,467	113,467	113,467	100.0	100.0
전주시	-	-	-	-	-
군산시	113,467	113,467	113,467	100.0	100.0
익산시	-	-	-	-	-
김제시	-	-	-	-	-
완주군	-	-	-	-	-
정읍권	-	-	-	-	-
정읍시	-	-	-	-	-
고창군	-	-	-	-	-
부안군	-	-	-	-	-
남원권	-	-	-	-	-
남원시	-	-	-	-	-
임실군	-	-	-	-	-
순창군	-	-	-	-	-
무진장권	-	-	-	-	-
진안군	-	-	-	-	-
무주군	-	-	-	-	-
장수군	-	-	-	-	-

주 : 현재 분양중인 국가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나)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 개념 :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전국 16개 시도 일반 산업단지의 최고/최저/평균 분양가
- 권역별 여건
 - 전라북도의 일반산업단지는 전주권, 정읍권에서 현재 분양중임.
 - 전라북도 일반산업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131,710원/m²
 - 전북평균대비 전주권은 119.0%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정읍권은 45.2%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 4-33〉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단위 : 원/m²)

시도	일반산업단지				
	최저	최고	평균	전북 평균 대비 비중	권역 평균 대비 비중
전라북도	45,072	303,030	131,710	100.0	
전주권	106,900	303,030	156,785	119.0	100.0
전주시	193,859	303,030	248,445	188.6	158.5
군산시	151,250	151,250	151,250	114.8	96.5
익산시	106,900	123,900	115,400	87.6	73.6
김제시	120,606	120,606	120,606	91.6	76.9
완주군	148,225	148,225	148,225	112.5	94.5
정읍권	45,072	68,833	59,541	45.2	100.0
정읍시	45,072	55,424	50,248	38.2	84.4
고창군	-	-	-	-	-
부안군	68,833	68,833	68,833	52.3	115.6
남원권	-	-	-	-	-
남원시	-	-	-	-	-
임실군	-	-	-	-	-
순창군	-	-	-	-	-
무진장권	-	-	-	-	-
진안군	-	-	-	-	-
무주군	-	-	-	-	-
장수군	-	-	-	-	-

주 : 현재 분양중인 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다) 농공단지 분양가

- 개념 :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전국 16개 시도 농공단지의 최고/최저/평균 분양가
- 권역별 여건
 - 전라북도의 농공단지는 전주권, 정읍권, 남원권, 무진장권에서 현재 분양중임.
 -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41,894원/㎡
 - 전북평균 대비 전주권은 72.2%, 정읍권은 144.0%, 남원권은 76.7%, 무진장권은 96.7%의 비중을 보임.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 4-34〉 농공단지 분양가

(단위 : 원/㎡)

시도	농공단지				
	최저	최고	평균	전북 평균 대비 비중	권역 평균 대비 비중
전라북도	21,175	75,500	41,894	100.0	
전주권	30,250	30,250	30,250	72.2	100.0
전주시	-	-	-	-	-
군산시	-	-	-	-	-
익산시	-	-	-	-	-
김제시	30,250	30,250	30,250	72.2	100.0
완주군	-	-	-	-	-
정읍권	38,420	75,500	60,307	144.0	100.0
정읍시	67,000	67,000	67,000	159.9	111.1
고창군	38,420	38,420	38,420	91.7	63.7
부안군	75,500	75,500	75,500	180.2	125.2
남원권	21,175	42,350	32,141	76.7	100.0
남원시	42,350	42,350	42,350	101.1	131.8
임실군	-	-	-	-	-
순창군	21,175	22,687	21,931	52.3	68.2
무진장권	34,560	48,000	40,520	96.7	100.0
진안군	34,560	34,560	34,560	82.5	85.3
무주군	48,000	48,000	48,000	114.6	118.5
장수군	39,000	39,000	39,000	93.1	96.2

주 : 현재 분양중인 농공단지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3) 산업집적 여건

(1) 협력업체 집적

가. 원료 및 부품조달

(가)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전국 비중

- 개념 :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권역별 여건
 - 전북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 1,720개
 - 전북 내 비중은 전주권이 79.8%, 정읍권 11.6%, 남원권 6.4%, 무진장권 2.2%
 - 전북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 수 83,142명
 - 전북 내 비중은 전주권이 86.1%, 정읍권 8.1%, 남원권 4.3%, 무진장권 1.4%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표 4-35〉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시군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북 내 비중	권역 내 비중		전북 내 비중	권역 내 비중	
전라북도	1,720	100.0		83,142	100.0	
전주권	1,373	79.8	100.0	71,623	86.1	100.0
전주시	226	13.1	16.5	7,763	9.3	10.8
군산시	448	26.0	32.6	25,879	31.1	36.1
익산시	358	20.8	26.1	19,017	22.9	26.6
김제시	162	9.4	11.8	5,451	6.6	7.6
완주군	179	10.4	13.0	13,513	16.3	18.9
정읍권	200	11.6	100.0	6,770	8.1	100.0
정읍시	130	7.6	65.0	4,919	5.9	72.7
고창군	34	2.0	17.0	870	1.0	12.9
부안군	36	2.1	18.0	981	1.2	14.5
남원권	110	6.4	100.0	3,589	4.3	100.0
남원시	53	3.1	48.2	2,015	2.4	56.1
임실군	28	1.6	25.5	898	1.1	25.0
순창군	29	1.7	26.4	676	0.8	18.8
무진장권	37	2.2	100.0	1,160	1.4	100.0
진안군	14	0.8	37.8	455	0.5	39.2
무주군	7	0.4	18.9	155	0.2	13.4
장수군	16	0.9	43.2	550	0.7	47.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나. 비즈니스서비스 집적

(가) 비즈니스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전국 비중

- 개념 :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전북의 여건
 - 전북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수 9,280개, 비즈니스 서비스업 비중은 7.2%
 - 전북 대비 비중은 전주권이 108.3%, 정읍권 73.6%, 남원권 69.4%, 무진장권 95.8%
 - 전북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 수 72,218명, 비즈니스 서비스업 비중은 12.4%
 - 전북 대비 비중은 전주권이 108.1%, 정읍권 75.8%, 남원권 69.4%, 무진장권 66.1%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표 4-36)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개, 명, %)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비중	전북대비 비중	권역대비 비중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비중	전북대비 비중	권역대비 비중
전라북도	9,280	128,740	7.2	100.0		72,218	581,101	12.4	100.0	
전주권	7,515	96,364	7.8	108.3	100.0	60,950	455,301	13.4	108.1	100.0
전주시	4,114	44,883	9.2	127.8	54.7	33,176	197,871	16.8	135.5	54.4
군산시	1,535	20,250	7.6	105.6	20.4	11,186	98,137	11.4	91.9	18.4
익산시	1,255	20,147	6.2	86.1	16.7	11,954	98,304	12.2	98.4	19.6
김제시	327	6,319	5.2	72.2	4.4	1,930	27,907	6.9	55.6	3.2
완주군	284	4,765	6.0	83.3	3.8	2,704	33,082	8.2	66.1	4.4
정읍권	897	16,806	5.3	73.6	100.0	6,078	64,579	9.4	75.8	100.0
정읍시	434	8,077	5.4	75.0	48.4	3,393	32,536	10.4	83.9	55.8
고창군	204	4,191	4.9	68.1	22.7	1,101	15,297	7.2	58.1	18.1
부안군	259	4,538	5.7	79.2	28.9	1,584	16,746	9.5	76.6	26.1
남원권	527	10,629	5.0	69.4	100.0	3,517	40,767	8.6	69.4	100.0
남원시	331	6,627	5.0	69.4	62.8	2,331	24,976	9.3	75.0	66.3
임실군	92	1,972	4.7	65.3	17.5	586	7,791	7.5	60.5	16.7
순창군	104	2,080	5.1	70.8	19.7	600	8,000	7.5	60.5	17.1
무진장권	341	4,941	6.9	95.8	100.0	1,673	20,454	8.2	66.1	100.0
진안군	79	1,532	5.2	72.2	23.2	541	6,639	8.1	65.3	32.3
무주군	188	2,041	9.2	127.8	55.1	716	7,994	9.0	72.6	42.8
장수군	74	1,368	5.4	75.0	21.7	416	5,821	7.1	57.3	24.9

주 : 비즈니스서비스산업=출판업(58)+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방송업(60)+통신업(61)+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정보서비스업(63)+금융업(64)+보험 및 연금업(6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부동산업(68)+임대업;부동산 제외(69)+연구개발업(70)+전문서비스업(71)+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업(72)+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사업지원 서비스업(7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4) 인프라 여건

(1) 물적 인프라

가. 접근성

○ 권역별 여건

- 전주권에는 완주군을 제외한 지역에 철도역 및 전라선, 호남선 KTX가 정차, 군산항 및 군산공항 등의 항만, 공항 인프라 보유하고 있으며, 호남, 익산-장수, 완주-순천, 서해안 고속도로 경유
- 정읍권은 정읍역에서 호남선 KTX가 정차하며, 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 경유
- 남원권은 남원역에서 전라선 KTX가 정차하며, 88 및 완주-순천 고속도로 경유
- 무진장권의 경우, 익산-장수, 대전-통영 고속도로 경유

○ 출처 :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표 4-37〉 도로접근성

시군	철도역	KTX 정차	항만	공항	고속도로 IC
전라북도	○	○	○	○	○
전주권	○	○	○	○	○
전주시	전주역	전라선 KTX			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 완주-순천고속
군산시	군산역	-	군산항	군산공항	서해안고속도로
익산시	익산역	호남선 KTX 전라선 KTX	-	-	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
김제시	김제역	호남선 KTX	-	-	호남고속도로
완주군	-	-	-	-	익산-장수고속 완주-순천고속
정읍권	○	○	-	-	○
정읍시	정읍역	호남선 KTX			호남고속도로
고창군	-	-	-	-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담양고속
부안군	-	-	-	-	서해안고속도로
남원권	○	○	-	-	○
남원시	남원역	전라선 KTX	-	-	88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
임실군	임실역	-	-	-	완주-순천고속
순창군	-	-	-	-	88고속도로
무진장권	-	-	-	-	○
진안군	-	-	-	-	익산-장수고속
무주군	-	-	-	-	대전-통영고속
장수군	-	-	-	-	익산-장수고속 대전-통영고속

(2) 생활 인프라

가. 교육 여건

(가)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 개념 : 각 지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 권역별 여건
 - 전라북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1.1명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주권이 12.4명, 정읍권은 8.5명, 남원권은 8.0명, 무진장권은 5.8명
 -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전북대비 비중은 전주권 111.8%, 정읍권 76.5%, 남원권은 72.4%, 무진장권은 52.7%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 각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

〈표 4-38〉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

시군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전북 평균 대비 비중	권역 평균 대비 비중
전라북도	269,784	24,299	11.1	100.0	
전주권	214,081	17,247	12.4	111.8	100.0
전주시	107,215	7,559	14.2	127.8	114.3
군산시	38,141	3,033	12.6	113.3	101.3
익산시	45,964	3,912	11.7	105.8	94.7
김제시	10,915	1,418	7.7	69.3	62.0
완주군	11,846	1,325	8.9	80.5	72.0
정읍권	31,427	3,698	8.5	76.5	100.0
정읍시	17,461	1,859	9.4	84.6	110.5
고창군	7,543	982	7.7	69.2	90.4
부안군	6,423	857	7.5	67.5	88.2
남원권	17,108	2,128	8.0	72.4	100.0
남원시	11,822	1,271	9.3	83.8	115.7
임실군	2,333	419	5.6	50.2	69.3
순창군	2,953	438	6.7	60.7	83.9
무진장권	7,168	1,226	5.8	52.7	100.0
진안군	2,271	415	5.5	49.3	93.6
무주군	2,505	399	6.3	56.5	107.4
장수군	2,392	412	5.8	52.3	99.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 각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

나. 의료 여건

(가) 인구 10000명당 병상수

- 개념 : 전국 및 각 시군구의 병상수 및 전국 비중
- 권역별 여건 : 전북의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157.6개
 - 인구 1만명당 병상수는 전주권 164.0개, 정읍권 160.2개, 남원권은 157.3개, 무진장권은 32.9개
 - 전북대비 비중은 전주권은 104.1%, 정읍권은 101.7%, 남원권은 99.8%, 무진장권은 20.9%의 비중
-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표 4-39〉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전국비중

(단위 : 명, 개, %)

시군	병상수	인구수	인구 10000명당 병상수	전북 평균 대비 비중	권역 평균 대비 비중
전라북도	29,875	1,895,882	157.6	100.0	
전주권	23,384	1,425,832	164.0	104.1	100.0
전주시	11,098	651,015	170.5	108.2	103.9
군산시	3,121	279,953	111.5	70.7	68.0
익산시	3,846	313,475	122.7	77.9	74.8
김제시	3,327	94,623	351.6	223.1	214.4
완주군	1,992	86,766	229.6	145.7	140.0
정읍권	3,886	242,548	160.2	101.7	100.0
정읍시	2,187	122,370	178.7	113.4	111.5
고창군	726	60,623	119.8	76.0	74.7
부안군	973	59,555	163.4	103.7	102.0
남원권	2,347	149,184	157.3	99.8	100.0
남원시	1,706	88,273	193.3	122.6	122.8
임실군	164	31,120	52.7	33.4	33.5
순창군	477	29,791	160.1	101.6	101.8
무진장권	258	78,318	32.9	20.9	100.0
진안군	63	28,774	21.9	13.9	66.5
무주군	152	26,050	58.3	37.0	177.1
장수군	43	23,494	18.3	11.6	55.6

주 1) 병상수 = 양방+한방+치과+장기요양+정신+재활+결핵+한센병상

2)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의 합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 개념 : 전국 및 각 시도의 의료인력 및 전국 비중
- 권역별 여건 : 전북의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2.4명
 - 인구 1천명당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인력은 전주권 2.6명, 정읍권 2.0명, 남원권은 2.1명, 무진장권 1.8명
 - 전북대비 비중은 전주권 106.0%, 정읍권 80.4%, 남원권 87.9%, 무진장권 74.2%의 비중
-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표 4-40〉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

(단위 : 명, %)

시군	의료인력수	인구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수	전북 평균 대비 비중	권역 평균 대비 비중
전라북도	4,600	1,895,882	2.4	100.0	
전주권	3,668	1,425,832	2.6	106.0	100.0
전주시	2,009	651,015	3.1	127.2	120.0
군산시	479	279,953	1.7	70.5	66.5
익산시	871	313,475	2.8	114.5	108.0
김제시	181	94,623	1.9	78.8	74.4
완주군	128	86,766	1.5	60.8	57.3
정읍권	473	242,548	2.0	80.4	100.0
정읍시	241	122,370	2.0	81.2	101.0
고창군	110	60,623	1.8	74.8	93.0
부안군	122	59,555	2.0	84.4	105.0
남원권	318	149,184	2.1	87.9	100.0
남원시	187	88,273	2.1	87.3	99.4
임실군	61	31,120	2.0	80.8	92.0
순창군	70	29,791	2.3	96.8	110.2
무진장권	141	78,318	1.8	74.2	100.0
진안군	53	28,774	1.8	75.9	102.3
무주군	48	26,050	1.8	75.9	102.3
장수군	40	23,494	1.7	70.2	94.6

주 1) 의료인력 =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2)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의 합

자료 : 전라북도청, 도정현황통계시스템, 복지, 의료인력

(다) 종합병원 수

- 개념 :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 및 전국비중
- 권역별 여건 : 전북의 종합병원 수 14개소(종합전문병원 2개소, 종합병원 14개소)
 - 전주권은 종합전문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 등 총 9개소로 전북 내에서 64.3%의 비중
 - 정읍권은 종합병원 3개소로 전북 내에서 21.4%의 비중
 - 남원권은 종합병원 2개소로 전북 내에서 14.3%의 비중
- 출처 :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표 4-41〉 종합병원 수 및 전국비중

(단위 : 개소, %)

시군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합)	전북 내 비중	권역 내 비중
전라북도	2	12	14	100.0	
전주권	2	7	9	64.3	100.0
전주시	1	3	4	28.6	44.4
군산시	-	2	2	14.3	22.2
익산시	1	1	2	14.3	22.2
김제시	-	1	1	7.1	11.1
완주군	-	-	-	-	-
정읍권	-	3	3	21.4	100.0
정읍시	-	1	1	7.1	33.3
고창군	-	1	1	7.1	33.3
부안군	-	1	1	7.1	33.3
남원권	-	2	2	14.3	100.0
남원시	-	2	2	14.3	100.0
임실군	-	-	-	-	-
순창군	-	-	-	-	-
무진장권	-	-	-	-	-
진안군	-	-	-	-	-
무주군	-	-	-	-	-
장수군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다. 주택구입 환경

(가) 아파트 평당 매매·전세가

- 개념 : 전국 각 시군구의 매매 및 전세 면적당(㎡) 시세 및 전국대비 비중
- 권역별 여건
 - 전북의 매매 면적당 평균 시세는 113만원/㎡, 전세 평균 시세는 73.8만원/㎡
 - 매매 면적당 전북평균 시세 대비 전주권은 108.9%, 정읍권은 90.0%, 남원권은 90.3%, 무진장권은 90.3%의 비중
 - 전세 면적당 전북평균 시세 대비 전주권은 111.7%, 정읍권은 89.0%, 남원권은 86.7%, 무진장권은 88.1%의 비중
- 출처 : KB국민은행, KB부동산, 아파트면적당 시세

〈표 4-42〉 아파트 평당 매매·전세가 전국비중

(단위 : 만원/㎡, %)

	매매 면적당(㎡) 시세			전세 면적당(㎡) 시세		
	시세	전북대비 비중	권역대비 비중	시세	전북 평균 대비 비중	권역 평균 대비 비중
전라북도	113.0	100.0		73.8	100.0	
전주권	124.2	109.9	100.0	82.4	111.7	100.0
전주시	153	135.4	123.2	114	154.5	138.3
군산시	136	120.4	109.5	88	119.2	106.8
익산시	126	111.5	101.4	86	116.5	104.4
김제시	98	86.7	78.9	56	75.9	68.0
완주군	108	95.6	87.0	68	92.1	82.5
정읍권	101.7	90.0	100.0	65.7	89.0	100.0
정읍시	106	93.8	104.3	71	96.2	108.1
고창군	101	89.4	99.3	72	97.6	109.6
부안군	98	86.7	96.4	54	73.2	82.2
남원권	102.0	90.3	100.0	64.0	86.7	100.0
남원시	102	90.3	100.0	64	86.7	100.0
임실군	-	-	-	-	-	-
순창군	-	-	-	-	-	-
무진장권	102.0	90.3	100.0	65.0	88.1	100.0
진안군	-	-	-	-	-	-
무주군	102	90.3	100.0	65	88.1	100.0
장수군	-	-	-	-	-	-

주 1) 시세갱신일 : 2012. 12. 21

2) '-' 지역은 데이터 없음

자료 : KB국민은행, KB부동산, 아파트면적당 시세

V

연구결과 요약

V. 연구결과 요약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2) 연구내용 및 방법

(1) 투자유치 여건 분석 지표 설정

-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를 설정
-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정책 환경 등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분석지표를 설정

(2) 전북 일반현황 분석

- 투자유치 여건 관련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일반현황을 분석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 지리적 특성, 인구 및 지역경제의 특성, 교통 인프라 여건의 특성 분석

(3)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를 통해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을 분석
- 시·도 단위에서의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제시
- 전북 내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제시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1)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를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
 -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입지결정요인은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 정주환경, 정부의 정책 등으로 대별되며, 기업규모, 기술수준, 업종 등에 따라 그 중요도가 상이등
-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는 4대 분야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됨
 - 4대 분야는 기업의 일반적인 입지결정요인인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정책 환경 등으로 구성
 - 생산요소 환경: 인력, 토지, 금융 등 3개 항목
 - 산업집적 환경: 협력업체 집적, 시장수요 등 2개 항목
 - 인프라 환경: 물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생활 인프라 등 3개 항목
 - 정책 환경: 규제개선 정책, 투자인센티브 등 2개 항목

〈표 5-1〉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분야	구성 항목	세부 내용
생산요소 환경	인력	적정 인력 조달, 인건비, 노사관계
	토지	적정 입지 확보, 지가(분양 및 임대료)
	금융	자금 접근성, 조달 비용
산업집적 환경	협력업체 집적	원료 및 부품조달, 설비, 장비, S/W 업체,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집적
	시장수요	대기업 등 수요업체, 일반 소비자, 고객
인프라 환경	물적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체증) 전화, 인터넷 유틸리티 확보 용이성
	지식 인프라	대학, 공공연구소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복지 등 시설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
정책 환경	규제개선 정책	조세체계, 경쟁정책, 규제체계의 명확성
	투자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 기업유지 활동

2)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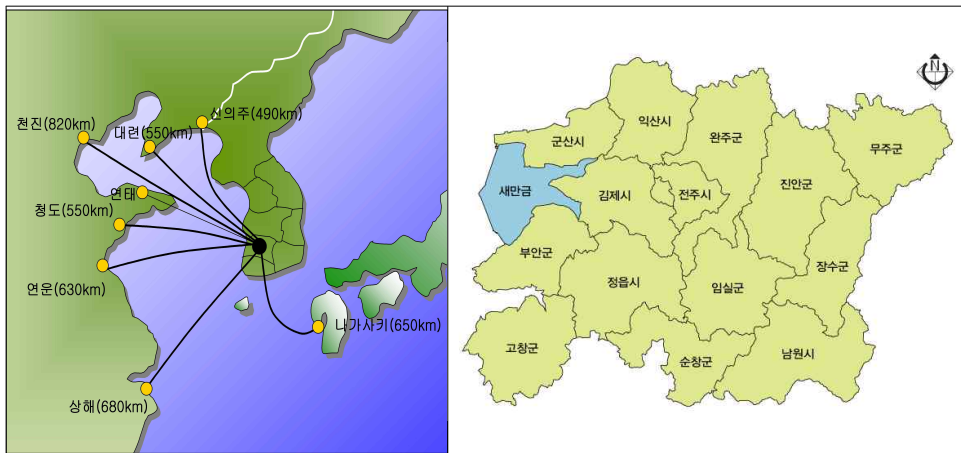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중 지역차원에서 의미 있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 투자유치 여건 구성요소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며, 지역차원에서 조절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요인들을 제외
 - 이들 요인들은 지역간 투자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투자환경의 구성요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함
 - 자금조달비용, 환율 및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지표, 규제개선정책 등 국가 전체의 제도적·관행적·정치적 요인,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등 제외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을 위한 분석지표는 3대 분야 6개 항목의 19개 지표로 구성
 - 정책환경 분야를 제외한 3대 분야를 분석
 - 생산요소 환경 분야 : 인력, 토지 등 2개 항목의 7개 지표
 - 산업집적 환경 분야 : 협력업체 집적 항목의 2개 지표
 - 인프라 환경 분야 : 물적인프라, 지식인프라, 생활인프라 등 3개 항목의 10개 지표
 - 정책환경 분야는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소개
 - 전북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정착지원보조금 등 제도 소개
 - 행정지원제도는 시·도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시·도별로 상이하야 일관성 있는 비교가 어려움
-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별로 시·도 단위에서의 지역간 비교분석과 전북지역 내 권역간 비교분석을 실시
 -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내 전북의 위상과 함께 지방의 8개 도 내 전북의 위상을 분석
 - 전북지역 내 권역별 분석은 자료 취득이 가능한 11개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분석

〈표 5-2〉 전북지역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분야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 지표	자료 출처
생산요소	인력	적정 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배율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전문인력 확보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생산인력 확보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전국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합원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종사상지원별 취업자, 임금근로자	
	토지	토지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토지 가격	산업단지 분양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총람
산업집적	협력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비즈니스서비스 집적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인프라	물적 인프라	도로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철도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철도 소요시간	코레일
		항만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항·부산항 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공항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공항간 자동차 소요시간	다음지도
	지식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역량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201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
			특수목적고 명단 및 재학생 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별 병상 세부현황(2011년)
			인구 1천명 당 의료인력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종합병원 수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국민은행, KB부동산, 아파트면적당 시세	
문화여건		인구1만명당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생활비용여건	1인당 가계최중소비지출액	통계청, 온라인간행물, 2010 지역소득통계,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3. 전라북도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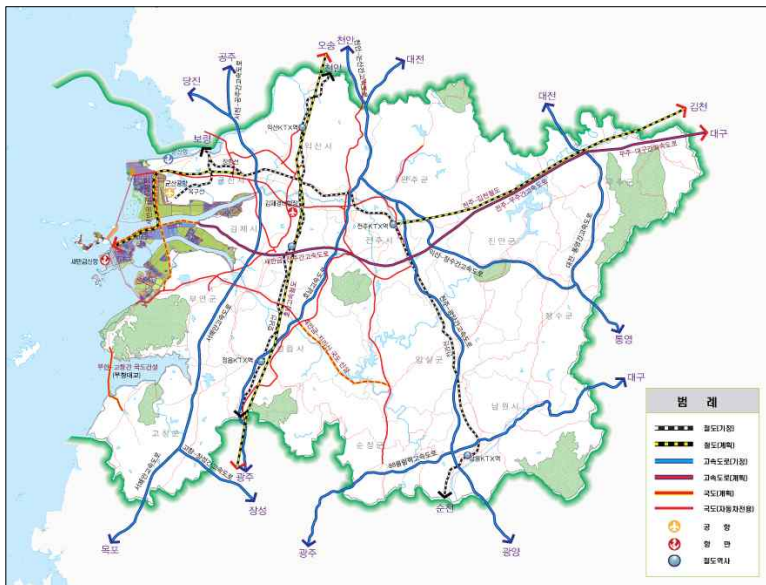
- 전북은 6시 8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수는 1,874,081명(2011년)
 - 전주시는 전북도청 소재지로 전북의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140만명 규모의 연담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함께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전북은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중국의 서해연안 경제거점인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 주요 도시가 400해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산~무안~대불을 잇는 서해안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



〈그림 5-1〉 전라북도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 전북 경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추세
 - 전북 경제는 최근 빠른 성장추이를 보이면서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 비중이 2005년 2.9%에서 2011년 3.1%로 증가
 - 전북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 추세가 지속
 - 2006~2011년 기간 동안 전북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수 5.39%, (전국 1.36%), 종사자수 5.33%(전국 1.64%), 생산액 14.08%(전국 11.81%)임

- 전북의 주요 업종은 자동차, 식품, 화학, 식품, 기계·장비, 비금속, 금속 등
 - 2006년 이후 자동차, 운송장비, 금속제품, 기계·장비, 전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이 연평균 10% 내외의 고성장률을 기록
 - 2006~2011년 기간 동안 사업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자동차 8.6%(전국 3.0%), 금속제품 16.9%(전국 7.4%), 기계·장비 9.4%(전국 4.9%), 전기 10.1%(전국 1.7%), 정밀기기 14.9%(전국 5.6%), 화학제품 4.4%(전국 2.1%) 등임
 - 200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 기업투자가 활발
 - 전북은 2006년이후 현대중공업, LS엠트론, 두산인프라코어, OCI, 넥솔론, 일진머티리얼스, 전방, 효성 등 매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 전북은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단지와 양호한 교통여건을 보유
 - 전북은 77개 산업단지에 총 15km²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분양가는 전국 평균의 50~80% 수준으로 저렴
 -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호남선KTX를 통해 1시간 50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2014년에 호남선KTX가 완전 개통되면서 60분대로 단축될 예정
 - 군산항 확장과 함께 새만금신항만이 조성 중이며, 새만금사업의 진전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이 검토 될 예정으로 항만과 공항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



〈그림 5-2〉 전북지역 교통체계

4.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1) 분야별 투자유치 여건

(1) 생산요소 여건

〈표 5-3〉 전라북도의 생산요소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규모* (2011)	1,895,882	51,716,745	3.7	6.8	명, %
		GDP* (2011)	38,086.8	1,242,903.8	3.1	8.8	십억원, %
인력 (노동)	적정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2011)	849	25,099	3.4	11.3	천명, %
		구직배율** (2011)	1.75	1.52	115.3	137.8	%
	전문인력 확보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2011)	86,379	2,044,908	4.2	12.8	명, %
	생산인력 확보	실업계고, 전문대학 재학생수* (2011)	32,768	843,720	3.9	11.4	명, %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2011)	2,307,304	2,487,340	92.8	98.2	원, %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2010)	4.4	7.7	57.2	89.1	%
토지 (업지)	토지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2012)	15,304	172,055	8.9	11.5	천㎡, %
	토지 가격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 (2011)	113,467	142,097	79.9	81.7	원/㎡, %
		일반산단 평균 분양가** (2011)	131,710	260,149	50.6	75.0	원/㎡,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 (2011)	41,894	76,260	54.9	54.9	원/㎡, %	

주 1) 인구규모는 총인구 기준(주민등록인구+외국인인구)임

2)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전북의 비중

- 전북의 생산요소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
 - 노동측면에서 인력조달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노사관계도 안정적인
 -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로부터 산업용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분양가도 낮은 수준임
- 전북은 인력조달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노사관계도 안정적
 - 전북의 구직배율은 1.75%로, 전국 평균(1.52%)과 지방 8개 도 평균(1.27%)에 비해 높아 인력 조달이 용이한 환경
 - 전북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수는 8만6천명으로 전국대비 4.2%를 차지하여 인구규모(전국대비 인구비중 3.7%)에 비해 고급인력 공급이 원활
 - 전북의 실업계고 및 전문대학 재학생수는 3만3천명으로 인구규모(전국대비 인구비중 3.7%)에 비해 생산인력 공급이 원활
 - 전북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31만원으로 전국 평균(249만원)의 92.8%, 지방 8개 도 평균(235만원)의 98.2% 수준으로 낮음
 - 전북의 노조조직률은 4.4%로 전국의 노조 조직률(7.7%)의 57.2%, 지방 8개 도의 노조조직률(4.9%)의 89.1% 수준으로 낮아 노사관계가 안정적
- 산업단지로부터 산업용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분양가는 낮은 수준
 - 전북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로부터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5.3km²로 전국(172 km²)의 8.7%를 점유하여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
 - 전북의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41,894~131,710원으로 전국 평균(76,260~260,149원)의 50.6~54.9%, 지방 8개 도 평균(76,260~175,573원)의 54.9~75.0% 수준으로 저렴
 -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는 113,467원/m²으로 전국 평균(142,097원/m²)의 80%, 지방 8개도 평균(138,842원/m²)의 80~82% 수준
 - 일반산단 평균 분양가는 131,710원/m²으로 전국 평균(260,149원/m²)의 50.6%, 지방 8개도 평균(175,573원/m²)의 75.0% 수준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는 41,894원/m²으로 전국 평균(76,260원/m²)의 54.9% 수준

(2) 산업집적 여건

〈표 5-4〉 전라북도의 산업집적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협력 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2011)	1,720	63,047	2.7	8.1	개, %
		제조업체 종사자수* (2009)	83,142	2,694,782	3.1	7.4	명, %
	비즈니스 서비스집적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 (2011)	9,280	317,171	2.9	12.4	개, %
		비즈니스서비스 종사자수* (2011)	72,218	3,270,521	2.2	12.7	명, %

주 :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북의 산업 집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전북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빠르게 집적이 형성되고 있음
 - 전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2011년 현재 1,720개로 전국의 2.7%, 종사자수는 83,142명으로 전국의 3.1%를 점유
 - 전북은 제조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2000년대 중반이후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전국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전북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6~2011년 기간동안 사업체수 5.4%, 종사자수 5.3%, 생산액 14.1%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사업체수는 4.0%p, 종사자수는 3.7%p, 생산액은 2.3%p.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전북 제조업의 전국비중은 사업체수는 2005년 2.2%에서 2011년 2.7%, 종사자수는 2005년 2.6%에서 2011년 3.1%로 증가
- 전북 제조업은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집적이 형성되고 있음
 -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기계·장비, 식료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2006~2011년 기간 동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전북의 비즈니스서비스업 발달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미흡하나, 지방의 8개도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발달
 - 비즈니스서비스업은 대도시 지향적 산업으로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발달이 미흡

(3) 인프라 여건

〈표 5-5〉 전라북도의 인프라 여건

구성 항목	분석지표	측정지표	전북	전국	전국 대비 비중	비수도권 8개도 대비 비중	비고
물적 인프라	도로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자동차 소요시간	216.3km / 159분				
	철도 접근성	시·도청 소재지와 서울간 철도 소요시간	전주역 : 136분(2014년 60분으로 단축)				
	항만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항·부산항 간 자동차 소요시간	인천항 : 236.8km / 165분				
			부산항 : 254.6km / 200분 평균 : 245.7km / 182.5분				
공항	시·도청 소재지와 인천공항간 자동차 소요시간	인천공항 : 255.0km / 176분					
지식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역량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 (2010)	7.598	8.981	84.6	101.4	점, %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2011)	11.1	12.6	87.9	95.7	명, %
		특수목적고 재학생 수* (2011)	3,357	87,898	3.8	26.0	명, %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2011)	157.6	105.5	149.3	121.8	개, %
		인구 1천명 당 의료인력** (2011)	15.1	13.5	112.5	118.2	명, %
		종합병원 수* (2011)	14	317	4.4	11.7	개, %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당 매매가** (2012)	113.0	171.5	65.9	95.4	만원/㎡, %
		아파트 ㎡당 전세가** (2012)	73.8	107.6	68.6	97.1	만원/㎡, %
문화여건	인구1만명당 문화시설** (2011)	0.6	0.4	150.2	87.4	개, %	
생활 비용여건	1인당 가계최중 소비지출액** (2010)	9,096,746	11,650,677	78.1	95.0	원, %	

주 :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총규모 대비 전북의 비중

** 전국(또는 비수도권 8개도) 평균 대비 전북의 비중

- 전북의 교통인프라와 생활인프라는 양호하며, 지식인프라는 보통 수준
- 전북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전북지역 내 도시간 접근성이 양호하나, 항만 및 공항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
- 전북은 교육, 의료, 주택, 문화, 생활비 등 생활여건이 양호
- 지식인프라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8개도 가운데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전북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 내 주요 도시간 연결성도 높음
 - 전북은 서울과의 교통소요시간이 2014년 60분대로 단축될 예정
 - 현재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KTX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
 - 2014년에 KTX 신설노선이 개통되면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될 예정
 - 고속버스는 전주~서울(강남터미널) 간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이며, 일일 10분 간격으로 125회 운행(05:00~24:00)되어 이용이 편리
 -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와 1시간 이내에 연결됨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등 지역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전북 내 지역간 연결성이 높음
 -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새만금신항만이 건설되고, 군산공항 확장과 함께 국제공항 승격이 검토될 예정으로 항만과 공항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새만금신항만이 건설 중으로 2020년까지 4선석의 부두가 완공될 예정으로 군산항 확장과 함께 해운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전북의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전북의 교육여건은 초중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1.1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작고, 상산고, 전북과학고 등 등 특수목적고도 소재하여 전반적으로 양호
 - 전북은 주택 구입비가 전국 평균의 55% 수준으로 낮으며 생활비용도 78.1% 수준으로 낮아 전북의 주거 및 소비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전북은 문화시설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 많으며,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문화향유율이 높은 지역
 -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등 전북의 의료기관 및 인력, 시설이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지식인프라는 전국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
 - 전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16개 시·도 가운데 9위, 지방의 8개 도 가운데 4위 수준으로 중간 수준
 - 전북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반과 함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정책환경 여건

- 전북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의 측면에서 전북의 정책환경 여건은 양호한 수준임
- 전북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넓고, 보조금 지원한도가 큰 규모임
 - 전북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은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자정착지원보조금 등이 있음

가) 수도권 이전기업

- 지원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으로, 전부 이전하여 30명 이상 상시고용 하는 기업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입지금액의 40~60% 범위내(대기업은 지원 없음)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10~15% 범위내(대기업은 5~10% 범위내)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1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60만원 이하

나) 타 시도 이전기업(전부 이전)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이 전부 이전하는 경우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 지역특화단지 입주시 개별이전 7% 한도, 20개 이상 집단이전 10%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 (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다) 타 시도 이전기업(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2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3% 범위내(5억원 한도)
 - 건물취득(임대)비보조금 : 취득가액의 3% 범위내, 연간임대료 5년간 50% 범위내(5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라) 대규모 투자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11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5% 범위내(10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정착지원보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 : 도내 이주후 거주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범위내 월 10만원 이하

마) 분공장 투자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이상 상시 고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바) 신증설 투자 중소기업(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

- 지원대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으로,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채용인원이 투자전 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 60억원 한도(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6% 범위내(5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사)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대상 : 도내 지역에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기업
 - 국내에 기 투자한 외국인기업이 도내에 이전·증설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임대(분양)계약서상 임대료(분양가액)와 정상임대료(분양가액)의 차액(정상가액의 50% 초과 불가)
 - 투자보조금 : 투자액의 5% 범위내(50억원 한도)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대규모 투자기업(1,000억원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는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보조금의 2% 범위내(50억원 한도)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3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신규고용 교육훈련시 20명초과 1인당 3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2)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표 5-6〉 전라북도 권역별 생산요소 여건(2011)

분야	구성 항목	세부 구성항목	측정지표	전국	전북	전주권	정읍권	남원권	무진장권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규모 (명)	51,716,745	1,895,882	1,425,832	242,548	149,184	78,318
			GRP* (10억원)	1,172,742.2	34,643.1	25,970.0	4,433.5	2,681.4	1,558.2
생산요소	인력 (노동)	적정인력 조달	경제활동인구 (천명)	25,099	863.7	638	113	73.5	39.2
		토지 (입지)	토지의 확보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천㎡)	172,055	15,304	13,441	1,253	311
	토지의 가격		국가산단 평균 분양가 (원/㎡)	142,097	113,467	113,467	-	-	-
			일반산단 평균 분양가 (원/㎡)	260,149	131,710	156,785	59,541	-	-
			농공단지 평균 분양가 (원/㎡)	76,260	41,894	30,250	60,307	32,141	40,520
산업집적	협력업체	원료 및 부품조달	제조업체 수 (개)	63,047	1,720	1,373	200	110	37
			제조업체 종사자수 (명)	2,694,782	83,142	71,623	6,770	3,589	1,160
		비즈니스 서비스 집적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 (개)	317,171	9,280	7,515	897	527	341
			비즈니스서비스 종사자수 (명)	3,270,521	72,218	60,950	6,078	3,517	1,673
인프라	물적 인프라	접근성	철도역 소재	-	○	○	○	○	-
			KTX정차역 소재	-	○	○	○	○	-
			항만 소재	-	○	○	-	-	-
			공항 소재	-	○	○	-	-	-
			고속도로 IC 소재	-	○	○	○	○	○
	생활 인프라	교육여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12.6	11.1	12.4	8.5	8.0	5.8
		의료여건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개)	105.5	157.6	164.0	160.2	157.3	32.9
			인구 1천명 당 의사인력 (명)	2.4	2.4	2.6	2.0	2.1	1.8
			종합병원 수 (개소)	317	14	9	3	2	-
		주택구입 환경	아파트 ㎡당 매매가 (만원)	171.5	113.0	124.2	101.7	102.0	102.0
아파트 ㎡당 전세가 (2012)	107.6		73.8	82.4	65.7	64.0	65.0		

* 2010년 기준임

(1) 전주권(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전주권은 연담도시로 140만여명의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전북의 거점지역
 - 인구는 143만여명으로 전북의 75.2%, GRDP는 전북의 75.0%를 점유
 - 전주권의 도시들은 연담도시로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연결되어 향후 전주-새만금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전주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의 측면에서 모두 매우 양호함
 - 생산요소 측면에서 연구개발인력 및 생산인력 등 인력공급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풍부
 -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대비 산업용지 분양가는 국가산단은 79.9%, 일반산단은 60.3%, 농공단지 39.7% 수준에 불과
 - 전주권의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는 13.4km²(2012년 9월말 현재)로 풍부하여 기업의 부지 확보가 매우 용이
 - 산업집적 측면에서 전북지역 제조업 사업체수의 80.0%, 종사자수의 71.6%가 집중된 산업집적지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발달
- 전주권은 양호한 생산요소 환경을 기반으로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음
 - 대학, 연구소와 함께 전북지역 제조업이 집중해 있는 연구개발 및 산업의 집적지로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교육, 연구개발, 산업의 집적지로 산업 발전여건이 양호
 - 전주권은 산업집적과 함께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클러스터로 발전이 진행 중임
 - 전국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전주권의 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 조선, 농기계, 탄소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임
 -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조성,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등에 따라 지역산업 및 연구개발기반이 강화되면서 전주권의 산업발전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전주권은 KTX철도,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시설이 잘 건설되어 있어 수도권 및 영남권, 남해안권 등 광역적 접근성과 함께 권역 내 연결성이 매우 좋음
 - 고속도로와 함께 권역 내 도시들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잘 건설되어 도시간 소요시간이 20~40분 정도로 짧음
 - 전주권에는 호남선KTX 정차역으로 익산역, 정읍역, 김제역 등 3개 역이 있으며, 전라선 정차역으로 전주역이 소재하여 권역내 모든 지역에서 KTX 정차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KTX철도 이용이 편리함
- 군산항, 군산공항이 소재하여 비교적 국내 해운 및 항공 교통이 원활하나, 국제해운이나 국제항공 등 국제적인 교통·물류 기반은 미흡함
 - 202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이 신규로 건설되고 군산항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며, 군산공항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이 검토되고 있어서 향후 미흡한 국제 교통·물류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교육·의료·문화·주택 등 생활인프라 여건이 매우 양호
 - 전주권은 교육의 중심지로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북과학고, 전북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 등 특수목적고가 소재
 -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우석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과 예수병원 등 9개의 종합병원과 주요 의료기관들이 집중해 있어 의료여건이 양호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 등 전시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이 풍부하며, 전국규모의 문화축제와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문화도시, 마한백제문화 등 문화적 자산이 풍부
 -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평균의 49.5%, 전세가는 54.9%로 매우 저렴

(2)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정읍권은 전북의 서남부지역으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으로 구성됨
 - 정읍권의 인구는 24만여명으로 전북의 12.8%, GRDP는 전북의 12.8%를 점유
 - 정읍권은 새만금의 일부를 포함한 서해안 지역으로 전북의 중심권인 전주권 및 새만금권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정읍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생산요소와 인프라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나 산업집적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과학기술 및 지역자원 등 일부 요소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정읍권의 산업단지 평균 분양가는 6만원/m² 수준으로 저렴
- 교통여건은 호남선 KTX 정차역으로 정읍역이 소재하고,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담양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
- 생활인프라의 경우 정읍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3개소가 있으며,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 등 의료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매매가도 평균 101.7만원/m²로 저렴
- 산업집적 측면에서 정읍권의 종업원 10인이상 제조업체수는 200개로 산업집적 수준이 낮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달도 부진
 - 정읍시에는 130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6개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농촌지역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산업집적지를 형성
- 정읍권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출연연구기관 6개소가 입지해 있다는 점임
- 정읍시에서는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원 정읍분원 등 3개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과 생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으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생산이 결합된 첨단산업지구를 조성 중
- 부안군에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특화연구단지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기관이 입지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험평가 거점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업생산, 신재생에너지 홍보 기능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단지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태양광실증평가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의 풍력기술시험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연료전지산업협력센터 등 3개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등 시험평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입지
- 고창군은 국내 최대의 복분자 생산·가공지역으로, 향토특화산업인 복분자 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고창군에서는 지자체 연구소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설립, 복분자 시험장 및 복분자테마파크 조성 등 복분자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3) 남원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 남원권은 전북의 동남부지역으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됨
 - 남원권의 인구는 15만여명으로 전북의 7.9%, GRDP는 전북의 7.3%를 점유
 - 남원권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한 지역이나, 최근 교통여건의 개선과 함께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장류산업, 치즈산업 등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남원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남원권은 기 지정된 14개 농공단지에 0.3km²의 공급가능한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3.2만원/m²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교통여건은 전라선 KTX 정차역으로 남원역이 소재하고, 88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
 - 생활인프라의 경우 남원도립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가 있으며,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수는 전국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고, 아파트 매매가는 102만원/m²로 전국평균에 비해 저렴
 - 산업집적 측면에서 남원권의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110개로 산업집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달도 부진
- 남원권에는 향토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업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음
 - 순창군은 전국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장류 발효식품산업 집적지를 형성
 - 순창군에는 대상, 사조산업 등 국내 유수의 장류생산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전통고추장 생산기업으로 특화된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이 조성되어 있음
 - 순창군에서는 장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소인 장류연구소를 중심으로 발효미생물관리센터, 발효식품물류센터,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장류체험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등과 연계하여 장류벨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임실군에는 향토산업으로 치즈를 중심으로 한 유가공산업이 발달해 있음
 - 임실군은 우리나라 치즈제조가 시작된 지역으로 임실군에서는 치즈를 중심으로 한 유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연구소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임실군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억원 한도의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4) 무진장권(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무진장권은 전북의 동부지역으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구성됨
 - 무진장권의 인구는 8만여명으로 전북의 4.1%, GRDP는 전북의 4.5%를 점유
 - 무진장권은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이 발전된 지역이며, 최근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무진장권의 투자유치 여건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무진장권은 기 지정된 9개 농공단지에 0.3km²의 미분양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4만원/m² 수준으로 저렴
 - 교통여건은 산간지역으로 크게 열악하였으나, 대전-통영고속도로와 익산-장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권, 대전권, 경남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 생활인프라의 경우 인구희소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제외한 의료, 문화, 주택 등 여건이 불리
 -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37개로 산업발전이 매우 부진
- 무진장권의 제조업은 지역특화 농산품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가공산업이 소규모로 발전해 있음
 - 진안군은 전국적인 인삼 재배지로 지자체 연구소인 홍삼연구소 설립, 홍삼특화산업단지인 홍삼농공단지 조성 등 홍삼가공산업을 향토특화산업으로 육성 중
 - 무주군에는 다국적기업인 다농의 유제품 가공공장이 입지
- 무진장권에서는 크게 개선된 고속도로 접근성을 이용하여 관광·휴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무주군은 무주스키장이 입지해 있으며, 세계태권도공원이 조성 중으로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휴양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
 - 장수군은 말레저문화특구를 지정받고 경주마 육성 목장 및 승마공원 조성 등 말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추진 중
 -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케어산업을 중심으로 건강·휴양산업을 육성 중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국토개발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 1992, 지역간 기업활동여건 및 입지비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기업의 입지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류승한·김광익, 2005, 산업단지 개발 편람연구, 국토연구원.
- 권오형·이성균, 2009, 영국 웨일즈개발청의 기업유치 전략과 성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권 제1호, 67-82.
- 김영표, 2007, 경남의 기업투자환경 실태와 발전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김용웅, 1992, 지역간 제조업 활동여건 격차에 대한 행태분석, 국토연구원.
- 김진석, 2010,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기업유치방안, 산업입지 제40호, 한국산업단지공단, 14-22.
- 김진석, 2010, 전라북도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전북발전연구원.
- 박용규, 199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박용규, 2004,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박재곤, 2006, 지방투자 추이분석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 2006년 12월호.
- 박재곤·정준호, 2007, 지역별 설비투자의 추이와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62호, 산업연구원.
- 박재곤·허문구·변창욱, 2007,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 박재곤·변창욱·허문구·최형재, 2008, 지역 설비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 변용환, 2007, 제조업 투자유치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 변필성, 2009,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산업연구원, 1987, 기업의 입지결정요인분석.
- 이병기, 2005,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임영대, 1987, 도시공업의 공간배치와 입지변동
- 지식경제부, 2007,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최인혁 · 오동욱, 2005, 기업체 입지환경요인 수준과 업종, 입지유형, 생산체제
및 기업규모 간 관계분석-충북지역 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7권 제4호, 226-256.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 기업의 입지동향과 산업용지 수급전망.

Hayter, R., 1998.,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The Factory, the
Firm and the Production System, John Wiley & Sons.

Stafford, H. A., 1972, The Geography of Manufacturers, Progress in
Geography, vol.4, pp.181~215.

부록

[부록 1]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2012년 9월말 현재)

(단위: 개소, 천㎡, %)

시군	유형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면적(A)	개발면적	분양(B)	미분양	분양가능 면적(A-B)
전북	계	77		126,042	51,038	37,061	35,734	1,328	15,304
	국가	4		67,819	15,469	14,070	14,070	0	1,399
	일반	21		49,295	28,582	16,637	15,667	970	12,915
	도시첨단	1		110	39	39	39	0	0
	농공	51		8,818	6,949	6,316	5,958	358	991
전주시	계			3,136	2,124	1,996	1,936	60	188
	일반	전주시자원순환특화	완료	81	45	45	45	0	0
		전주제1	완료	1,683	1,169	1,169	1,169	0	0
		전주제2	완료	687	531	531	531	0	0
		전주친환경첨단복합 (3-1단계)	조성중	284	183	55	55	0	128
	도시첨단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완료	110	39	39	39	0	0
군산시	계			89,310	25,844	17,040	17,040	0	8,804
	국가	군산국가산업단지	완료	13,702	4,787	4,787	4,787	0	0
		군산2국가산업단지	완료	50,459	8,161	8,161	8,161	0	0
	일반	군산	완료	5,641	3,624	3,624	3,624	0	0
		새만금	조성중	18,700	8,628	0	0	0	8,628
	농공	서수	완료	287	239	239	239	0	0
		성산	완료	142	126	126	126	0	0
		옥구	완료	140	103	103	103	0	0
임피		미개발	239	176	0	0	0	176	
익산시	계			11,003	7,510	6,074	5,441	634	2,069
	국가	익산1국가산업단지	완료	1,336	1,121	1,121	1,121	0	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중	2,323	1,399	0	0	0	1,399
	일반	익산제3	조성중	2,796	1,533	1,496	945	552	588
		익산제2	완료	3,309	2,563	2,563	2,563	0	0
		익산종합의료과학	완료	501	307	307	225	82	82
	농공	낭산	완료	129	109	109	109	0	0
		삼기	완료	132	113	113	113	0	0
왕궁		완료	330	246	246	246	0	0	
황등		완료	147	119	119	119	0	0	

시군	유형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면적(A)	개발면적	분양(B)	미분양	분양가능 면적(A-B)
정읍시	계			4,211	2,871	2,446	2,430	16	441
	일반	정읍제1	완료	202	153	153	153	0	0
		정읍제2	완료	999	668	668	668	0	0
		정읍제3	완료	1,025	757	757	757	0	0
		정읍첨단과학(RFT)	조성중	897	425	0	0	0	425
	농공	고부	완료	151	128	128	128	0	0
		농소	완료	186	174	174	174	0	0
		북면	완료	211	174	174	174	0	0
		신용전문	완료	143	105	105	105	0	0
		신태인	완료	150	117	117	117	0	0
태인		완료	247	170	170	154	16	16	
남원시	계			1,061	773	561	548	13	225
	농공	광치1(구광치)	완료	140	117	117	117	0	0
		광치2	완료	113	94	94	94	0	0
		노암	완료	147	103	103	103	0	0
		노암제2	완료	168	115	115	102	13	13
		노암제3	미개발	325	212	0	0	0	212
		어현	완료	51	39	39	39	0	0
인월		완료	117	93	93	93	0	0	
김제시	계			4,522	3,103	1,490	1,490	0	1,613
	일반	김제순동	완료	262	181	181	181	0	0
		김제지평선	조성중	2,986	1,863	250	250	0	1,613
	농공	대동전문	완료	331	247	247	247	0	0
		만경	완료	215	181	181	181	0	0
		봉황	완료	233	206	206	206	0	0
		서흥	완료	277	236	236	236	0	0
		월촌	완료	145	133	133	133	0	0
황산		완료	73	56	56	56	0	0	
완주군	계			8,145	5,455	4,922	4,688	234	767
	일반	완주	완료	3,359	2,615	2,615	2,615	0	0
		완주테크노밸리	조성중	1,314	969	436	202	234	767
		전주과학	완료	3,074	1,485	1,485	1,485	0	0
농공	이서특별	완료	398	386	386	386	0	0	

시군	유형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면적(A)	개발면적	분양(B)	미분양	분양가능 면적(A-B)
진안군	계			464	342	342	209	133	133
	농공	연장	완료	53	45	45	45	0	0
		진안제2	완료	146	105	105	105	0	0
		진안홍삼한방	완료	265	192	192	59	133	133
무주군	계			339	279	279	226	53	53
	농공	무주	완료	147	120	120	120	0	0
		무주제2	조성중	98	80	80	27	53	53
		안성	완료	94	79	79	79	0	0
장수군	계			486	358	254	245	9	113
	농공	장계	완료	290	204	204	195	9	9
		장수	조성중	139	104	0	0	0	104
		천천	완료	57	50	50	50	0	0
임실군	계			332	275	275	275	0	0
	농공	신평	완료	53	49	49	49	0	0
		오수	완료	132	93	93	93	0	0
		임실	완료	147	133	133	133	0	0
순창군	계			492	368	368	282	85	86
	농공	가남	완료	83	62	62	62	0	0
		쌍암	조성중	122	73	73	0	73	73
		인계(구제2장류)	완료	149	122	122	115	6	7
		풍산	완료	138	111	111	105	6	6
고창군	계			1,606	1,151	428	403	26	748
	일반	고창	조성중	849	582	0	0	0	582
	농공	고수	완료	105	81	81	81	0	0
		복분자	조성중	197	141	0	0	0	141
		아산	완료	140	111	111	111	0	0
		흥덕	완료	315	236	236	211	26	25
부안군	계			937	587	587	523	63	64
	일반	부안신·재생에너지	완료	354	144	144	102	41	42
	농공	부안	완료	149	123	123	123	0	0
		부안제2	완료	345	251	251	229	22	22
		줄포	완료	89	69	69	69	0	0

자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 재가공.

[부록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1. 지역산업 육성 비전 및 전략

- 전라북도는 지역산업 육성 비전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 융복합 산업의 중심도시, 전북”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을 추진 중
 - 3대 추진전략은 기업유치 및 육성, R&D 역량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
 -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로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추진



자료: 전라북도(2011.10.31),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전문가토론회

(부록 1) 전라북도 산업육성 비전 및 전략

2. 1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방향

1) 자동차산업

- 비전: 동북아 거점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 목표: 2020년 매출 14조원, 수출 74억달러, 고용 2만명
- 육성방향
 -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인프라구축
 - 뿌리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부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 전장·새시 부품분야 육성 및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2) 기계산업

- 비전: 첨단 농기계 및 부품소재 국가거점 공급기지 조성
- 목표: 2020년 매출 2조원, 수출 15억달러, 고용 4천명
- 육성방향
 - LS 트랙터 수출량 대폭 증대 및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량 확대
 - '선진국(신기술) 30% : 신흥국(저가형) 70%'로 타겟시장별 차별화된 육성
 - 완성형 업체 2사(IS엠트론, 동양물산)에 동시납품을 통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육성

3) 조선해양산업

- 비전: 미래형 친환경 조선해양 산업의 글로벌 메카 구축
- 목표: 2020년 매출 2조원, 수출 17억달러, 고용 1만2천명
- 육성방향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심의 해양플랜트 및 특수선박 관련 핵심경쟁력 강화
 -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와 연계한 친환경 선박기자재 분야 육성
 - 해양·레저 분야의 고부가가치 선박(요트 등) 및 관련 부품산업 육성

4) 태양광산업

- 비전: 2020 동북아 태양광산업 허브 구축
- 목표: 2020년 매출 5.9조원, 수출 48억달러, 고용 2만명
- 육성방향
 - 차세대 (박막, 염료감응형, 유기태양전지) 태양전지분야 기술 확보
 - 기업지원(인증, 마케팅 등), R&D·생산 전문인력 양성
 -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광 시스템 설치 기업 등 연관기업 발굴 및 유치

5) 풍력산업

- 비전: 동북아 풍력산업 허브 구축
- 목표: 2020년 매출 6조원, 수출 43억달러, 고용 1만7천명
- 육성방향
 - 동부산악권 및 새만금 방수제 등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
 - 해상풍력 지원항만 조속 추진과 풍력 O&M 인력양성 사업
 - 풍력 수용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인프라 조성 사업

6) 탄소소재산업

- 비전: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소재 허브
- 목표: 2020년 매출 1.5조원, 수출 9억 달러, 고용 6천명
- 육성방향
 - 범용 원천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로 자동차, 풍력, 항공산업 적용 확대
 - 초고강도 탄소섬유 국산화를 통한 금수품목 국산화달성 주력
 - 효성 등 원천소재 생산역량 확보 및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중점

7) RFT(방사선융합기술)산업

- 비전: 2020 세계수준의 RFT 비즈니스벨리 조성
- 목표: 2020년 매출 0.7조원, 고용 4천명
- 육성방향
 - 의료, 보안 분야 방사선 융·복합기기분야 핵심원천기술개발 주력

- 소량다품종 방사선기기 부품생산 전문기업 육성
- 차세대 시장 대응 방사선의학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8) 인쇄전자산업

- 비전: 동북아 인쇄전자 중심지로 도약
- 목표: 2020년 매출 8천원, 수출 1.2억 달러, 고용 4천명
- 육성방향
 - 산업화 초기단계로 기술개발과 핵심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육성
 - 지역 전문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기업수요 사업화 핵심기술개발 지원
(장비 및 공정 : KETI, 재료·소재 : KIST, JMC 등)
 - 유연인쇄전자 전문대학원 및 유관기관을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9) LED산업

- 비전: LED융복합 그린산업 메카 구축
- 목표: 2020년 매출 1조원, 수출 6억 달러, 고용 5천명
- 육성방향
 - 부품 중심에서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일반·특수조명 산업 중심으로 전환
 - 식물공장 등 전략적 LED 융합산업 분야 중점 육성

10) 식품산업

- 비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 실현
- 목표: 2020년 매출 10조원, 수출 14억 달러, 고용 2만 1천명
- 육성방향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및 도내기업 육성 확대
 - '발효미생물 증가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고기능성 식품 R&D 역량 확보
 - FTA에 대응한 지역 특화품목의 고부가 식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

[부록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일부개정) 2006-12-08 조례 제 3233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3308호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338호
(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3378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0-05-07 조례 제 3473호
(일부개정) 2010-07-30 조례 제 3494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10-01 조례 제 3528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1-10-14 조례 제 36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14>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3, 2011. 10. 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4>
3.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4>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4>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4. 3, 2011. 10. 14>
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

- 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1. 10. 14>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2011. 10. 14>
- 나. 「국민연금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2011. 10. 14>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2011. 10. 14>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6. 12. 8, 2011. 10. 14>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9.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1.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2011. 10. 14>
12.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3.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4. “도내거주자”란 전라북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5. “집단화”란 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도내에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6.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

- 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2008. 6. 13, 2010. 5. 7, 2011. 10. 14>
17.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19. “이전건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따른 “이전건당”을 말한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6. 13, 2008. 12. 26, 2011. 10. 14>
20.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21. 삭 제 <2010. 5. 7>
2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23. “성장촉진지역 ”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2011. 10. 14>
24.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에 기반이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 10. 14>
25.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 10. 14>
26. “산업별 특화단지”란 전라북도가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4>

제2장 투자위원회 등

제3조(설치) ①국내·외기업과 도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제4조(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2010. 7. 30, 2011. 10. 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4〉

1.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당연직), 도의원 <개정 2011. 10. 14〉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개정 2006. 12. 8〉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개정 2007. 12. 28〉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06. 12. 8, 2011. 10. 14〉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④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에 관한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간사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유치부장으로 한다. <신설 2010. 5. 7, 개정 2010. 7. 30〉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4]

제5조(기능) ①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1. 10. 14>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10. 14>
- ②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관련사항 <개정 2007. 12. 28>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10. 14>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 12. 8>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2. 8>

제7조(실무위원회) ①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운영)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라 한다)을 두되,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12. 8, 2010. 7. 30〉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민생일자리본부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2. 8, 2010. 7. 30〉

1.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의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1. 10. 14〉

제9조(투자통상자문관) 도지사는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전라북도투자통상자문관 (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1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2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3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1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1. 10. 14〉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8, 2011. 10. 14>

④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1. 10. 14>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0. 14>

제1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전라북도 도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8, 2010. 5. 7, 2011. 10. 14>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전라북도 도민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8,

2010. 5. 7, 2011. 10. 14>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지역에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1. 10. 14>

② 삭 제<2008. 6. 13>

③ 삭 제<2008. 6. 13>

제19조의2(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도지사는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이전·증설·창업을 하는 경우 제23조, 제23조의1,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7. 12. 28>

제19조의3(이중지급의 금지)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2조제16호의 대규모 투자기업일 경우 시설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한도의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6. 13, 단서신설 2011. 10. 14>

제20조 삭 제 <2010. 5. 7>

제21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도지사는 영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8. 6. 13, 2011. 10. 14>

1.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4. 그 밖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개정 2011. 10. 14>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신설 2010. 5. 7, 개정 2011. 10. 14>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10. 5. 7, 개정 2011. 10.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6. 13, 2010. 10. 1, 2011. 10.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1. 10. 14>

제22조(시·군의 유치활동 지원) ①도는 시·군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도지사는 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당해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 6. 13>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3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이전에 따라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2011. 10. 14>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해당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5년간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③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5 범위에서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0. 5. 7, 2011. 10. 1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에 대하여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 100분의6 범위에서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2011. 10. 14>

⑤타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이 도내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4>

제23조의1(기존기업의 도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 공장부지 외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8. 12. 26, 2010. 5. 7, 2011. 10. 14>

1.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제조업 (식품관련제조업 포함)
<개정 2011. 10. 14>

2. 삭 제 <2011. 10. 14>

3. 첨단업종

②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2003년 이후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도의회 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줄 수 있다.

제23조의2(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5. 7, 개정 2011. 10. 14>

제23조의3(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제23조제1항, 제23조의1, 제23조의2 및 제24조,

제24조의3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 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0. 5. 7, 2011. 10. 14>

제23조의4(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제23조제1항, 제23조의1, 제23조의2 및 제 24조, 제24조의 3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 시고용하기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8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10. 5. 7, 2011. 10. 14>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로 포함) 및 개 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 의 100분의5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 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08. 12. 26, 2011. 10. 1 4>

②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 력업체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 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2011. 10. 14>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과 대규모 투자 기업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이 되는 기업으로 반드시 유 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기업과 투자협약 직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 정 2008. 12. 26, 2011. 10. 14>

④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8, 2011. 10. 14>

⑤ 삭 제<2008. 12. 26>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대규모 투자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 할 수 없으

며, 대규모 투자기업의 생산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 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미달 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4>

⑦도지사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4>

제24조의2 삭 제<2008. 6. 13>

제24조의3(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도지사는 도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2010. 5. 7, 2011. 10. 14>

②성장촉진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신규로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12. 26, 2010. 5. 7, 2011. 10. 14>

③도내 기존기업 또는 신규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2011. 10. 14>

제24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9조, 제19조의3의 단서, 제23조, 제23조의1,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3, 제24조의5, 제30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단서신설 2008. 12. 26, 개정 2008. 6. 13, 2010. 5. 7, 2011. 10. 14>

제24조의5(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5. 7, 2011. 10. 14>

제24조의6(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제24조의5 규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기준절차 등은 규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14>

1. 국비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1. 10. 14>
2. 지방비 :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30퍼센트와 70 퍼센트로 하고, 성장촉진지역은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특히 성장촉진 지역 중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 지역은 각각 70퍼센트와 30퍼센트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7]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5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 6. 13>

제26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0. 5. 7, 2010. 7. 30, 2011. 10. 1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4>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1. 10. 14>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④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5. 7>

⑤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0. 14>

[본조신설 2008. 6. 13]

제2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4]

제27조(관광위원회의 기능) ①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 6. 13]

제28조(관광위원회 회의) ①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29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도지사는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2011. 10. 14>

제3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3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②도지사는 제2조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11. 10. 14>

제34조(이중지급의 금지) 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14>

②제3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0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14>

[본조신설 2008. 6. 13]

제7장 보 칙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10. 14>

제35조의2(외부전문가등의 활용) ①도지사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8, 2011. 10. 14>

②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사무의 민간 위탁 등) 도지사는 도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11. 10. 14>

제3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8>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8>

제37조(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2011. 10. 14>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06. 12. 8>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때 <개정 2006. 12. 8, 2011. 10. 14>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10. 14>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7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1. 10. 14>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0. 5. 7>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7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06. 12. 8, 개정 2011. 10. 14>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39조(포상금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40조(수당 및 여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공

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10. 14>

②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10. 1 조례 2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3 조례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 조례2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8 조례295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기업으로써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공장이전 또는 공장건설이 지연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2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3 조례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8 조례323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경과조치) 제24조의 3에 의한 장려금 지원은 입주계약(변경) 등 계약체결일이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 <2007. 12. 28 조례330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도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경과조치)이 조례 제24조제5항에 의한 도내외 기업 또는 신규기업 창업투자 지원과 제24조의3제2항에 의한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입주계약(변경) 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③(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경과조치)이 조례 제24조의4에 의한 보조금 차등지급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8. 6. 13 조례3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조례3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7 조례3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기획부장”을 “산업유치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투자유치국장”을 “민생일자리본부장”으로, 제26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33)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생략

부 칙<2010. 10. 1 조례352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도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를“(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로 하고, 본문, 제16조제4항, 제21조제2항 중 “「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며, 제16조제5항, 제35조제2항 중 “도유재산”을 각각 “공유재산”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1. 10. 14 조례3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